

鄉土서울

第62號

200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Hi Seoul

SOUL OF ASIA

郷土서울

第62號

200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Hill Seoul

SOUL OF ASIA

鄉土서울

第62號(2002)

특집 百濟 漢城期 都城 연구 - 河南慰禮城을 중심으로 -

漢城期 百濟의 城郭	박순발 / 5
慰禮城에서 漢城으로	김기섭 / 44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신희권 / 74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의 재고찰 -放鶴洞土城과 河南省 고골을 중심으로-	오순제 / 113

논문

1960년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 연구	곽건홍 / 214
------------------------------	-----------

위원회 소식

漢城期 百濟의 城郭

박 순 발*

1. 머리말
2. 漢城期 百濟의 都城制
3. 漢城期 百濟의 關防 城柵
 - (1) 문헌 자료
 - (2) 고고학 자료
4. 맺음말

1. 머리말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建國條에는 고구려로부터 南來한 온조일행이 漢水의 남쪽에 택지하여 河南慰禮城에 도읍하였음을 전하는 한편, 온조왕 13년조에 다시 王都에서의 異變과 王母의 서거를 계기로 樂浪과 靺鞨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漢水之南’, 즉 한강 이남의 땅으로 천도하여 이전의 도읍지였던 慰禮城의 백성들을 옮겼다는 서로 모순되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처음 한강 이북의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강 이남으로 옮겼기에 하남위례성이 백제의 도읍지로 부각된 데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초 도읍한 한강 이북의 위례성은 하남위례성과 구분하여 河北慰禮城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하남위례성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은 최근 조사된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이 소재한 지금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대에 해당함은 분명해졌다.

이러한 도성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백제가 성장해나가면서 주변 적대세력이었던 낙랑·말갈·마한·고구려·신라 등과의 군사적인 긴장관계에서 축조된 다수의 城名이 『三國史記』에 남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인 전략 전술에 입각해 축조된 성들은 당시 인접한 정치체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그 위치나 기능이 바뀌었을 터이지만 문헌사료상에 보이는 성의 위치가 확정된 경우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분명히 한성기 백제의 山城으로 판단되는 예들이 있어 문헌사료상으로만 남아 있던 백제 산성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풍납토성 발굴조사 후 논란이 있는 하남위례성의 위치비정 문제와 관련한 한성기 백제의 都城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한편, 고고학 자료상으로 확인된 한성기 백제의 산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漢城期 百濟의 都城制

『삼국사기』 등 문헌사료상에 전하는 한성기 백제의 도성명과 관련된 명칭은 ‘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城’, ‘漢山’, ‘北城’, ‘南城’, ‘大城’, ‘王城’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위례성, 즉 최초의 도읍지로서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 즉 漢城→漢山 등으로 변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천도 과정에 대해서는 茶山 丁若鏞 이래 선후 연구자들이 거의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近肖古王 26년(서기 371) “移都漢山”¹⁾한 이후 다시 한성 또는 하남위례성으로 재천

0) 『三國史記』 百濟本紀.

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지 않지만 蓋鹵王 21년(서기 475) 長壽王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王都漢城”¹⁾을 포위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면, 멸망 당시의 도성은 분명 漢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산으로 이도한 후 어느 무렵인가 다시 하남위례성 또는 한성으로 다시 옮겼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일단 한성기 백제 도성의 변화는 하북위례성→하남위례성(한성)→한산→한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으나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학자료에 의하면 하남위례성 또는 한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²⁾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하북위례성에 대해서는 대략 한강 이북의 어느 지점이라는 것 이외에 그 실체가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도성으로서의 그 사용기간이 불과 13년이었으므로 뚜렷한 고고학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한편, 한산에 대해서는 그간 南漢山城說과 二聖山城說 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어느 경우도 고고학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하남위례성과 한성의 관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하남위례성과 한성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성은 근초고왕 26년에 옮긴 한산이고, 위례성은 그 이전의 도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 그에 따르면, 위례성에서 한산으로 옮긴 이후 개로왕 21년 고구려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줄곧 도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한성으로도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산 또는 한성의 위치는 지금

1)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21년조.

2) 朴淳發, 「百濟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3)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記念 韓國史學論叢』, 1985, 正音文化社.

의 二聖山城이라는 것이다. 최근까지 실시된 이성산성에 대한 여러 차례 발굴조사 결과, 이 유적이 백제의 도성이었을 가능성은 無望하므로 적어도 한산=한성=이성산성설은 전혀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근초고왕 26년 한산으로 移都하기 이전 기록에도 ‘漢城’이 2차례 확인될 뿐 아니라,⁴⁾ 개로왕 21년 한성 함락과 관련된 기록들에는 전술한 것처럼 ‘王都漢城’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日本書紀』의 기록에는 백제의 도성을 여전히 “慰禮”⁵⁾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이라는 명칭은 한산으로 이도한 이후의 도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아무튼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 기록과 일본서기 웅략기 20년조의 기록에서 보다 분명한 것은 慰禮城이 곧 당시 백제 도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漢城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慰禮’는 당시 한강을 “阿利水”(廣開土王碑文) 또는 “郁利河”⁶⁾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의 ‘아리’나 ‘옥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한’, 즉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위례성이나 한성은 모두 큰 성을 뜻하는 같은 의미의 표기에 다름 아니다.⁷⁾

다음은 하남위례성=한성의 구체적인 위치비정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풍납토성이 발굴된 후 하남위례성이 풍납토성이고, 이곳이 곧 왕성이라는 견해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몽촌토성은 하남위례성이 아니며 왕성도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한성기 백제의 도성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허하고 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4)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4・25년조.

5) 『日本書紀』雄略紀 20년조.

6)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21년조.

7) 李道學, 「百濟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전술한 것처럼 고구려에 의해 백제도성이 함락될 무렵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는 각각 北城·南城과 그에 대응하는 大城·王城이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攻北城七日而拔之 移攻南城中危恐王出逃 麗將(中略)縛送於阿且城下戕之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21年條)
- ② (前略)百濟記傳 蓋鹵王 乙卯年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慰禮(『日本書紀』雄略天皇 20年條)

이 두 기록을 종합해 개로왕 21년의 백제 도성 함락과정을 정리해 보면, 고구려군은 우선 북성인 대성을 7일 밤낮 동안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이어서 남성인 왕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왕이 두려워 도망하고 이를 고구려의 장수가 쫓아 붙잡아 아차성에서 죽였으며, 이에 왕성도 함락되어 마침내 백제 도성 위례성이 고구려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두 기록의 대비를 통해 개로왕 21년 당시 백제의 도성에는 북성=대성, 남성=왕성 이라는 2개의 성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2성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북쪽에 있는 대성이고 남성에는 왕이 거처하고 있었기에 왕성으로 불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위례가 백제의 도성지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은 ②기사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성의 다른 표기임은 전술한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의 또 다른 기사 “王都漢城”으로 뒷받침된다.

요컨대 개로왕대를 근거로 하는 한 백제의 王都였던 漢城=河南慰禮城에는 대성=북성과 왕성=남성의 2개의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자료로 보는 한 북성이 곧 풍납토성이고, 남성이 몽촌토성임은 두 말할 필요 없으므로 풍납토성만이 하남위례성이요 왕성이라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두 성은 언제부터 병존하였을까? 2성 가운데 어느 하나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 풍납토성이 몽촌토성보다 먼저 축조되었으므로 처음에는 역시 하남위례성=풍납토성=왕성이 옳지 않을까?

최근 풍납토성이 발굴·조사되면서 그 축조시점을 3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하거나,⁸⁾ 2세기 전반~3세기 중반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비정하는 견해⁹⁾ 등이 제기되어 풍납토성은 몽촌토성보다 먼저 등장하였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풍납토성은 1997년도 가·나지구 조사 결과, 크게 4시기로 구분된다. I기는 3중환호 사용기, II기는 3중환호 폐기 후 성벽이 축조된 시기, III기는 몽촌 I기 병행기, IV기는 몽촌 II기 병행기가 그것이다. I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3중환호와 가-11호 주거지이며, II기는 가-2호, 나-8호 주거지, 그리고 가-1호 수혈 등이라는 것이다.¹⁰⁾

성벽은 환호가 폐기된 후 축조되었을 것이므로 풍납토성의 축조 上限과 관련하여 우선 풍납 I 기의 시기 비정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가-11호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심발 1개체만 출토되어 현재로서는 토기에 의한 시기 비정은 정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환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경질무문토기 심발과 함께 승문+횡선으로 표면 처리된 深鉢形土器, 肩部 三角鋸齒文이 있는 格子打捺 大甕片 등 그 시점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심발형토기는 경질무문토기의 후속기종으로서 200~250년 사이에 비정되는 것으로서,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토기편년상 제III기에 처음 등장한다.¹¹⁾ 최근

8) 申熙權,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대학교 開校 第74週年記念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2001.

9)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 I, 2001.

10) 위와 같은 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심발형토기는 부산 東萊貝塚¹²⁾에서 일본열도의 土師器系 토기와 共伴되어 그 시기가 3세기 중엽경임을 알 수 있는 帶頸壺와 함께 공반되고 있는데, 金堤 深浦里¹³⁾가 그 예이다. 그런데 심발형토기는 표면이 타날문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그 전신은 표면이 무문인 경질무문토기이다. 경질무문토기 심발과 전술한 바와 같은 대경호가 역시 淸州 松節洞¹⁴⁾에서 공반되고 있다. 따라서 중서부 지역 및 호남지역에서는 대략 3세기 중엽경이 바로 경질무문토기 심발에서 타날문심발형토기로 이행되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풍납토성을 비롯한 한강유역에서도 경질무문토기 심발이 어느 무렵엔가 타날문이 있는 심발형토기로 바뀌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직 한강유역에서 그 이행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청동기 시대 이래 통시적으로 볼 때 시차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므로 한강유역에서의 심발형토기 출현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3세기 전반을 소급하지 않는다¹⁵⁾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한편, 건부에 거치문이 있는 大甕의 시기 역시 최근까지 알려진 바로는 3세기 중엽을 소급하기 어려운데, 전술한 동래패총 출토 대경호 건부에도 역시 대응편의 그것과 거의 같은 거치문이 있어 이러한 대응의 시기 비정에 참고가 된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풍납토성 경당연립부지에서는 대응과 중국 西晉代(265~316년)에 유행하였던 錢文陶器가 공반되어 있었다. 전문도기는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제

-
- 11) 李康承·朴淳發·成正鏞, 「長山里遺蹟의 編年の 位置 및 性格」 『天安長山里遺蹟』, 忠南大學校 博物館, 1996.
 - 12) 洪潛植,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 -東萊貝塚-』,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7.
 - 13) 兪炳夏·崔興鮮, 「金堤 深浦里一帶 文化遺蹟收拾調查報告」 『扶安海岸一帶 遺蹟調查報告』, 國立中央博物館, 1990.
 - 14) 趙詳記, 「淸州 松節洞古墳群 調查概報」 『韓國考古學報』, 31, 1994.
 - 15) 李康承·朴淳發·成正鏞, 앞의 글.

작된 것으로서 가장 빠른 예는 孫吳(222~280년) 시기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東晋代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풍납토성에서 대옹과 공반된 錢文陶器는 결코 이른 시기의 것이 아닌 동진대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찰도 있다.¹⁶⁾ 이는 한강유역을 비롯한 중서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대옹의 편년적 위치를 좀더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된다. 아무튼 원삼국시대 거치문 대옹을 3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그러므로 풍납동 I기로 비정한 3중환호 출토 심발형토기를 2세기대로 비정한 근거는 없으며, 같은 시기로 구분된 거치문 대옹 역시 3세기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졌다. 따라서 풍납토성의 축조 상한은 3세기 중엽 또는 후반경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고자들이 풍납토성이 축조되었을 무렵의 城 내부 유구로 이해한 가-2호, 나-8호 주거지에서는 圓底 시루, 승문+횡선 타날문 심발형토기, 견부 거치문 대옹편 등과 함께 동하반부가 평행타날된 圓底 直口短頸壺, 平底 廣口短頸壺 등이 출토되었다. 원저 시루의 유례는 가평 馬場里, 용인 舊葛里 유적¹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몽촌토성 등에서 흔히 확인되는 長卵形土器와 흡사하여 옹관으로 전용되어 그 시기적 위치를 알 수 있다. 광구단경호 유례는 漢沙里 崇實大 조사 B-15호 도랑유구¹⁸⁾ 및 풍납동 경당지구 9호 유구¹⁹⁾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가-2호 출토 토기의 동체하단부에는 몽촌 I기에 흔히 보이는 깎기 수법²⁰⁾도 관찰되어 그 시기적 위치를 시사하고 있다.

16) 2002년 8월 23일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시 중국측 참가자였던 鄒厚本 南京博物院 研究員 談.

17) 畿甸文化財研究院, 「舊葛里遺蹟 發掘調査」(현장설명회 자료), 2001.

18) 林炳泰·崔恩珠·金武重·宋滿榮, 『漢沙里』第3卷 346쪽, 崇實大學校 博物館 篇,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1994.

19) 權五榮,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百濟研究』 36,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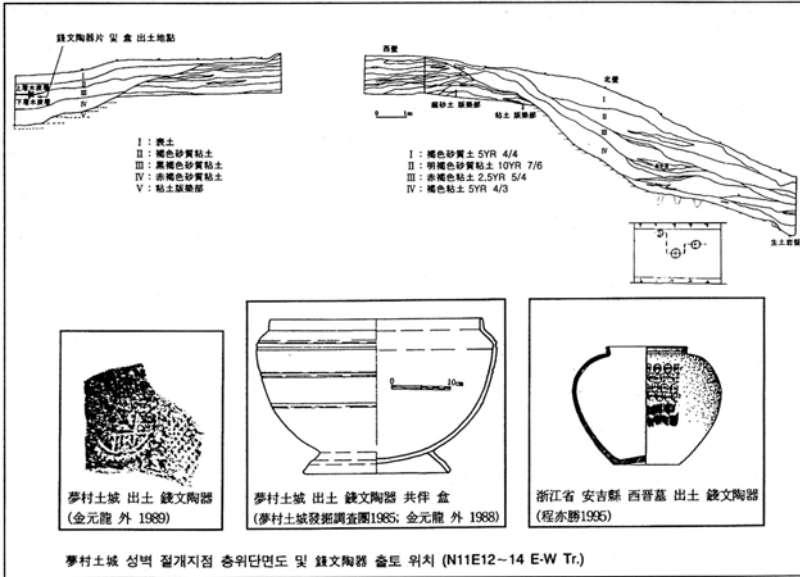
따라서 풍납동 II기는 실제로는 몽촌 I기의 이른 시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풍납동 II기는 3중환호 폐기 이후의 유구를 근거로 설정된 것이므로, 3중환호 시기인 풍납 I기보다 늦으나 환호 폐기 후 곧 바로 축성하였다는 보장이 없는 한 축성시점과 동일시 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축성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경우이든 축성의 상한은 환호 폐기 시점인 3세기 중엽 또는 후반 무렵을 소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몽촌토성의 축조시기는 언제쯤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1985년도 발굴조사시 북문과 동문 사이의 동북지역 성벽에서 출토된 錢文陶器片을 들 수 있다. 전문도기는 성내 층의 성벽상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것이므로, 이 퇴적층은 성벽 축조 시점보다는 분명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그림 1> 참조). 전문도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孫吳代부터 東晉의 비교적 이른 시기까지 제작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기 출토품은 전문의 가장자리가 툽니바퀴모양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西晉代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대략 3세기 중·후엽 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도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퇴적층에 혼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수입 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여 이곳에 퇴적되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자료를 통해 보는 한 이 전문도기는 중국본토에서 직접 가져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그러한 장거리 대외 교섭을 담당하였을 세력은 역시 백제국가의 성립을 주도하였던 엘리트 계층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0) 위의 논문.

<그림 1>

몽촌토성 錢文陶器 및 출토층위



국가의 형성과 성곽의 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알려진 바 있으므로 몽촌토성은 역시 전문도기를 수입하였던 국가 형성기의 정치적 엘리트계층의 주도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출토층위상으로는 몽촌토성 출토 전문도기 파편은 축성의 下限을 말해주는 고고학 자료인데, 만약 수입된 후 파손되어 버려지기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몽촌토성의 축조 하한은 3세기 중·후반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몽촌토성 축조시점을 대략 3세기 중엽~후반경으로 보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선후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일부 논자들의 주장처럼 결코 풍납토성의 축조시점이 몽촌토성에 비해 이르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오히려 몽촌토성이 빠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튼 처음 백제가 국가 단계로 성장하면서 두 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축성되었을 것이고, 이어서 또 다른 성이 추가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의 도성에는 2개의 성이 존재하였던 것이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결론이다.

세 번째로 한산의 위치비정과 移都 후 다시 한성으로 재천도하였는지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근초고왕 때에 이도한 한산은 지금의 북한산성으로 비정되며, 이후 都城名으로서 한산의 표현은 더 이상 없는 점으로 미루어 머지 않아 다시 한성으로 재천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²¹⁾가 있다. 그러나 비정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

한편, 최근에는 몽촌토성이 한산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²²⁾ 이들은 몽촌토성을 한산으로 비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되나 구체적인 논지에는 상당한 차이도 있다. 김기섭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漢山’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한산은 한성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서 넓은 의미의 한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곳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성은 풍납토성이며, 새로 왕이 이도한 한산은 城塞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왕성으로서 몽촌토성이라 하였다. 이 경우 풍납토성으로 한 한성은 居民城으로서 평상시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만큼 『삼국사기』에 阿莘王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漢城別宮”²³⁾처럼 別宮도 있었지만, 왕의 正宮은 몽촌토성 내에 있

21) 李道學, 「百濟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22) 田中俊明, 「百濟漢城時代における王都の變遷」 『朝鮮古代研究』 1, 朝鮮古代研究刊行會, 1999 ; 金基燮, 『백제와 근초고왕』 學研文化社, 2000, 305~310쪽 ; 余昊奎, 「漢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百濟研究』 36, 2002.

23)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원년조.

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여호규는 ‘漢城’은 371년 무렵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산에 축조한 군사방어성이었지만, 이 때 移都하면서 내부에 왕실 구성원을 위한 한성별궁을 조영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줄곧 그대로 왕성으로 사용되다가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바와 같이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백제 도성 공략에 항복하면서 평상시의 왕성이었던 북성, 즉 풍납토성으로 환도하면서 몽촌토성은 비상시의 군사방어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田中俊明은 근초고왕 이후 이도 한산하면서 백제의 왕성은 한성, 즉 몽촌토성이며, 그 이전의 왕성은 위례성인 풍납토성으로 보고 있다.

위의 견해들은 한성을 371년 이도한 한산, 즉 몽촌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넓은 의미의 백제 도성 전체를 가리키면서 구체적으로는 왕성이 아닌 거민성으로서의 풍납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한성은 위례성과 같이 백제 도성의 汎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전자의 입장, 즉 “이도한산”한 이후의 몽촌토성에 대한 特稱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은 삼국사기 온조왕대의 기사에 보이는 한성을 후대인 근초고왕대 이후 사실들이 소급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한성=위례성=백제도성 범칭의 견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산은 언제 축조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여호규는 4세기 후반경, 즉 371년 이도할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몽촌토성은 전문도기의 출토로 보아 이미 3세기 중·후반경에는 축조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도하기 전에 존재하던 기존 성에 371년 왕이 옮겨가면서 왕성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²⁴⁾ 이는 축조와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는 채로 “이도한산”하였다는 기록만 나타나는 점은 그러한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24) 田中俊明, 앞의 논문.

<그림 2>

한성양식 백제토기

	無蓋高杯	有蓋高杯	杯形三足器	盤形三足器	直口短頸壺	蓋	器臺	直口廣肩壺	廣口長頸壺
A.D. 250	1(BF)			10(F) 11(F) 12(F) 13(F) 14(F) 15(F)	21(BF) 22(BF) 23(F) 24(F)	27(BF) 28(BF) 29(F) 30(F)	33(F) 34(F)	42(BF) 43(F)	44(F)
A.D. 350	4(H)	7(H) 8(H) 9(H)	16(H) 17(H) 18(H) 19(H) 20(H)	25(H) 26(H)	31(H) 32(H) 40(H)	35(H) 36(H) 37(H) 38(H) 39(H)	41(H)	45(H) 46(H)	47(H)
A.D. 475									

1 : 石村洞2號墳下 2,3,43 : 石村洞古墳群 4-20,22,27-41,44-46 : 夢村土城 21 : 石村洞3號 東岳大形土廣木棺墓 周邊
23-26,47 : 石村洞3號 東岳土廣木棺墓 42 : 可樂洞2號墳

이상 한성기 백제의 도성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국가 성립시점은 석촌동고분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대형고분의 출현, 한성양식 백제토기의 성립(<그림 2> 참조), 그리고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 같은 성곽의 등장 등 고고학자료를 근거로 하면 대체로 3세기 중엽 또는 후반경이다.²⁵⁾ 풍납토성의 축조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축성 이전단계인 3중환호 취락 시점인 3세기 중·후엽 이전으로 소급될 수는 없다. 한편, 몽촌토성은 전문도기 출토 퇴적층이 성벽 성토층 위에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전문도기 폐기시점에는 이미 성벽이 축조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문도기의 정확한 수입시점과 폐기에 이르는 동안에 경과한 기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대략 3세기 중·후엽경에는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처음 어느 한 성이 먼저 축조되었을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몽촌토성 쪽이 보다 선행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풍납토성의 규모가 몽촌토성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축조기법에서도 보다 발달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은 그러한 시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풍납토성도 축조되면서 한성기 백제의 도성에는 규모와 입지가 다른 2개의 성이 공존하게 된다.

규모가 크고 평지에 입지한 풍납토성은 북성 혹은 대성으로 불렸으며, 그 속에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기구 및 인원들이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왕궁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한편, 규모가 작으나 군사적인 방어력이 견고한 몽촌토성은 처음 백제가 국가로 성장할 무렵의 건국 주도세력의 중심성으로 존재하다가 점차 국가 성장과 함께 풍납토성을 새로 축조하면서 왕성으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각축을 벌이던 근초고왕대 371년 이후 “移都

25) 朴淳發, 「百濟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漢山”하면서 견고한 방어력을 추가하여 왕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며, 그 이후 사정은 자세하지 않으나 개로왕 21년 한성 함락 당시 왕이 있던 왕성은 역시 남성인 몽촌토성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러한 기능은 지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漢城期 百濟의 關防 城柵

(1) 문헌 자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한성기 백제의 城柵에 대한 축조와 그 위치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온조왕 8년조의 馬首城과 瓶山柵을 필두로 개로왕 15년조의 雙峴城 수읍과 靑木嶺 大柵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약 30여개의 성책의 명칭이 관찰된다. 이들은 그때 그때의 인접 정치체들과의 관계에 따른 필요에 의해 축조 修葺된 것인 만큼 그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정은 한성기 백제의 영역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없었으나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최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한성기의 산성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대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는 한성기 백제 관방들을 종합 정리해보고, 해당 기사와 맥락을 통해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봄으로써 향후의 구체적인 연구에 대비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한성기 백제의 관방들을 관련 記事의 紀年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丑 1>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漢城期 百濟 關防 일람표

關防名	紀年	관련기사 내용	比定地
馬首城①	溫祚8年 가을 월	봄 이월 말갈 3천명이 와 위례성을 포위할 때 왕이 성문을 닫고 10여일을 기다리다 말갈이 물러감에 추격하여 大斧峴에 이르러 포로 500여인을 잡은 뒤 馬首城과 瓶山柵을 쌓음. 이에 낙랑과 화친을 깨다.	예성강상류지역으로 이어지는 임진강상류지역의 일 지점.
瓶山柵①	"	"	"
靑木山①	온조10년 겨울 10월	말갈이 북경을 노략질함에 왕이 군사 2백을 보내 昆彌川 상류에서 막았으나 패하여 군사들이 靑木山에 의거하고 있는지라 왕이 친히 정예 기병 1백을 거느리고 烽峴을 나가 구하자 적이 이를 보고 곧 물러가다.	靑木嶺과 동일.
禿山柵	온조11년 가을 월	여름 4월에 낙랑의 사주를 받은 말갈이 병산책을 부수고 1백여인을 살육 노략질하다. 가을 7월에 禿山과 狗川 2柵을 설치하여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다.	임진강상류지역
狗川柵	"	"	"
石頭城	온조22년 가을 월	가을 8월에 石頭·高木 두 성을 쌓다. 9월에 왕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수렵하다 斧峴 동쪽에서 말갈을 만나 일전하여 적을 깨고 生口를 노획하다.	
高木城①	"	"	漣川
圓山城①	온조26년 겨울 10월	겨울 10월 왕이 전렵을 구실로 馬韓을 몰래 습격하여 국읍을 빼앗아 아울렀는데, 유독 圓山과 鎗峴 두 성이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4월에 두 성이	

關防名	紀年	관련기사 내용	比定地
	동27년 여름 4월	항복하자 그 백성을 漢山의 북쪽에 옴김에 마침내 마한이 멸망하였다.	
錦峴城①	"	"	
大豆山城	온조27년 가을 9월	大豆山城을 축조하다.	燕岐
牛谷城	온조34년 겨울 10월	마한의 舊將 周勤이 牛谷城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湯井城	온조36년 가을 9월	탕정성을 쌓고 대두성의 민호를 나 누어 옮겼다. 8월에는 이전 에 마 한의 성이었던 圓山과 錦峴 2城을 수증하였다. 古沙夫里城을 쌓다.	溫陽
圓山城②	"	"	
錦峴城②	"	"	
古沙夫里城	"	"	古阜
述川城①	온조40년 가을 9월	말갈이 述川城을 공격해 왔다.	利川·驪州
斧峴城	온조40년 겨울 10월	말갈이 다시 斧峴城을 습격해 왔다.	平康
高木城②	多婁4년 가을 8월	昆優가 高木城에서 말갈과 싸워 크게 이겼다.	
馬首城②	다루7년 가을 9월, 겨울 10월	말갈이 馬首城을 공격하여 무너뜨 리고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 겨울 10월에는 또 瓶山柵을 습격 하였다.	
瓶山柵②	"	"	
牛谷城①	다루29년 봄 2월	牛谷城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다.	
娘子谷城	다루36년 겨울 10월	영토를 개척하여 娘子谷城에 이름 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회함을 청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淸州
牛谷②	己婁32년 가을 9월	말갈이 牛谷에 침입하여 民口를 약탈하여 돌아갔다.	

關防名	紀年	관련기사 내용	比定地
北漢山城①	蓋婁5년 봄 3월	北漢山城을 쌓다.	北漢山 北麓
沙峴城	肖古39년 가을 월	신라의 腰居城을 공격하여 뺏고 그 성주를 죽였다. 이에 신라왕이 우리 沙峴城을 공격해왔다.	
赤峴城①	초고45년 봄 2월 동년 겨울 10월	赤縣과 沙道 두 성을 쌓아 東部の 민호를 옮겨 살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말갈이 沙道城을 공격해왔다.	坡州 積城
沙道城①	"	"	
述川 ②	초고49년 겨울 10월	말갈이 날랜 기병으로 침입해와 술천에 이르렀다.	
赤峴城②	仇首3년 가을 8월	말갈이 와서 赤峴城을 포위함에 성주가 굳게 지키자 물려갔다. 이에 왕이 날랜 기병 8백을 보내 추격하여 沙道城 아래에서 무찔렀다.	
沙道城②	"	"	
沙道城③	구수 4년 봄 2월	沙道城 곁에 동서로 10리 떨어진 2개의 책을 설치하고 赤峴城의 병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阿且城	責稽1년 (286)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함에 대방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전에 대방 왕녀 寶菓를 부인으로 맞은 적이 있으니 대방은 사돈의 나라가 됨에 부득이 군을 내어 구원하였다. 그로써 고구려의 원망을 삼에 阿且城과 蛇城을 수리해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峨嵯山城 일대
蛇城	"	"	삼성동 토성
靑木嶺城②	近肖古28년 (373) 가을 7월	靑木嶺에 성을 쌓다.	開豊郡 靑石洞

關防名	紀年	관련기사 내용	比定地
水谷城①	근초고30년 (375) 가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방의 水谷城을 공격해 와 함락시켰다.	新溪
八坤城	辰斯2년(386) 봄	15세 이상의 국내의 사람을 징발하여 靑木嶺에서부터 북으로는 八坤城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關防을 설치하였다.	
關彌嶺	진사3년 (387) 가을 9월	關彌嶺에서 말갈과 싸웠다.	
赤峴城③	진사7년 (390) 여름 4월	말갈이 북쪽변방에 있는 赤峴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石峴城①	진사8년 (391) 가을 7월, 겨울 10월	고구려 광개토왕이 4만을 이끌고 북쪽변방을 공격해와 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겨울 10월 고구려가 關彌城을 공격해 빼앗았다.	開豐郡 靑石洞
關彌城①	"	"	
關彌城②	阿莘2년 (393) 가을 8월	左將 武에게 이르되, 關彌城은 우리 北邊의 要害地인데 지금 고구려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痛惜하는 바로서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 설욕하라 함에,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南境을 칠 계획으로 몸소 사졸에 앞장서 矢石을 무릅쓰고 石縣 등 5성을 회복하려 하여, 먼저 關彌城을 포위하였으나 고구려가 굳게 성을 지켰다. 이에 糧道가 이어지지 못하므로 군사를 돌려왔다.	과주 炭峴面 鰲頭山城
石峴城②	"	"	
水谷城②	아신3년 (394) 가을 7월	고구려와 水谷城 아래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靑木嶺③	아신4년 (395) 가을 8월, 겨울 11월	8월 왕이 左將 眞武 등에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고구려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 7천을 거느	

關防名	紀年	관련기사 내용	比定地
		리고 溟水邊에 진을 치고 항거하니 아군이 크게 패하고 死者가 8천인이었다. 11월에 왕은 溟水戰을 보복하러 친히 군사 7천을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 靑木嶺 아래에 이르렀으나 大雪을 만나 많은 병사가 凍死함에 회군하여 漢山城에 이르러 군사를 위로하였다.	
漢山城②	"	"	북한산성과 동일.
雙峴城①	아신7년 (398) 봄 3월, 가을 8월	雙峴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공벌하기 위해 출사하였으나 漢山北柵에 이르렀는데, 그날 밤 군영에 큰 별이 떨어져 소리가 났다.왕이 심히 꺼리어 정벌을 중지하였다.	개성 부근 이남과 임진강 사이의 지점.
漢山北柵	"	"	
沙口城	腆支13년 (417) 가을 7월	가을 7월에 東, 北 2부의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沙口城을 쌓았다.	
雙峴城②	蓋鹵15년 (469) 가을 8월, 겨울 10월	장수를 보내어 고구려 南邊을 침범하였다. 10월에 雙峴城을 수리하고, 靑木嶺에 大冊을 설치하여 北漢山城의 사졸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靑木嶺大柵 ④	"	"	
北漢山城③	"	"	

관방명에 붙은 ①②③ 등은 동일 관방의 기사 중 등장 순서를 나타냄.

위 표의 내용을 기년 순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당시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정치체들은 처음 낙랑 등 중국 군현→말갈→마한→신라→고구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백제의 건국 주도세력인 온조집단이 처음 한강유역에 정착한 후 점차 성장하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입지 때문일 것이다. 위에 보이는 관방들을 대치하고 있던 정치체와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對낙랑 관방 : 마수성, 병산책, 독산책, 구천책.

對말갈 관방 : 우곡성, 석두성, 고목성, 적현성, 사도성, 부현성, 술천성

對마한(舊 마한지역) 관방 : 원산성, 금현성, 탕정성, 대두산성, 고사부리성.

對신라 관방 : 사현성, 낭자곡성.

對고구려 관방 : 수곡성, 석현성, 관미성, 청목령성, 팔곤성, 북한산성, 쌍현성, 아차성, 사성

위의 구분은 대체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관방들과 관련된 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동일한 관방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여러 정치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특히 공히 백제의 북방에 해당되는 對낙랑·對고구려 관방이 그러하며, 말갈에 대비한 관방 역시 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분은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다를 수가 있다.²⁶⁾

그러면 이들 관방의 위치비정과 관련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²⁷⁾가 적지 않으나 개별 관방의 구체적인 위치비정 결과는 아직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먼저 낙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관방들이다. 마수성은 그 위치를 詳考할 근거가 없으나, 온조왕 8년 위례성을 포위한 말갈에 대해 성

26) 金基燮, 『백제와 근초고왕』, 學研文化社, 2000, 140~141쪽.

27) 李丙燾, 「廣開土王之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李丙燾, 『(譯註)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재수록) ; 金崙禹, 「廣開土王之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 『龍巖車文燮博士回甲記念史學論叢』, 1989 ; 金基燮, 앞의 책.

문을 닫고 지키다가 말갈이 물러가자 추격하여 무찌르고 마수성과 병산책을 쌓았으며, 이로써 낙랑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당시 백제 도성이었던 위례성, 즉 하북위례성과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이면서 낙랑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북위례성의 위치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서울지역에서 낙랑이 있는 대동강유역으로 통하는 길목은 왕숙천유역을 따라 양주, 포천, 임진강 상류유역, 예성강 상류유역, 慈悲嶺, 황주의 루트가 상정될 수 있다.

한편 말갈, 즉 예계세력의 분포권은 임진강 중·상류유역, 한강 중·상류유역 이북과 이동지역의 중도유형문화 분포권으로 추정되므로,²⁸⁾ 말갈과 백제의 경계지점인 임진강 상류지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병도는 金化로 비정한 적이 있으며,²⁹⁾ 포천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⁰⁾ 이는 모두 임진강 상류지역에 해당되므로 필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장차의 고고학 자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병산책은 앞서 본 마수성과 늘 함께 나타나고 있어 두 관방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루왕 7년 기사를 보면 말갈이 먼저 마수성을 공략하고, 이어서 병산책에 침입하는 것으로 보아 마수성 보다는 상대적으로 백제측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산책과 구천책은 온조왕 11년 기사에서 말갈이 병산책을 부수고 약탈한 다음에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병산책에 가까운 지점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양책은 병산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임진강 상류지역의 어느 지점이 아닌가 추정되며, 이 경우 기존의 병산책보다 약간 후퇴한 지점일 가능성이 많다.

다음은 對말갈 관방의 위치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28) 朴淳發, 「漢城百濟 基層文化的 性格」 『百濟研究』 26, 1996.

29) 李丙燾, 『(譯註)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30) 金基燮, 앞의 책, 142쪽.

낙랑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던 마수성·병산책 등도 실제로는 말갈과 전투를 벌이던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삼국사기 기사 내용으로는 낙랑과의 언급이 명시적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말갈 관련 관방 역시 대체로 임진강 상류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말갈로 표현된 예계의 세력권은 백제의 북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동쪽과 동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강 중·상류지역이 그것이다.³¹⁾

임진강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斧峴城이 있는데, 이는 지금의 平康으로 비정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보다 약간 남쪽에 해당하는 임진강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高木城이 있다. 이 역시 지금의 漣川으로 보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석두성의 위치는 미상이지만 고목성과 함께 동시에 축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체로 그와 크게 멀지 않은 위치로 여겨진다. 적현성은 초고왕 45년 사도성과 함께 축조된 것으로 구수왕 3년 기사에 말갈이 적현성을 포위하다 물러나자 추격하여 사도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 하므로 두 성은 서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사도성보다는 가까운 위치에 적현성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사왕 7년조 기사에서 적현성은 백제의 북변으로 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 연천 일대 고고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³²⁾에 따르면 대략 광개토왕~장수왕대로 추정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이 한탄강 북안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한다. 이로 보아 4세기 말경인 진사왕때 백제 북변은 대략 임진강 중류의 한탄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현성은 그 남안인 파주 일대에 비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주 積城面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시된 바³³⁾ 있다.

31) 朴淳發, 앞의 논문, 1996.

32) 심광주·김주홍·정나리, 『漣川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1999.

33)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千寬宇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재수록).

우곡성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잘 알 수 없으나 황해도 金川으로 비정하는 견해³⁴⁾도 있다. 한편,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對馬갈 관방으로는 述川城이 있다. 이는 현재의 驪州·利川 지역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

마한과 관련한 백제 관방 가운데는 이전의 마한성을 수습하여 그대로 활용한 것과 백제가 새로이 축조한 것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원산과 금현 두 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탕정성·대두산성·고사부리성 등이 있다. 고사부리성은 전북 古阜 일대로 비정되고 있으며, 탕정성은 충남 온양일대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관방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비정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온조왕대 관련 기사들의 내용 전개를 보면 원산성과 금현성은 그 무렵 백제가 병탄한 마한의 국읍과 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두 성을 복속시킨 후 새로 대두산성을 축조하고 9년 뒤 탕정성을 쌓은 뒤 대두성의 주민을 옮겨 살게 한 점으로 보아 탕정성과 대두산성 사이의 거리 역시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산성과 금현성을 수리하고 난 뒤 牙山原에서 왕이 수렵하고 있는데, 이 때의 수렵은 새로이 백제영토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巡狩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기 여러 관방들이 대체로 아산원과 멀지 않은 그 이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아산원은 대략 지금의 아산으로 볼 수 있다.³⁵⁾

한편, 대두산성은 한성 함락 후 웅진으로 천도한 文周王이 왕궁의 수습에 앞서 가장 먼저 수습하여 漢北의 민호를 옮기고 있어,³⁶⁾ 웅진과 가까운 중요한 지점임을 짐작할 수 있다. 三斤王 2년에는 燕信이 이 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고구려로 달아나고,³⁷⁾ 이듬해인 삼근왕 3년에는 대두성을 斗谷으로 옮기고 있다.³⁸⁾ 이는 아마도 연신이

34) 金基燮,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142쪽

35) 李丙燾, 『(譯註)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59쪽.

36) 『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2년조.

37) 『三國史記』百濟本紀 三斤王 2년조.

대두산성을 들어 고구려에 투항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대두성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북 淸原郡 芙蓉面 美江里에서 한 성 함락 후 고구려 전진 기지로 추정되는 관방유적이 발굴조사 된 바 있는데, 고구려 세력이 이처럼 웅진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의 그 무렵 대두산성을 놓고 벌어진 정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대두산성은 금강 이북 차령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범위를 좁혀 볼 수 있는데, 지금의 忠南 燕岐 일대에 비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산과 금현은 아산·온양 이남에서 금강 이북의 어느 지점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관련한 백제 관방명으로는 사현성과 낭자곡성이 있다. 낭자곡성은 지금의 청주 일대로 보는 데에 여러 연구자의 견해가 일치되나 사현성은 그 구체적인 위치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초고왕 39년조의 기사에서 백제가 먼저 신라의 요거성을 치고 그 성주를 살해하자 신라가 백제의 사현성을 공격해 왔다하므로 이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거성은 지금의 경북 尙州 일대로 볼 수 있다는 견해³⁹⁾가 성립된다면 사현성은 그와 가까운 소백산 서쪽 어느 지점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까지 알려진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보는 한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지금의 湖西地方으로 처음 진출한 시기는 대략 5세기 후반경에서 6세기 전반경 무렵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되므로⁴⁰⁾ 초고왕 39년 기사와 같은 양국간의 접경과 군사적인 마찰은 『삼국사기』 기년보다는 늦추어 볼 수밖에 없다.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인 遭遇는 구 郡현지역을 둘러싼 각축이 시

38) 『三國史記』 百濟本紀 三斤王 3년.

39) 李丙燾, 앞의 책(1977), 365쪽.

40) 尹根一·金性泰·金聖培·申熙權, 『淸原 米川里 古墳群』,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 ; 山本孝文, 「古墳資料로 본 新羅勢力的 湖西地方 進出」, 『湖西考古學』 4·5合集, 2001 ; 성재현, 「淸州地域 出土 新羅 土器의 編年과 性格」, 『湖西考古學』 6·7合集, 2002.

작되면서부터인데, 대방군을 도와 고구려의 진출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위표에서 보듯 책계왕 원년인 286년이였다. 고구려의 공격에 직면한 대방군을 도운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차성·사성을 수습하고 있었다. 사성은 일찍이 이병도에 의해 풍납토성으로 비정되어 왔으나,⁴¹⁾ 최근 삼성동토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⁴²⁾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차성에 대해서는 충북 단양설과 서울 아차성설이 있으나, 수습의 계기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한 도성방어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지금의 아차성 부근으로 비정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 자료에 의하는 한 지금의 아차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이후에 축성한 것이므로 금후의 자료를 기다려야 그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은 근초고왕대에 들어 백제의 우세로 되었음은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평양까지 進攻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통해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는 황주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백제토기의 존재⁴³⁾와 같은 고고학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근초고왕 30년 백제의 북변이었던 수곡성은 지금의 황해도 新溪로 보아 틀림없는데, 이는 바로 그러한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고구려에 속하였던 수곡성을 근초고왕 때에 백제가 새로 그 북변으로 편입하였으며, 이를 다시 고구려가 수복하려 근초고왕 30년에 공격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 등장으로 군사적인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진사왕 8년 石峴 등 북방 10여성의 상실과 요해지인 관미성의 함락은 백제에 있어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석현은 지금의 開豐郡

41) 李丙燾, 앞의 책(1976), 498-506쪽.

42) 李道學, 「百濟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43) 崔鍾澤, 「黃州出土 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 4, 1990.

靑石洞으로 비정되는데,⁴⁴⁾ 이 일대는 또한 진사왕 2년에 靑木嶺에서 북으로 八坤城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관방을 설치하였다는 청목령으로도 비정되는 곳이다.⁴⁵⁾ 관미성은 석현 등 10여성이 공취된 뒤이어서 함락된 점으로 미루어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기한 바 있으나,⁴⁶⁾ 『삼국사기』 기사에서 엿보이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면 대략 바닷가이거나 예성강·임진강·한강 등이 만나는 지점의 섬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坡州 炭岬面 鰲頭山城을 關彌城으로 보는 견해⁴⁷⁾가 유력하다.

석현·관미성 등 북방 10여성을 잃은 전투를 아신왕 4년조 기사에서는 涓水戰으로 부르고 있는 만큼 이 전투에 패한 진사왕 8년(아신왕 1년) 이후 백제가 다시 수복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고구려와의 접경은 패수, 즉 예성강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신왕 7년에 쌓은 쌍현성은 이처럼 이전에 비해 보다 남하한 새로운 접경선상에 축조한 관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로왕 15년에 이 성에 대한 수습과 함께 靑木嶺에 大柵을 설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대체로 청목령과 임진강 사이의 어느 지점에 쌍현성이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산성은 개로왕 5년 축조 기사 이후 아신왕 4년, 개로왕 15년 등의 기사에서도 줄곧 보이고 있다. 개로왕 15년 기사에서는 청목령 대책 설치 후 북한산성의 士卒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있는 점이나, 그에 앞서 아신왕 4년에 패수전 보복을 위해 출정하던 중 청목령 아래에 이르렀다가 대설을 만나 다시 漢山城(북한산성)으로 회군한 점 등으로 미루

44) 李丙燾, 앞의 책(1977), 380쪽.

45) 金崙禹,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 『龍巖車文燮博士回甲記念史學論叢』 1989.

46) 위의 논문 참조.

47) 위의 논문 참조.

어 청목령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북방 방어 기지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지명으로 보아 지금의 서울 북방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산의 북사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 고고학 자료

산성이나 柵과 같은 관방 유적은 어느 때이든 전략적 전술적 중요성을 가지는 교통로상에 축조되기 마련이지만 대치하는 정치체의 위치 등 당대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입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삼국시대의 관방유적들은 그 상황이 유사한 후삼국시대에도 다시 점유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벽이나 門址와 같은 구조물은 최후로 사용된 시점의 것이 분명한 곳에서도 그 이전 한 때 사용된 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성 내부의 출토유물만으로써 잔존하는 성의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위험하다.

최근까지 百濟故地에서 발굴 조사된 성책들 가운데는 내부에서 한성기 백제의 유물이 확인된 예들이 있어 비록 최후로 남아 있는 성벽 등은 백제의 것이 아니더라도 한 때 백제의 관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 토기 등의 출토유물을 통해 그 시기를 검토해 봄으로써 금후 한성기 백제 관방의 실상을 이해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러한 예들로는 楊州 大母山城, 利川 雪峰山城, 利川 雪城山城, 忠州 薔薇山城, 陰城 望夷山城, 公州 公山城, 全州 夜山山城 등이 있는데, 이하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주 대모산성은 경기도 양주군 州內面과 白石面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표고 210m의 산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中浪川 유역에 의해 동·서 2개의 산지가 開析되어 통로를 이루면서 임진강 상류를 거쳐 예성강 상류지역으로도 통할 수 있는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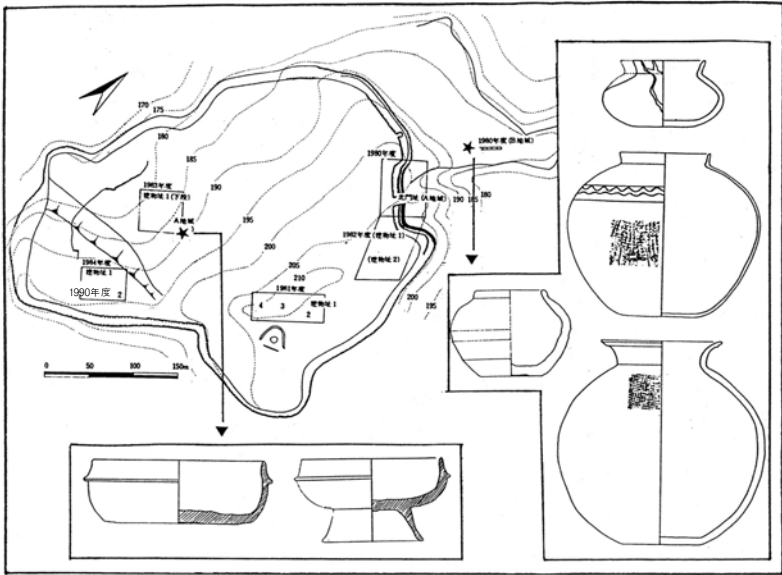
길목에 해당된다. 현재도 경원선 철도와 국도 3번(경남 남해~함남 원산간)선이 이 통로를 통과하고 있어 그러한 지형학적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성이 위치한 지점의 산은 표고 210m에 불과하나 이 산을 경계로 北漢山의 지맥과 그 북쪽의 佛谷山 지맥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은 파주방면으로부터 서울지역으로 들어오는 關門에 해당된다. 성의 동쪽 약 2.5km 지점에서 3번 국도와 갈라져 파주방면으로 가는 350번 도로가 바로 성 아래를 지나고 있어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성벽은 연장이 약 1.4km 정도이며, 성 내부 면적은 약 400여평 가량 되는데, 1980~1984년에 걸친 5차례 발굴조사 결과 석축성의 초축시점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6세기 중엽경으로 확인되었다.⁴⁸⁾

그런데 <그림 3>에서 보듯이 성 내부와 성 외부 평탄지에서 한성기 백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전형적인 한성기 백제양식 토기 (<그림 2> 참조)들로서 현재 확인된 것만을 근거로 하면 대략 4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 가능하다. 이들 유물과 같은 시기의 성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입지로 보아 분명 한성기 백제의 관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한성기의 분명한 백제 성책으로는 후술할 음성 망이산성의 토축성, 전주 봉동면의 야산산성이 있다. 야산산성의 경우 처음에는 목책으로 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토축성벽으로 대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여기의 경우도 대체로 그러한 시설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양주 대모산성 출토 한성기 백제 유물

48)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大母山城發掘報告書』, 1990.



이천 설봉산성은 1998·1999년도에 걸쳐 2차례 발굴조사⁴⁹⁾ 결과 한성기 백제의 석축산성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보도 직후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 석축 성벽은 백제의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성내에서 한성기 백제의 유물이 출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러한 출토유물과 성벽의 보수 상태를 종합해보면 먼저 백제의 관방으로 사용되다가 6세기 중엽경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석축성으로 축조하였으며, 이후 羅末麗初 무렵에 다시 성벽을 수습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 유물이 주로 출토된 유구는 성내 남동쪽 고지대에 위치한 貯藏穴들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저장혈은 15개 가량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백제 성벽은 아직 분명치 않다. 발굴자들이 백제의 석축성이라 한

49) 檀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 지도위원회의 자료), 1999.

부분은 북문지의 水口 지점인데,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수구를 축조할 때 쌓은 성토층 속에 백제토기편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수구 및 그와 관련된 성벽으로 추정하는 부분의 축조 시점은 혼입된 백제토기보다 이를 수는 없다.

설봉산성이 입지한 곳은 현재 이천읍의 서쪽을 가로막고 있는 표고 약 400m 산지의 북단부 산 정상이다. 이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산지의 정상부에도 增日里土城으로 불리우는 성이 있으며, 또한 이 산지는 서쪽으로 新屯川의 상류지점의 산지와 연결되고 다시 그 북쪽의 鼎蓋山·圓寂峰 등의 산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크게 'S'자 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지는 이천평야의 서쪽을 가로막고 있어 이천 동쪽의 평야 지대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 이 산지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적인 요지에 해당된다.

필자가 실제로 본 바에 의하면 설봉산성 출토 백제토기는 대체로 3세기 말~4세기 초경을 시작으로 하여 주로 4세기 후반대의 것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성기 백제가 그 동쪽에 위치한 濊溪지역으로 진출함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앞서 문헌 사료상에도 이 일대로 비정되는 述川城 부근에서 말갈, 즉 예계세력과 잦은 전투가 있었음을 보았거니와 설봉산성 출토유물의 편년적인 위치로 보면 대략 3세기 말~4세기 초엽경에는 백제가 이미 이천 지역으로 진출하여 관방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당시의 성책의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봉산성과 같은 산지의 남쪽에 위치한 증일리토성의 존재가 주목된다. 후술할 망이산성이나 야산산성 등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의 산성들에는 토축성이 많은 점으로 보아 토축성인 이 산성이 백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 토성이 백제의 관방으로 밝혀진다면 설봉산성 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관방은 그에 부속된 보루나 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천 설성산성은 이천시 長湖院邑 善邑리의 표고 290m 가량 되

는 산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소백산맥이 차령산맥으로 분기되는 지점으로서 남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후술할 망이산성과 함께 남한강유역에서 금강상류로 통하는 교통로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강 유역의 백제가 이천지역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곳 이어서 역대로 중요한 요충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산성의 성벽 석축으로서 총연장이 약 1,095m 가량 된다.

이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1년도에 실시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6세기 후반대의 신라토기와 나말여초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일부 백제토기도 수습되었다 한다.⁵⁰⁾ 백제토기는 파편들이 대부분이나 기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고배의 대각편, 장관형토기편 등은 대략 4세기 후반의 한성기 백제토기들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은 물론 6세기 후반경 신라가 축조하여 나말여초 시기에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술한 한성기 백제토기의 존재로 보면 석축성 이전에 토성 또는 목책과 같은 백제의 관방이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망이산성은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충청북도 음성군 三成面,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栗面 등 2개 道와 3개 郡이 모두 이곳을 경계로 구분되는 표고 472m의 馬耳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 지점은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이 분기되는 지점으로서 남한강유역의 이천·여주 지역에서 금강유역의 증평·청주·진천 등지로 통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석축으로 연장이 약 2km에 달한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4~1996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석축성은 나말여초 시기의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상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백제시대의 토축성이 약 250m 가량 확인되어 석축성 이전에 토축성으로 된 백제 관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토성구간 250m는 마이산 정상 북서쪽을 두른 것으로서

50) 檀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1.

당초의 성벽은 현존하는 석축성과 중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백제시대의 산성은 나말여초기의 석축성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으로 이해된다(<그림 4> 참조).

발굴조사시 드러난 토축성의 단면을 관찰해보면, 그 축조 기법은 기반을 정지한 후 永定柱를 이용한 版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성과 관련된 출토유물들은 高杯·廣口長頸壺·長卵形土器·深鉢形土器, 그리고 동체부에 凹條가 있는 平底菱形廣口小壺 등 모두 한성기 백제토기들이다. 고배 가운데 어깨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그림 4>의 1·2 등은 한성기에서도 비교적 이른 단계의 특징으로서 대략 3세기 후반~4세기 초엽경으로 비정된다. 심발형토기는 완형은 아니지만 표면처리 기법을 잘 관찰할 수 있어 이 유적의 시기 비정에 참고가 된다. 그 가운데 표면이 格子로 처리된 것은 본래 마한지역의 특징으로서 백제가 남방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강유역 고유의 繩文 打捺 후 橫線을 가한 것이나 繩文 打捺 심발형토기로 점차 이행된다. 이 유적에서는 이들 3가지 표면처리가 모두 확인되는데(<그림 4>의 11~13 참조), 격자타날과 승문 타날 후 횡선을 가한 심발형토기가 공존하는 시기는 대략 3세기 후반~4세기 초엽경으로 밝혀진 바⁵¹⁾ 있어 전술한 고배와 함께 이 유적의 시작 시점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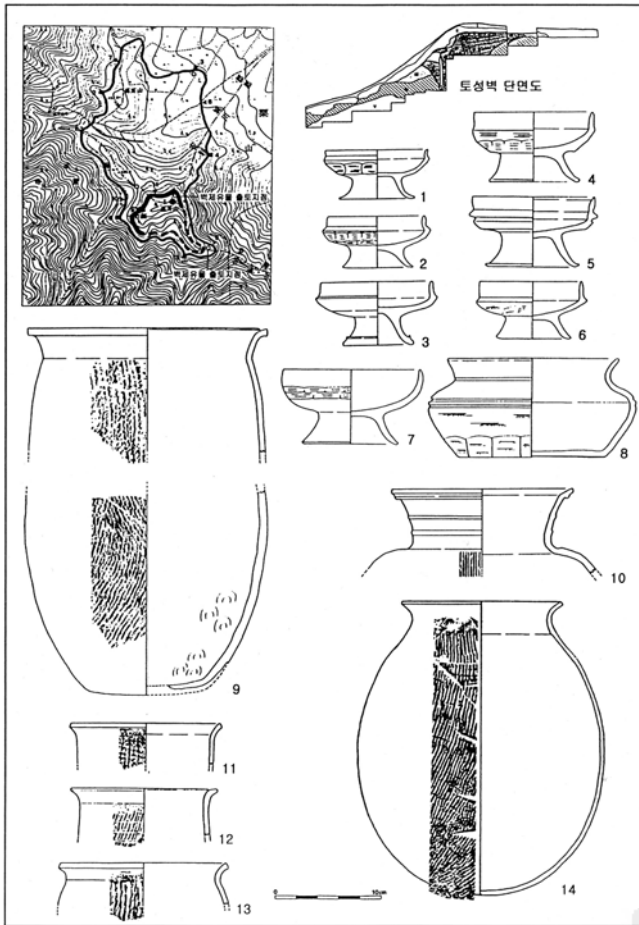
이로써 망이산성에서 발견된 한성기 백제 토성은 그 축조시점이 3세기 후반~4세기 무렵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문헌자료를 통해 백제가 마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축조한 관방들의 존재를 보았거니와 이 성은 바로 그러한 무렵에 백제가 축조한 관방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공주 공산성은 한성 함락 후 남천한 웅진기 백제의 도성에 위치한 중심성임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당시 기록에는 도성에 대한 축조 기사는 보이지 않은 채 왕궁을 重修한 사실만이 보이고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어 공산성의 축조 시기는 그

51) 朴淳發, 「深鉢形土器考」 『湖西考古學』 4·5 合集, 2001.

간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공산성 출토 유물을 자세히 보면 <그림 5>와 같이 漢城期 말경으로 소급 가능한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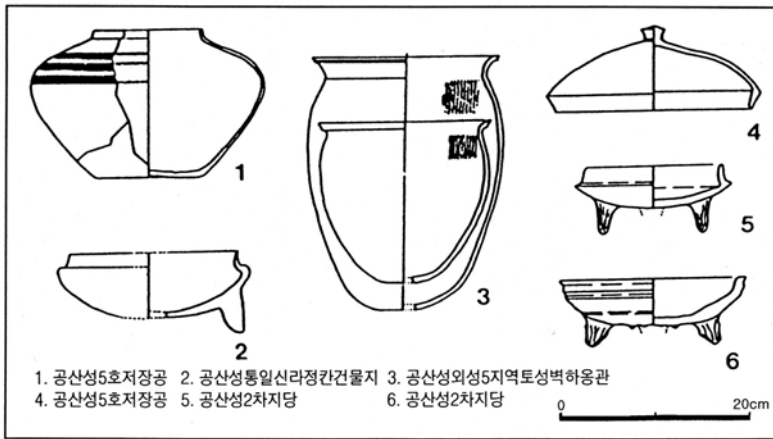
<그림 4> 음성 망이산성 출토 한성기 백제 유물



이 가운데 옹관으로 轉用된 長卵形土器(<그림 5>의 3)는 공산성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표고 110m 고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外城 제 5지역 성벽 아래에서 출토된 것⁵²⁾으로서 이 지점 토축성의 축조 상한 시기를 비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장란형토기의 기형변화 양상은 자세하지 않으나 口脣部의 형태가 이와 거의 같은 장란형토기는 대략 5세기 후반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산성이 금강에 면하고 있는 拱北樓와 挽河樓(蓮池) 사이의 구릉상에 위치한 5호 저장공 출토 直口短頸壺 및 뚜껑, 백제시대 池塘내부에서 출토된 삼족기,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에서 채집된 삼족기 등⁵³⁾도 5세기 중·후반경의 한성양식 토기로 판단되는데, 특히 <그림 5>의 2·6과 같은 둥근어깨 삼족기와 무개삼족기는 몽촌토성·풍납토성·신금성 등 모두 한성기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그림 5> 공주 공산성 출토 한성기 말 백제 유물



현재의 공주시 일원은 일찍이 고대 교통로상에 위치한 중요한 渡津

52) 安承周·李南奭,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 發掘調査報告書』, 공주 사범대학 박물관, 1987.

53) 위의 책.

이었으며, 이 지역에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5세기 초~전반경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공주와 부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분강·저석리 고분군을 들 수 있다.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한성양식 토기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공산성 내에서 출토되는데, 입지적인 정황으로 보아 關防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공산성 산정부의 이른바 외성의 축조 시기는 축조구 지표면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자체로써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상한이 5세기 후반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점과 관방시설에서 흔히 보이는 저장공에서 한성기 토기가 출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한성기 말경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의 공산성이 분명한 웅진성의 초축기사가 웅진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사비기인 526년의 수습기사가 나타나는 점이나 이렇다 할 선주세력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종의 공백지역으로까지 추정될 정도임에도 이곳에 定都하게 된 배경에는 한성기에 진행된 금강 이남지역으로의 지배확산과 더불어 늦어도 한성기 말경에는 공산성에 군사적인 거점이 마련되어 있었던 데에 있지 않을까 한다.⁵⁴⁾

전주 봉동면에 위치한 아산산성은 넓은 평야지대 가운데 남아 있는 표고 70m 가량 되는 잔구상에 위치하고 있다. 1999~2000년에 걸쳐 발굴 조사한 결과 木柵孔·土城壁 등과 함께 내부에서 주거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목책공과 토성벽은 거의 같은 지점에 일부가 중복되어 있었는데, 최초 목책으로 된 것을 나중에 토축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⁵⁵⁾

54) 朴淳發, 「熊津遷都 背景과 泗沘都城 造成過程」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제3회 문화재연구학술대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55) 全北大學校博物館, 『봉동 배매산 배수지 시설부지 내 아산산성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내부에서 출토한 유물 가운데는 한성기 말~웅진기에 걸치는 고배·삼족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관방의 처음 축조 시기가 한성기의 말인 5세기 후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야산산성과 가까운 지점인 益山 笠店里 1호분에서는 金銅冠帽, 馬具, 中國 南朝 靑瓷 등 다수의 威勢品이 출토된 바 있는데,⁵⁶⁾ 이러한 유물의 내용으로 보아 입점리 1호분의 시기 역시 야산산성과 거의 같다. 입점리 1호분 피장자는 이 지역 首長임에 틀림없는데, 그러한 주장의 존재는 당시 백제의 이 지역 지배방식이 아직 간접지배 단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기에 야산산성과 같은 관방이 설치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된다. 야산산성이 위치한 전주 봉동면 일대는 개로왕 때인 한성기 말~웅진기의 東城王代 문헌기록에 보이는 백제 특유의 지방지배 방식인 王·侯制와 관련하여 “阿錯王”이 파견되었던 바로 그 阿錯에 비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왕실의 子弟 宗族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배강화를 도모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왕·후제의 실상은 그간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었으나,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그러한 왕·후제는 중앙에서 구축한 군사적 기반도 수반하였음을 알게 된다.⁵⁷⁾

4. 맺음말

漢城期 百濟는 3세기 중·후반경에 聯盟王國 단계의 국가로 성립되었다. 당시의 그러한 과정은 風納土城·夢村土城 등의 城郭의 등장, 石村洞 고분군에서의 대형封土墳 출현, 한성양식 백제토기의 성립과 확

56) 國立文化財研究所, 『笠店里古墳』, 1988.

57) 朴淳發,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 『朝鮮學報』 2001, 179쪽.

산 등의 고고학 자료로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단계 이전에 백제의 건국 주도세력이었던 溫祚集團은 이미 한강유역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시기는 아직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전하는 문헌사료의 내용으로 보아 기원전 18년경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가 성립 후 한성기 백제의 都城制는 2개의 단위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반 백성들의 취락이 분포한 그러한 모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개의 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임은 물론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모두 3세기 중·후반경 이후에 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몽촌토성이 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고, 이어서 국가의 성장과 함께 풍납토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몽촌토성은 왕궁을 포함하고 있는 王城이었을 것이며, 풍납토성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土庶人이나 手工業 工房 등이 있는 居民城이면서 동시에 別宮과 같이 왕이 머물 수 있는 시설도 갖춘 大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등에 남아 있는 한성 함락 과정을 묘사한 기사들로 뒷받침된다.

한성기 백제의 관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여러 기사에 걸쳐 그 명칭과 함께 관련 내용이 전하고 있어 그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나 그간 고고학적 실체는 자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서 확인된 산성유적 조사를 통해 그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양주 大母山城, 이천 雪峰山城·雪城山城, 음성 望夷山城, 공주 公山城, 전주 夜山山城 등이 그러한 예이다. 대모산성은 백제의 도성지역에서 한강을 건너 임진강상류 및 예성강상류 등 郡縣地域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한성기 동안 줄곧 중요한 관방의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설봉산성은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예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설성산성과 땅이산성은 마한지역으로 진출하는 백제의 전진기지 또는 요충에 해당되며, 공산성 내 추정

관방과 야산산성은 금강을 건너 호남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 또는 渡津關防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적 출토 유물의 편년적 위치로 보면 예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인 설봉산성은 3세기 말~4세기 초 무렵에 만들어졌으며, 對마한지역 거점이었을 망이산성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강 이남의 관방은 현재까지 알려진 위의 유적으로 보는 한 5세기 후반대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慰禮城에서 漢城으로

金 起 燮*

1. 머리말
2. 百濟 建國地로서의 慰禮城
3. 두 개의 慰禮城
4. 국가 발전과 漢城 건설
5. 漢城의 풍경
6. 맺음말

1. 머리말

漢城時代의 都城 문제는 백제사 내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다. 논의는 주로 도성의 위치를 究明하는 데 한정되었다. 그 결과 학계의 시각은 크게 양분되었는데, 지금의 하남시 春宮洞 일대에 주목하는 견해¹⁾와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 주목하는 견해²⁾이다. 두 견해

*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대우교수

- 1) 李丙燾,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李弘植, 「백제건국에 관한 제문제」 『국사상의 제문제(1)』, 국사편찬위원회, 1960.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 金龍國, 「河南慰禮城考」 『鄉土서울』 41, 1983. ; 金侖禹,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 『史學志』 26, 1993. ; 吳舜濟, 『百濟 漢城時期 都城體制的 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2) 金映遂, 「百濟國都의 變遷에 對하여」 『全北大 論文集』 1, 1957. ; 金廷鶴,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鄉土서울』 39, 1981. ; 車勇杰,

AI Seoul

SOUL OF ASIA

를 절충하려는 시도³⁾도 있었으나, 크게 보면 후자의 견해에 더 가깝다.

최근의 유적조사 결과는 백제의 漢城이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 있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風納土城 발굴⁴⁾을 통해 결정적 자료를 얻었다. 판축한 성벽의 하부 폭이 최소 43m, 높이 11m를 넘는 대규모임이 밝혀지고, 城 내부에서 대형건물지와 막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하남시에서는 추정에 걸맞는 유적·유물을 찾지 못하였다.⁵⁾

서울시 송파구에는 2개의 土城이 있다. 한강변의 풍납토성과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夢村土城이다. 몽촌토성은 1980년대 수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河南慰禮城의 遺址라는 평가를 받았다.⁶⁾ 그리고 풍납토성은 최근의 발굴조사로 백제의 도성이었음을 거의 확정짓게 되었다. 이로써 한성시대 도성 연구의 기초는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Ⅰ)」, 『郷土서울』 39, 1981. ; 金起燮, 「百濟前期 都城에 관한 一考察」, 『淸溪史學』 7, 1990. ;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 姜仁求, 「百濟 初期 都城 問題 新考」, 『韓國史研究』 81, 1993. ; 申熙權, 「百濟 漢城期 都城制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5.

- 3) 成周鐸, 『百濟城址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 4)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Ⅰ』,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Ⅱ』, 2002.
- 5) 世宗大學校博物館·河南市, 『河南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1999.
- 6) 夢村土城發掘調査團, 『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서울특별시, 1984. ;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서울특별시, 1985. ;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 東北地區發掘調査』, 서울특별시, 1987. ;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 東南地區發掘調査』, 1988. ;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 西南地區發掘調査』, 서울특별시, 1989.

이미 갖추어진 셈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백제가 어디에서 건국했으며, 어디에서 한성시대를 마감했는가 이다. 풍납토성에서 수습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등에 의거하여,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부터의 도성이고 이후 5세기대까지 변함 없었다는 견해⁷⁾도 최근 제기되었지만, 문헌자료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河南慰禮城에서 건국했다는 기록⁸⁾이 있는가 하면, 河南으로 천도했다는 기사⁹⁾도 있다. 漢山으로 移都했다는 기사¹⁰⁾가 있고, “漢城別宮”¹¹⁾ “王都漢城”¹²⁾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자료의 혼란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2. 百濟 建國地로서의 慰禮城

백제 도성 연구에서 『三國史記』 「百濟本紀」는 매우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건국 무렵의 기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 ㉠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十濟라고 하였다. 이 때가 前漢 成帝 鴻嘉 3년이다. 비류가 ...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 죽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慰禮에 歸附하였다. 나중에 올 때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 하여 이름을 百濟로 고쳤다.(온조왕 즉위년)
- ㉡ 봄 2월에 靺鞨 도둑 3천명이 와서 慰禮城을 에워쌌다. 왕이 성문을 닫

7) 申熙權, 앞의 논문, 26~27쪽.

8)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卽位年.

9)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13·14년.

10)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26년.

11)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卽位年.

12)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년.

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도둑의 양식이 다 떨어지자 돌아갔다.
(온조왕 8년)

- ㉔ 여름 5월에 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동쪽에는 樂浪이 있고 북쪽에는 靺鞨이 있어 … 장차 꼭 도움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찌 순행을 나가 漢水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지므로 마땅히 그곳에 도움을 정하고 길이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도모하겠다.”(온조왕 13년)
- ㉕ 가을 7월에 漢山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慰禮城의 民戶를 옮겼다.(온조왕 13년)
- ㉖ 8월에 사신을 馬韓에 보내 도움을 옮긴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니, 북쪽으로는 淇河에 이르고, 남쪽은 熊川이 경계이며, 서쪽은 큰 바다로 막히고, 동쪽은 走壤까지 갔다.(온조왕 13년)
- ㉗ 9월에 궁성과 대궐을 세웠다.(온조왕 13년)
- ㉘ 봄 정월에 도움을 옮겼다.(온조왕 14년)

㉔에 의하면 백제의 첫 도움은 河南慰禮城이다. 이때의 ‘河南’이 ‘한강의 남쪽’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임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러므로 하남위례성이란 ‘한강 남쪽에 있는 慰禮城’이라는 뜻이다.

위례성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울타리’라는 견해이다. 丁若鏞이 慰禮와 圍哩의 음이 같다는 점을 지적¹³⁾한 이후 많은 학자가 따랐는데, ‘울갓’ 혹은 ‘우리재’,¹⁴⁾ ‘우리’,¹⁵⁾ ‘울타리’¹⁶⁾ 등 다양하게 풀이된다. 둘째, ‘漢江’이라는 견해이다. 『百濟本紀』의 蓋鹵王 21년조에 나오는 郁里河, 廣開土王碑文의 阿利水 등과 마찬가지로 한강의 異稱이라는 것이다.¹⁷⁾ 셋째, ‘王城’ 내지 ‘大城’이

13) 丁若鏞, 『慰禮考』 『與猶堂全書』 6집 3권.

14)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570~571쪽.

15) 金龍國, 앞의 논문, 15쪽.

16) 成周鐸, 앞의 논문, 40쪽.

17) 申采浩, 『古史上 吏讀文 名詞 해석법』 『朝鮮史研究草』, 乙酉文庫, 1974, 22~25쪽. ; 李弘植, 『백제 건국에 관한 제문제(1)』 『국사

라는 견해이다. 慰禮는 왕을 뜻하는 백제어 於羅瑕의 於羅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 근거이다.¹⁸⁾

위의 세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위례성에 왕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㉑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원래의 뜻이야 어찌 되었든 하남위례성을 일단 ‘한강 남쪽의 왕성 내지 도성’으로 풀이하여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㉒의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기사는 학계에서 흔히 착오로 간주되고 있다. ㉑와 ㉒의 기사 때문이다. ㉑에서 온조왕은 낙랑·말갈의 침입이 잦으므로 도읍을 한강 남쪽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옮기기 전의 도읍이 한강 북쪽에 있었을 개연성을 높여주며, 나아가 이른바 하북위례성이라는 이름을 상정케 한다.¹⁹⁾ 이로 인해 오늘날 대다수의 연구자는 ㉒가 ㉑ ㉒ ㉓ ㉔ ㉕ ㉖를 미리 종합 정리한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즉, 백제가 한강 북쪽에서 건국 하였으나 곧 한강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 수 백년을 지냈기 때문에 온조왕 즉위년조에서는 하남위례성을 강조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것이 遷都 아닌 定都였음은 온조왕 즉위년조에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열 명의 신하[十臣]와 함께 백성을 거느리고 남하한 비류와 온조가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 살 곳을 찾았는데, 동생인 온조는 열 명의 신하가 추천한 漢水 남쪽에 거처하려 했으나 비류는 듣지 않고 彌鄒忽로 갔다.²⁰⁾ 그래서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열 명 신하의

상의 제문제』 6집, 국사편찬위원회, 1960, 26쪽. ; 崔夢龍·權五榮, 앞의 논문, 88쪽.

18) 李炳銑, 『韓國古代 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1982, 199쪽. ; 金起燮, 앞의 논문, 26~28쪽.

19) 丁若鏞, 『慰禮考』 『與猶堂全書』 6집 3권.

20)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

보좌를 받으니, 이때가 鴻嘉 13년(B.C.18)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건국설화에서는 온조의 첫 정착지가 河南인 것이다.

착오는 오히려 ㉔ ㉕ ㉖ ㉗ ㉘ 쪽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 ㉔에서 보듯 온조왕 13년조는 다분히 설화적인 내용인데다 ㉕의 경우에는 紀年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²¹⁾ 특히 ㉕ ㉖ ㉗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정확히 8周甲(480년) 뒤인 文周王 원년(475)의 상황과 무리 없이 연결된다. 즉, 온조왕 13년의 ㉕ 7월 慰禮城의 民戶 이주, ㉖ 8월 馬韓에 천도 告知, ㉗ 9월 궁성과 대궐 건립 등이 문주왕 원년 “겨울 10월에 熊津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기사와 마치 짝을 이룬 듯 자연스럽다.

물론, 온조왕 13년의 간지와 문주왕 원년의 간지가 모두 乙卯로서 일치하는 것이 우연일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웅진 천도가 고구려의 침공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濫祚王紀처럼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준비한 일과는 거리가 멀어, 온조왕기의 7~9월과 문주왕의 10월을 연결시킨 해석이 일견 모순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紀年은 신빙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삼국사기』는 비교적 분명하게 年·月을 표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정확한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히려 의심받을 여지가 많아서, 온조왕 13·14년조의 천도 기사를 비류왕 때의 일로 파악²²⁾하기도 한다. 당장 위의 인용 기사만 하더라도, ㉔ ㉕ ㉖ ㉗의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천도작업이 ㉘처럼 이듬해 봄 정월에야 “遷都”로서 완결된 것은 매우 인위적이고 의례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²³⁾

以居之.(『三國史記』「百濟本紀」濫祚王 즉위년)

- 21) 『三國史記』「百濟本紀」濫祚王 13년조의 강역 확정 기사는 近肖古王 때의 일을 소급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159~160쪽).
- 22)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353~356쪽.
- 23)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단지 “十五年 移都平壤”(『三國史記』「高句麗本紀」長壽王)이라고만 기재하여 月이 생략

온조왕 13·14년조의 천도기사가 문주왕 원년의 移都기사와 연계된다면, 그 내용은 漢城 함락 이후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는 과정을 빚댄 것일 수도 있다. 개로왕 21년(475) 겨울²⁴⁾에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한성이 함락되었으며, 이로써 왕과 왕비·왕자 등이 모두 살해되고 말았다.²⁵⁾ 이에 개로왕의 동생²⁶⁾으로서 신라에 구원병을 청하러 갔던 文周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천도 과정에 대한 묘사는 기록마다 다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가 신라로부터 1만명의 군사를 얻어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성은 파괴되고 왕이 죽은 뒤여서 마침내 즉위하였으며, 겨울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²⁷⁾ 그러나 『日本書紀』에는 雄略天皇이 21년(477) 봄 3월에 백제의 汶洲王에게 久麻那利를 주어 나라를 부흥케 했다²⁸⁾고 되어 있다. 雄略紀 21년조는 20년조와 같은 이야기를 들로 나눈 데 지나지 않으므로,²⁹⁾ 위의 기년은 서기 477년이 아닌 476년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사이에는 백제의 웅진 천도와 관련하여 5개월의 차이

되어 있다.

- 24)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한성 함락이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년조와 「高句麗本紀」 長壽王 63년조에는 각각 “가을 9월”과 “9월”로 표기되어 있지만, 『日本書紀』 雄略紀 20년조에 인용된 「百濟記」에는 “蓋鹵王 乙卯年 겨울”로 기재되어 시점이 다소 다르다. 여기에서는 「百濟記」의 기록을 따랐다.
- 25)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慰禮 國王及大后王子等 皆沒敵手(『日本書紀』 雄略紀 20년).
- 26)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 45, 1984, 8~11쪽.
- 27)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周王 즉위년.
- 28) 廿一年 春三月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國.
- 29) 坂本太郎外 校注,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1967, 496쪽(注三·十六).

Hi Seoul

SOUL OF ASIA

가 있는 셈이다.

『일본서기』가 특유의 일본 중심 사관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봄 3월”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로왕 21년 가을 9월’ (『삼국사기』) 혹은 ‘개로왕 을묘년 겨울’(『일본서기』)에 일어난 한성 함락과 왕실 몰살이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를 헤치고 繼位·遷都 등의 수습책을 무사히 실현할 시간으로서는 5개월이 결코 길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삼국사기』의 천도(475년 10월)기사보다는 『일본서기』의 기사(476년 3월)가 오히려 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서기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마치 신라의 구원병을 얻은 문주가 한성으로 돌아와 즉위한 뒤 천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³⁰⁾ 문주의 귀환이 불가능하였음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다량의 고구려 중기 토기³¹⁾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과 왕자들이 고구려군에 잡혀 죽음으로써 한성지역은 완벽하게 고구려 영토로 바뀐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에는 고구려의 침공 소식을 들은 개로왕이 아들 문주에게 피난하여 나라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자, 문주가 木芻滿致 등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는 대목이 있다. 이는 문주왕이 피난 도중에 즉위하였음을 시사한다. 위의 木芻滿致는 『일본서기』의 木滿致로서, 남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가 文周王이 久麻那利에서 백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³²⁾ 즉, 『일본

30)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廻 麗兵雖退 城破王死 遂卽位.(『三國史記』 「百濟本紀」 文周王 즉위년)

31)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 서울특별시, 1989, 209~210쪽.

32)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4, 259쪽.

서기』雄略紀에서 雄略天皇이 汶洲王에게 구마나리를 주었다는 기사는 木滿致와 文周王 사이의 일을 각색·왜곡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문주왕이 남방의 木氏 등과 국가 재건을 협의하는 동안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서, 충남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의 聖居山(해발 523m)에 위치한 慰禮山城을 들 수 있다. 위례산성은 흔히 慰禮城으로 불려졌는데,³³⁾ 둘레 약 950m의 테회식 土石混築城이다. 1995년에 시행된 부분 발굴조사에서 三足器, 鐵製·土製馬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성벽 기저부에서 채취한 목탄 시료로부터 1380±250B.P라는 방사성 탄소연대를 얻었다. 발굴조사단은 위례산성의 현재 성벽이 축조된 시기를 통일신라기라고 규정하면서도 백제 말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³⁴⁾ 조사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初築時期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산성에서 천안·안성·평택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온다는 점, 고려시대부터 이곳이 온조가 도읍한 위례성으로 전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곳이 ‘遂失慰禮’(『百濟記』)한 후의 일시적 慰禮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위의 추정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다면, 온조왕 13년조의 기사 중 일부는 文周王紀의 천도기사 중 逸失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조왕 13·14년의 천도, 곧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는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33) 『東國輿地勝覽』 권16 稷山縣의 古跡條에는 慰禮城으로 소개되어 있다.

3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天安 慰禮山城 試掘 및 發掘調査報告書』, 1997.

3. 두 개의 慰禮城

하남위례성이 지금의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종래 가장 유력한 설은 몽촌토성설이었으나, 최근 풍납토성이 발굴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우선, 풍납토성 내부에서 抹角方形 및 육각형 주거지, 기와를 사용한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와 토기 가마, 그리고 3중 環濠가 발견되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층위는 말각방형 주거지와 3중 환호로서, 발굴단은 풍납동식 무문토기에 타날문토기의 기술유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라고 하여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경으로 편년하였다.³⁵⁾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은 육각형 주거지가 대체로 2~3세기대에 집중되며, 나머지 몇몇 유구는 4~5세기대에 속한다고 보았다.³⁶⁾ 즉, 기원 전후한 무렵 말각방형 주거지에 거주하는 초기 백제 주민들이 환호를 건설하였고, 늦어도 2세기경에는 풍납토성을 축조함으로써 환호를 폐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굴보고를 중용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으며, 하남위례성은 풍납토성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위의 편년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1999년 9월~2000년 5월에 풍납토성 내부의 경당지구를 발굴한 한신대학교 박물관은 1,200여 평의 범위 내에 속한 유구를 모두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³⁷⁾ 또 환호 내부에서 3세기 전반 경에 출현하는 打捺文 深鉢形土器 및 長卵形土器가 출토된 점에 근거하여, 환호는 대략 3세기 전반~중엽에 폐기되었고, 따라서 토성은 3세기 중엽

35)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 I』, 2001, 589쪽.

36) 申熙權, 「百濟 漢城期 都城制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발표요지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5, 18~19쪽.

37) 권오영,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의 성과」,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2001. 5, 46쪽.

이후에야 축조되었다고 추정한 견해도 있다.³⁸⁾ 그렇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록은 신뢰도가 낮으며, 하남위례성은 다른 곳에 비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어떤 경우이든, 풍납토성이 3중 환호를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한강 남쪽에서는 풍납동 일대에 주민들이 가장 먼저 밀집 거주하였고, 그것이 백제의 국가 형성 내지 발전 과정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3중 환호를 방어시설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2세기 혹은 3세기경에 토성을 축조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현을 의미한다. 다만, 3중 환호를 과연 국가단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과 3세기경의 풍납토성도 둘레 3.5km의 대규모였을까 하는 점이 우선 밝혀져야 한다.

3중 환호에서 풍납토성으로의 전환은 백제 건국과정을 설명한 『삼국사기』의 溫祚說話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설화에서는 마치 卒本扶餘로부터 남하한 온조집단이 無人之境의 한강유역에 닿자마자 하남위례성을 건설한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3중 환호와 그 내부의 말각방형 주거지 단계를 초기 백제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이후의 단계와 분명히 연계된다. 이는 종래 거론되어 온 이른바 정복국가적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즉, 대체로 2~3세기경의 점진적 성장과 그로 인한 국가체제의 확립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백제의 건국지가 하남위례성이고, 그곳이 지금의 풍납토성이라는 입장에 섰을 때,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이 丁夫를 징발하여 慰禮城을 보수하였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責稽王 즉위년(286)조 기사이다. 이 때의 위례성을 옛 왕성인 하북위례성으로 간주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온조왕 13·14년조의 천도기사를 끝이곧대로

38) 朴淳發, 앞의 책, 181쪽.

믿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濫祚王紀가 후대의 사실을 짜깁기한 기사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해석은 달라진다.

책계왕이 즉위하자마자 보수한 위례성은 慰禮가 王을 뜻한다는 앞서의 지적³⁹⁾에 입각하여 일단 王城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위례성이 온조가 도읍한 하남위례성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와는 다른 별개의 성이라고 보고 싶다. 즉, 古爾王-責稽王-汾西王-契王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古爾系는 『三國志』 韓傳에 馬韓 54개국 중 하나로 기재된 優休牟涿國 혹은 臣漬沽國으로서, 肖古系の 伯濟國과 경쟁하다가 흡수되었다는 주장⁴⁰⁾에 입각하여, 伯濟國의 위례성과 다른 優休牟涿國 혹은 臣漬沽國의 위례성으로 보고자 한다.

優台-沸流-古爾王으로 이어진 古爾系의 근거지는 파주·연천 등 경기도 서북부지역으로 추정된다.⁴¹⁾ 마침 파주에는 六溪土城·七重城, 연천에는 哨城里城址·大田里城址 등 삼국시대 초·중기로 편년되는 성곽이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臨津江 南岸에 판축식으로 축조된 육계토성이다.

육계토성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六溪洞 산 99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강안 평지성으로, 舟月里土城이라고도 한다. 임진강이 七重河라는 옛 이름에 걸맞게 지그재그로 흐르면서 생긴 回折部에 있기 때문에 성벽의 일부는 제방의 역할을 겸하는데, 평면형태가 장축을 동북-서남에 둔 타원형이어서 마치 풍납토성을 옮겨놓은 듯하다. 다만, 크기는 훨씬 작아서 둘레가 대략 1.5km 정도에 불과하다.

군데군데 강들을 흠에 섞어 축조한 구간이 많지만 대체로 고운 사질토로 판축하였다. 강물과 직접 접하는 북벽은 현재 바깥쪽 높이 3~

39) 李炳銑, 앞의 책, 199쪽.

40)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83, 1993, 23쪽. ; 김기섭, 앞의 책, 57~71쪽.

41) 김기섭, 앞의 책, 65쪽.

4m, 안쪽 높이가 약 1m이며, 상부의 폭은 1~2m이다. 남벽 등은 바깥쪽 높이가 4m 내외, 상부의 폭이 2m 정도인데, 성벽 바깥으로濠를 두른 듯한 흔적이 있다. 門址는 동·서·남벽에서 각각 한군데씩 발견되었다.

지금은 몇 차례의 홍수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 안에는 2개의 土壁이 남아있었다. 북벽으로 이용되는 제방의 중간 부분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土壘와 서벽에서 동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서 북벽에 잇대어 남쪽으로 길게 뻗은 토루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평행 남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십 m쯤 그대로 진행하다가 남쪽이 경각지로 변모하면서 갑자기 끊기고 말았지만, 이들이 어디에선가 연결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므로 일단 內城으로 부를 수 있겠다.⁴²⁾

성 안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의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1996~1997년의 성 내부 부분발굴을 통해 확인된 이른바 凸字形 주거지 중 96-7호 주거지는 木炭의 방사성탄소연대가 1695±45B.P.로 나타난 바 있다.⁴³⁾ 이 결과는 주거지에서 수습한 토기의 편년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中島式無文土器 없이 打捺文土器 위주인 토기조합은 短頸壺·鉢形土器·大形甕·시루·접시·高杯 등 다양한데, 대체로 본격적인 백제토기로 전환하기 전 단계라고 한다.⁴⁴⁾ 이밖에 성 안에서 출토·수습된 철제품 중 鐵鏃·鐵矛·鐵鋤는 고구려 계통으로 분류되고 있다.⁴⁵⁾

온조설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진강·한강유역의 이른바 帶方故地에 온조왕의 백제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류와 같은 세력이 존재

42) 김기섭, 「경기지역의 관방문화」, 『京畿地域의 郷土文化(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05~706쪽.

43) 京畿道博物館, 『坡州 舟月里遺蹟』, 1999, 308쪽.

44) 위의 발굴보고서, 256~260쪽.

45) 위의 발굴보고서, 262쪽.

하며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靺鞨, 『삼국지』 韓傳의 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沽國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이들은 3세기 중엽의 崎離營 전투⁴⁶⁾에서처럼 서로 연합하기도 하였지만, 『삼국사기』에 소개된 백제와 말갈의 전투기사에서 보듯 기본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다. 이들이 차례차례 백제국에 흡수된 시기는 대략 3세기말~4세기초엽이다.⁴⁷⁾

優休牟涿國·臣漬沽國 등의 역사는 그들이 백제국에 흡수될 때 백제사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 『삼국사기』에서 古爾王·責稽王·汾西王紀에 낙랑·대방과 관련된 기사가 급증하고, 古爾王紀 기사들이 유독 漢化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도 지리적으로 漢郡縣과 가까웠던 古爾系의 경험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책계왕 즉위년조의 위례성은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백제국의 王城이 아니라 육계토성처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정치집단의 中心城을 지칭하였던 이름이다.

4. 국가 발전과 漢城 건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서 漢城이라는 이름은 온조왕 14년조에 처음 나온다.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주민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기사이다. 마침 이에 앞서 “봄 정월에 (漢水 남쪽으로) 천도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여기의 한성은 새로운 도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比流王 24년(327)에 내신좌평 優福이 北漢城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사, 阿莘王이 漢城 別宮에서 태어났다는

46)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47) 金起燮, 「백제의 국가성장과 沸流系의 역할」, 『淸溪史學』 16·17 합집, 2002, 503쪽.

48) 위의 논문, 508~509쪽.

기사, 腆支王이 즉위할 때 漢城人 解忠이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 蓋鹵王 21년에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사 등 4세기 이후의 기사에서만 찾을 수 있다.

溫祚王紀 기사의 紀年에 문제가 많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⁴⁹⁾ 따라서 온조왕기의 한성도 후대의 이름을 소급 기재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백제의 중심지에 대한 용어가 慰禮城→王都→漢城의 순으로 변하였다는 지적⁵⁰⁾은 주목할 만하다. 마침 漢城은 ‘큰 성[大城]’을 중국식으로 바꾼 이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王城·大城을 뜻하는 慰禮城과 통하는 면이 있다. 위례성과 한성은 같은 곳을 달리 부른 이름일 수 있는 것이다.

위례성에서 한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면, 이는 漢化政策의 결과인 듯하다. 우리 역사에서 한화정책이란 보통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자, 그에 맞추어 자신들의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위례성에서 한성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改名이 아니라 백제 都城制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한성의 구조이다.

한성은 위례성과 달리 구조가 독특했다. 다음의 간단한 기록들은 모두 한성의 독특한 구조를 단편적으로 알려준다.

- ④ 처음에 한성 別宮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광채가 밤을 밝혔다.(아신왕 즉위년)
- ①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巨璉이 군사 3만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 한성에 에워쌌다.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협공하였다. 또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우

49) 김기섭, 앞의 책, 32쪽.

50) 金起燮, 「百濟 前期의 漢城에 대한 再檢討」, 『郷土서울』 55, 1995, 17쪽의 <표 2> 참조.

니, 인심이 매우 불안해져서 간혹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이 궁색해져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습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니,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개로왕 21년)

- ①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對盧인 齊于·再曾桀婁·古爾萬年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北城을 공격하여 7일만에 빼앗고 南城으로 옮겨 공격하니, 성 안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왕이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 장수 桀婁 등이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 왕의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으며 그 죄를 헤아리고, 포박하여 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개로왕 21년)
- ② 百濟記에 이르기를, 개로왕 을묘년 겨울에 이리[고구려]의 大軍이 와서 大城을 7일 낮 7일 밤 동안 공격하여 왕성이 함락되니 마침내 尉禮를 잃었다. 국왕과 太后,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日本書紀』 雄略紀 20년)

위의 기록 중 ㉠는 한성에 正宮과 別宮이 따로 있었음을 시사한다. ㉠를 통해서는 고구려 군대를 한성에서 맞아 싸울 정도로 한성이 군사적 기능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왕이 주변의 산성으로 대피하여 웅성하는 이른바 산성 중심의 도성방어체제와 크게 다른 방식이다. ㉠의 상황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 ㉡는 한성이 남·북 2개의 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는 5세기 후반기에 백제의 大城(漢城)을 여전히 尉禮(慰禮)라고 부르기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한성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이다. ㉡의 “고구려가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내용을 ㉡에서는 “고구려가 北城을 공격하여 7일만에 빼앗자 南城의 왕이 도망가다 사로잡혔다”로 자세하게 풀어놓았는데, ㉡의 漢城과 ㉡의 北城·南城이 서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마침 ㉢에서도 “大城 공격, 王城 함락”이라는 표현이 ‘大城 속의 王城’을 상징케 하여, ㉡와 대비시킬 경우 大城이 漢

城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성이 北城과 南城을 합한 이름이라고 할 때, 이에 걸맞는 사례로서 중국 고대의 도성을 예시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을 목표로 列國이 치열하게 경쟁한 戰國時代의 도성 중 邯鄲故城·臨淄故城·燕下都古城 등은 둘레 10여km가 넘는 居民用 大城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王城을 합한 이름이다.⁵¹⁾ 그런데 특이한 점은 大城 속에 王城이 있는 이른바 內城外郭의 형태가 아니라, 대성의 바깥 서남쪽에 왕성이 연결하거나 (臨淄故城) 대성으로부터 60m 혹은 1km 가까이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왕성이 위치한다(邯鄲故城)는 것이다. 지형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北魏·唐代의 도성처럼 방위에 크게 구애되지 않았으며, 왕성을 비교적 높은 지대에 배치하였다는 점도 위 3城의 공통된 특징이다.

趙의 邯鄲城은 內城이 평지의 郭城 바깥으로 나와 구릉성 산지에 따로 축조되어, 아예 곽성을 大北城, 내성을 趙王城이라고 부른다. 齊의 臨淄城도 비슷하여 북쪽의 낮은 지대에 大城, 서남쪽 높은 지대에 小城(營邱城)으로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한단성이란 보통 대북성과 조왕성을 합한 이름이며,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던 대북성을 주축으로 조왕성을 포함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치성도 대성을 중심으로 소성을 포괄하는 이름이다. 內城外郭의 개념이 비교적 분명한 중국에서는 외곽을 기준 삼아 성곽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邯鄲故城 등의 구조를 백제의 한성에 적용하면, 『삼국사기』의 北城과 南城은 한단성의 대북성과 조왕성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일본서기』의 大城과 王城도 실은 ‘大城 속의 王城’이 아니라, ‘大城 남쪽의 王城’일 개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예를 참고할 때, 백제의 北城은 관청과 각 계층의

51) 위의 3城에 대해서는 金起燮, 「百濟前期 都城에 관한 一考察」 『清溪史學』 7, 1990, 5~13쪽 참조.

주거지가 몰려있던 이른바 居民城으로서 대규모의 郭城이며, 南城은 왕을 비롯한 핵심 지배층이 거주하던 높은 지대의 王城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것이 바로 漢城이다.

㉠에 나오는 別宮이 어디에 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언뜻 보아서는 남성이 왕성이므로 별궁은 북성에 있어야 하지만, 백제의 도성 운영이 세부적인 면까지도 邯鄲城·臨淄城과 같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백제 한성의 북성·남성 체제가 고구려의 國內城·丸都山城처럼 유사시에 왕이 산성으로 피신하여 방어하는 이른바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변형한 것이라면, 한성의 正宮은 오히려 北城에 세워졌을 개연성이 있다.

正宮이 어느 쪽에 있었든 한성의 중심은 북성이었다. 그것은 왕궁의 위치에 관계없이 한단성에서는 북성, 임치성에서는 大城이 각각 주축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마침, 백제의 경우도 『삼국사기』의 북성·남성을 『일본서기』의 대성·왕성에 직접 대입하여 북성=대성, 남성=왕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⁵²⁾ 북성을 가리키는 대성이 실은 한성 그 자체를 의미하여 위의 유추를 입증한다.

필자는 그동안 한성을 구성한 북성과 남성이 각각 지금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토성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0m를 넘지 않으며, 그 사이는 평지이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면 연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풍납·몽촌토성으로부터 남쪽 3km 범위 이내에 백제 지배층의 墓域으로 알려진 石村洞·可樂洞古墳群이 위치한다. 그리고 한강유역에서 큰 성[大城]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곽을 찾아보면 풍납토성이 단연 돋보인다. 이러한 모든 점들이 풍납토성을 대성, 곧 한성의 북성으로 간주하게 하며, 몽촌토성이 그와 연계된 남성임을 입증한다.

그런데 한성이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성시대 말

52) 위의 논문, 30쪽.

기인 개로왕대의 상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인 만큼, 그 이전의 도성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남위례성이 지금의 풍납토성이고, 풍납토성이 바로 한성의 북성이었다는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성이 언제부터 남·북 2성으로 나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다음 숙제이다.

중국 燕下都古城의 경우, 대형 건물지가 밀집 분포한 東城의 축조 연대가 일반주거지 및 농경지를 감싼 西城보다 조금 일찍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⁵³⁾ 邯鄲故城도 趙王城의 축조는 대북성 확장의 일환이라고 한다. 또 조왕성 내에서도 서성은 구릉의 경사면에 걸치며 정방형의 계획을 보여주는 반면, 동성과 북성은 곳에 따라 성벽을 굴절시켰을 뿐 아니라 하천을 포함하는 등 서성에 잇대어 증축한 흔적이 뚜렷하다.⁵⁴⁾

백제의 한성 또한 기존의 북성에 새로 남성이 덧붙여진 형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본기」 近肖古王 26년조의 “도읍을 漢山으로 옮겼다”는 기사이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26년(371)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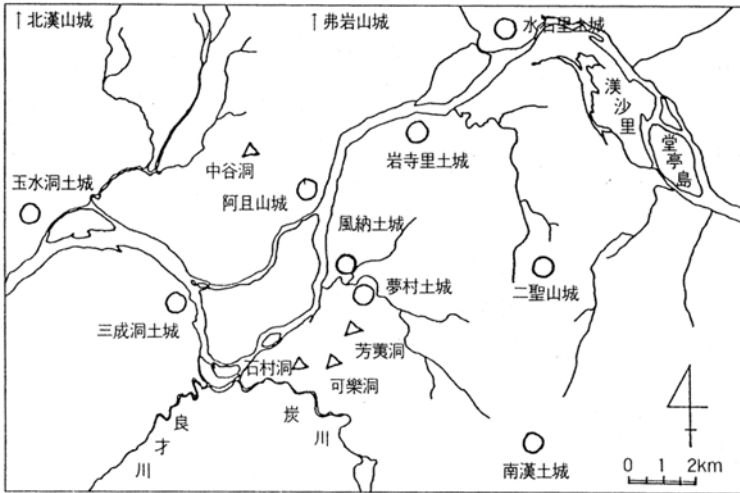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종래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고구려의 대대적인 보복공격에 대한 방비라는 것이다.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왕을 잃은 고구려가 곧바로 반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철수하자마자 서둘러 한겨울에 도읍을 옮겼으니 평범한 일은

53)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易縣燕下都故城勘察和試掘』, 『考古學報』 1965-1. ; 村田亞紀夫, 『古代中國における城壁建築』, 『史學研究』 175, 1987. ; 金起燮, 위의 논문, 11~13쪽 참조.

54) 東亞考古學會, 『邯鄲-戰國時代趙都城址の發掘』, 座右寶, 1954. ; 邯鄲市文物保管所, 『河北邯鄲市區古遺址調查簡報』, 『考古』 1980-2. ; 邯鄲市文物保管所, 『趙都邯鄲故城調查報告』, 『考古學集刊』 4, 1984. ; 金起燮, 위의 논문, 5~8쪽 참조.

아니다. 더욱이 근초고왕의 재위기간 내내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정치·문화적으로도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백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英主라고 평가될 정도로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인물이다. 이처럼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의 백제가 고구려의 보복이 두려워 일시적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림 1> 한강유역의 성곽 분포 (△는 고분군)



근초고왕이 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적극적인 북진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폈으며, 그 결과 고구려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한강 북쪽의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해석이다.⁵⁵⁾ 도읍을 옮긴 이유가 군사적 목적이 라고 본 부분은 위의 해석과 유사하지만, 대책이 아니라 공격책으로

55)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32쪽.; 姜仁求, 앞의 논문, 15~18쪽.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문은 역시 남는다. 한겨울에 퇴각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도읍을 옮기기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의 한산이 지금의 서울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근초고왕이 도읍을 옮긴 이후 고구려에 특별한 공세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근초고왕이 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다시 漢城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다. 이 때문에 한산이 곧 한성이며, 한성은 지금의 몽촌토성이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⁵⁶⁾ 그러나 한산과 한성이 같을 수는 없다. 한산에는 절이 세워지고,⁵⁷⁾ 柵·山城과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⁵⁸⁾ 그리고 여러 차례 왕이 가서 사냥하였을⁵⁹⁾ 정도로 그 범위가 넓다.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산에는 한산성이 있었으므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초고왕 26년조의 漢山과 漢山城·漢城은 분명히 구분되는 이름이다. 따라서 왕이 한성으로 다시 옮겼다는 기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를 기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천도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기사가 왜곡될지언정 누락되기는 쉽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 신라의 경우, 慈悲麻立干 18년(475)에 왕이 明活城으로 移居하였다가 炤知麻立干 10년(488)에 다시 月城으로 돌아온 사실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56) 余昊奎, 「漢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百濟研究』 36, 중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57)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三國史記』 「百濟本紀」 枕流王 2년)

58) 冬十一月… 廻軍至漢山城 勞軍士(『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4년) ;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 7년).

59) 『三國史記』 「百濟本紀」 己婁王 27년, 蓋婁王 4년, 毗有王 29년.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移都 漢山]”는 기사가 너무 짧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王引軍退]”는 기사와 역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移都가 어느 달[月]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故國原王이 날아오는 회살에 맞아 죽은 것은 10월 23일인데,⁶⁰⁾ 「백제본기」에는 같은 사건이 단지 ‘겨울’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백제본기」의 해당 기사는 영성한 것이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초기 기사 때문이다. 濫祚王紀를 비롯해 초기의 몇몇 王代에 후대의 기록이 집중적으로 소급 적용된 탓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시간 개념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온조왕기와 근초고왕기의 부분적 연관성 뿐 아니라, 온조왕기와 문주왕기의 연관성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온조왕 13년조의 “한산 아래에”는 근초고왕 26년조의 “한산으로”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즉, 근초고왕이 도읍을 옮긴 곳은 한산의 정상 근처에 있던 한산성이 아니라 ‘한산 아래’였던 것이다.

‘한산 아래’란 사실상 한성과 같은 지역이다. 다만, 지형적으로 한산과 직접 연결되어 기존의 한성보다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 있었다. 한산 자락에 기존의 大城보다 군사적 기능에 더욱 충실하면서도 왕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이 세워졌고, 이곳으로 근초고왕 26년경 왕이 移居한 것이다. 이로써 이른바 北城과 南城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漢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장차 이루어질 羅城 축조를 예고하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여하튼 근초고왕이 독립된 왕성으로 移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왕과 왕실이 상당한 권위를 갖게 된 당시의 정치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다.

6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41년.

5. 漢城의 풍경

北城과 南城으로 구성된 백제의 새로운 도성은 나중에 泗泚都城에서 실시되는 5部5巷制라든가 고구려와 신라의 條坊制·坊里制처럼 정연한 도시구획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북성과 남성이 각각 지금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해당한다고 할 때, 王城이 남쪽에 있고 居民城이 그 서북쪽에 위치하는 형태의 도성 구조 내에서는 北魏와 唐의 도성체처럼 왕성의 남쪽으로 도로와 관청·사찰·시장·주택 등을 구획할 수 없음은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정연하게 구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긴 바둑판처럼 도시를 구획하는 조방제는 백제가 羅城을 쌓은 사비시대에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泗泚都城의 5부5향제와 나성 건설방식이 北魏 洛陽城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⁶¹⁾든가 중국 南朝의 建康城을 모방하였다⁶²⁾고 볼만한 부분이 있어, 적어도 조방제의 흔적만큼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한성시대의 도성제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비 도성의 5부5향제에 대해 백제가 엄격한 신분질서에 입각하여 周禮主義의 정치이념을 추구한 증거라고 해석하는 견해⁶³⁾에 따르면, 한성시대에는 아직 그와 같은 이념이 반영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백제의 도성이 2개의 성으로 구성된 중국 전국시대의 도성제를 따르게 된 데에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

61) 徐程錫, 『百濟의 城郭-熊津·泗泚時代를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2002, 179~180쪽.

62) 秋山日出雄, 「南朝都城『建康』の復元序說」, 『檀原考古學研究所論文集』 7, 1984, 24~25쪽. ; 田中俊明, 「王都로서의 泗泚城에 대한 豫備的 考察」, 『百濟研究』 21, 1990, 198쪽.

63) 徐程錫, 앞의 책, 181쪽.

을 것이다.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각종 욕구로 인해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규모와 역할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는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편한 하천 근처의 평지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였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를 따로 대비케 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산성 건설이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도시의 거주민이 모두 피난해서는 곤란하므로, 평지에도 주요 시설을 감싼 성곽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접한 세력과의 빈번한 전쟁으로 빚어진 위기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방어 면적이 넓고 성벽의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의 토성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해 다소 불안하였다. 따라서 극소수의 지배층은 유사시에 좀더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도심에서 가까운 높은 지대에 또 하나의 성을 쌓고 거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백제의 도성체가 중국의 전국시대 도성을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 상황이 비슷해서 우연히 닮은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거의 500년에 달하는 시간적 거리감을 고려하면 우연의 일치였을 개연성이 더 높지만, 樂浪·帶方郡을 통해 유입된 중국계 백제인들이 중국의 고전적 사례를 소개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마침 백제의 성은 돌이 아닌 흙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중국 성곽과의 공통점 내지 계통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대의 사비 도성처럼 정연한 도시 구획은 아닐지라도 백제의 한성이 기본적으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이상, 일정한 구획은 갖추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의 墳墓유적은 모두 몽촌토성의 남쪽 가락동·석촌동·방이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어 陵域이랄까 공동묘지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가 형성될 만한 곳은 몽촌토성의 북쪽과 동쪽 뿐이다. 1926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春川 蠡鳴)를 보면, 몽촌토성의 북쪽에는 지금의 성내동 - 천호동 - 암사동

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평지성 구릉이 형성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꽤 넓은 논이 펼쳐진다. 풍납토성은 몽촌토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서 성벽 표시가 나 있는데, 성벽의 장축 방향이 한강의 물길과는 약 25°가량 동쪽으로 비스듬히 틀어진 탓에 서쪽 성벽 약 1km 구간만 완전히 유실된 모습이다. 이와 같은 풍납토성의 평면형태는 매우 교묘해서 평소 성벽과 한강이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물길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따로 제방을 더 쌓지 않고도 東壁과 北壁 바깥으로 펼쳐진 드넓은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 송파구 일대의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남쪽의 王城(몽촌토성)과 그 서북쪽의 居民城(풍납토성), 그리고 거민성의 동쪽에 펼쳐진 도로와 취락·농경지 등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성시대 도성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北魏·唐의 도성제는 물론 漢의 도성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사한 예는 앞에서 소개한 전국시대의 도성들인데, 남-북의 子午線이 무시되고 아직은 정연한 도시구획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분모이다. 여기에는 都城을 통해 어떤 사상을 실현한다거나 형식을 추구하기보다 實質과 實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성의 풍경을 상상해보자. 먼저 왕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 내부에서 直交式에 가까운 도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북의 子午線이 강조되거나 條坊이 구획된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몽촌토성의 입지조건과 외형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된 문제이다. 자연구릉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성곽의 평면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었으며, 성 내부의 地面도 중앙의 몇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소 불규칙한 요철을 이룬다. 이런 지형 조건에서 방향을 따져 건물을 정연하게 배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백제의 왕성에서조차 방향에 입각한 구획은 없었다고 본다.

<그림 2> 풍납토성·몽촌토성 일대의 지형도(1926)



漢城의 正宮이 北城과 南城 중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로 지은 남성에 극소수의 지배층과 이들을 보좌하고 호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관청 중 椽部를 비롯한 몇몇 官府의 부속 건물은 반드시 성 안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辰斯王 7년(391)조의 “봄 정월에 궁실을 다시 고쳤으며,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이상한 화초를 길렀다”는 기사와 毗有王 21년(447)조의 “여름 5월에 궁궐 남쪽의 연못 안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 같았으며 밤이 새어서야 꺼졌다”는 기사로 보아 4세기 말엽부터는 궁궐 내부에 연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촌토성의 서남구역에서 확인된 연못지를 위의 기사와 대응시키는 견해⁶⁴⁾도

64) 朴淳發, 앞의 책, 192쪽.

있으나, 궁궐에 걸맞는 建物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감안하면, 王城인 몽촌토성보다는 오히려 居民城인 풍납토성쪽에 더 많은 국가 시설물이 배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것은 한성에 正宮과 別宮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아신왕의 아버지인 枕流王이 즉위한 다음 해에 죽었고, 숙부인 辰斯王이 재위 8년만에 죽었으니, 그 뒤를 이은 阿莘王은 아마도 枕流王이 太子일 때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성의 별궁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태자가 평상시 별궁에 기거했음을 시사한다. 태자가 기거하는 별궁 주변에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公·私的 시설들이 늘어섰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풍납토성 내부의 도시구조는 비교적 정연하였을 것이다. 현재 풍납토성의 동쪽 성벽을 거의 같은 간격으로 뚫고 지나가는 4개의 도로가 모두 城門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풍납토성의 동쪽 바깥지역이 왕성인 몽촌토성의 북쪽 정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2~3군데는 성문의 흔적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성문이 거의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내부 구조가 어느 정도 정연하였다는 뜻이다. 다만 城의 평면 外形이 방향성을 무시한 타원형인데다 각도마저 틀어져 있기 때문에 條坊의 개념은 적용하기 어렵다. 성문이 동쪽에 몰려있고 동쪽보다 지대가 낮은 서쪽은 성벽이 한강과 접하고 있으므로, 풍납토성 내부에 건설된 각종 宮과 官司는 아마도 몽촌토성과 가까운 남쪽에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전국시대 도성처럼 백제의 북성 내부에는 일반인의 주거지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居民城은 성곽의 평균 둘레가 15km에 달하는 데 반해, 백제의 북성은 3.5km에 불과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당수의 민가는 성곽 바깥에 건축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의 “백성의 집은 자주 강물에 무너지

니”라는 기사가 그 사례이다. 고구려 國內城의 경우, 고구려시대의 대형 건물지가 성 내부는 물론 東門 바깥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는데,⁶⁵⁾ 그 용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일단 일부 지배층이 성 바깥에서 거처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민가와 농경지는 물론 각종 경제시설의 일부도 성 바깥에 배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성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성곽의 바깥, 특히 풍납토성의 동쪽지역에 주로 형성되었을 도시 내지 취락의 규모라든가 모습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 구체적인 복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개로왕대에 벌인 대규모의 제방공사가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한가지 방책일 뿐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도시의 정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늦어도 5세기 후반에는 백제 도성의 내·외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획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6년에 발행된 지도에는 풍납토성의 동벽으로부터 200~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성벽과 평행하며 동북-서남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도로 표시가 있다. 松坡에서 시작된 도로는 동북방향으로 거의 직선처럼 뻗었는데, 몽촌토성의 서북쪽 성벽 곁을 지나 풍납토성의 동벽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여 성내동의 평지성 구릉으로 올라선 다음 야트막한 능선을 따라 고덕동 방면으로 나아간다. 고덕동에서부터는 한강변을 따라 船里로 이어지며, 이곳에서 비로소 방향을 바꿔 동남쪽의 미사리까지 연결된다. 그런데 이 길이 몽촌토성·풍납토성에서 선리·미사리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성내동에서 둔촌동의 구릉에 오른 다음 능선을 따라 동북쪽의 상일동과 하남시 초이동 사이로 빠지고, 여기에서 다시 풍산동을 거쳐 미사리에 이르는 길이 또 있다. 결국, 고덕동 방면의 길과 둔촌동방면의 길은 선리 혹은 미사리에서 서로 만나 하나

65) 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獲』, 『文物』, 1984-1. ; 崔茂藏 역, 『集安高句麗考古學의 新收獲』, 『高句麗·渤海文化』, 集文堂, 1985.

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도로는 모두 몽촌토성의 북쪽, 풍납토성의 동쪽에 형성된 평탄지를 지나며, 또 풍납토성의 동쪽 성문과도 연결된다. 몽촌토성의 북쪽에는 풍납토성과 성내동의 평지성 구릉 사이에 펼쳐진 평야 뿐 아니라 성내동과 둔촌동 사이로 뻗어나가 길동을 거쳐 멀리 명일동까지 길게 이어지는 계곡평야가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이처럼 풍납토성 동쪽 성벽 바깥으로 성내동의 구릉 일부를 포함하며 둔촌동 구릉지대까지 형성된 평탄지의 총면적은 어림잡아도 풍납토성 내부 면적의 3배를 웃돈다.

드넓은 평탄지의 거의 중앙에 성내동의 야트막한 구릉이 자리하고, 그 위 혹은 곁으로 두 도로가 지나는 점을 고려하면, 성 바깥의 취락은 지금의 성내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마침 성내동 구릉의 동편에는 西南流하다가 몽촌토성의 북벽을 감싸며 西流하는 城內川과 합한 다음 한강에 유입되는 작은 하천이 있어 생활과 농경에 매우 유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 바깥의 취락 혹은 도시가 크게 번성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성시대의 도성은 풍납토성처럼 도시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만 크게 감싼 형태이기에 성곽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 맺음말

백제가 河南慰禮城에서 건국하고부터 5세기 후반에 熊津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都城制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강 남쪽을 중심으로 성장한 伯濟國은 한강 북쪽의 優休牟涿國·臣瀆沽國 등을 흡수하며 세력을 키웠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는 흡수된 집단의 과거 경험을 마치 백제의 역사인양 각색한 대목이 적지 않은

데, 이른바 河北慰禮城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溫祚王紀는 각색이 가장 심해 文周王 때의 熊津 천도 과정을 온조집단의 남하과정에 빗대기도 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사 중 왜곡된 부분을 제거하면, 백제는 한강 남쪽의 위례성에서 건국하였고, 漢城에서 일단 망한 것이 된다.

위례성은 王城 혹은 大城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語源上으로는 대성을 뜻하는 한성과 통하는 것이다. 위례성과 한성이 같은 곳일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데 위례성은 單城인 반면, 한성은 北城과 南城으로 이루어진 複城이다. 한성이란 위례성에다 또 하나의 성을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도성인 한성이 출현한 시기는 近肖古王 때이다. 근초고왕 26년(371)에 “漢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한산 아래에 새로운 성을 짓고 그곳으로 移居하였다는 뜻으로서, 명실공히 都城制의 정비를 의미한다. 남·북성으로 구성된 한성 건설은 장차 설계될 羅城 축조를 예고하는 일이며,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왕성 내지 도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일은 어느 시대이건 왕권 강화의 지표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강 남쪽의 위례성이란 지금의 風納土城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漢城을 이룬 또 하나의 성은 夢村土城이다. 그러니까 한성 단계에서는 풍납토성이 北城, 몽촌토성이 南城이었던 것이다. 북성 안에는 궁궐과 관청·시장·주택 등 많은 시설이 건설되었다. 남성에도 궁궐과 관청, 그리고 군사시설이 만들어졌다. 양쪽의 궁궐은 각각 正宮과 別宮으로 구분되었는데, 4세기 말엽에는 왕이 정궁, 태자가 별궁에 거주하는 형태였던 듯하다. 남성의 북쪽, 그러니까 북성의 동쪽 성벽 바깥에는 성내동의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고, 농경지도 꽤 넓게 펼쳐졌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나 고구려·신라의 도성에 적용된 條坊制의 흔적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Hi Seoul

SOUL OF ASIA

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申 熙 權*

1. 머리말
2. 河南慰禮城 관련 諸說 검토
 - (1) 河北慰禮城說
 - (2) 漢城說
 - (3) 河南慰禮城 위치 비정 諸說
3. 河南慰禮城과 風納土城
 - (1) 河南慰禮城의 입지와 風納土城
 - (2) 風納土城의 연구 현황
4. 風納土城을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 (1) 風納土城內 주요 시설물
 - (2) 風納土城의 구조와 축조기법
5. 맺음말

1. 머리말

百濟時代는 일반적으로 遷都 과정에 근거하여 漢城百濟時代, 熊津百濟時代, 泗泚百濟時代의 3개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글의 고찰 대상이 되는 漢城百濟時代라는 의미는 곧, 漢城을 都城으로 한 百濟時代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백제의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도성이 漢城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백제의 첫 도읍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三國史記』 「百濟本紀」 濫祚王條의 첫 도읍지로 기록되어 있는 ‘河南慰禮城’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백제사를 시대구분할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慰禮城時代’가 아닌 ‘漢城時代’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慰禮城=漢城’이라는 등식에 당연히 동조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지 둘 중의 하나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 역시 온조왕조의 作都 기록에 등장하는 ‘하남위례성’과 「百濟本紀」 곳곳에 간헐적으로 사용된 ‘한성’은 비록 명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백제시대의 첫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제의 첫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실체를 접근하고자 함에 우선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필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하남위례성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정된 (河北)慰禮城의 문제 또한 간략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백제사의 시기 구분을 포함한 제반 사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三國史記』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주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三國志』 등 中國의 문헌 기록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용과 비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原典의 글자 하나하나에 착목하여 나름대로 객관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으며, 때로는 그것을 관련 기록들과 연관지어 다소 비약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가 하면, 중국에는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시 史家の 입장을 편의적으로 재단하여 저마다의 역사관과 시대관을 강요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수 천년 전의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데는 당연히 위와 같은

원전 분석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 복원 작업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성백제시대와 관련하여서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자들의 개인적 성향 또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설들이 주장되어 왔으며, 이미 문헌 기록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성과가 다량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문헌사적 접근에서 비롯된 한계를 벗어나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그야말로 백제사 연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하남위례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문제부터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근래에 이와 같은 고고학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며, 그러한 연구 성과 또한 기존의 백제사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夢村土城의 발굴조사 결과는 그동안 문헌 기록에 치중해 왔던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를 접목시킨 대표적인 사례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1986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발굴조사되고 있는 하남시 二聖山城 또한 이 분야 연구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한편 비록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이후의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하남시 校山洞土城의 발굴조사 역시 고고학적인 고증을 통해 백제 초기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발굴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기존의 역사학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데 역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고고학적 자료의 제약이라는 한계에서 노정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되며, 최근에는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

할 만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기에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風納土城의 발굴조사는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최근 풍납토성을 통해 드러난 고고학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다시피 한 백제시대의 첫 王城 또는 都城인 ‘河南慰禮城’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남위례성의 위치 비정 문제를 둘러싼 문헌사학적 또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필자가 생각하는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그 후 현재로서 하남위례성의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풍납토성의 현상과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밝혀진 한성백제시대 첫 왕성으로서의 제 조건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2. 河南慰禮城 관련 諸說 검토

(1) 河北慰禮城說

『三國史記』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첫 도읍지는 온조왕 즉위년조에 등장하는 ‘하남위례성’이라 볼 수 있다.¹⁾ 그러나 初都地로서의 하남위례성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 남쪽의 위례성’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河南’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慰禮城’ 또는 ‘河北慰禮城’을 별도로 상정하고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의

1) 백제본기 온조왕 원년조 기록에는 작도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百濟始祖溫祚王 …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 溫祚都河南慰禮城 …”

천도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조선말의 실학자 茶山 丁若鏞을 들 수 있으며, 이후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실제로 『三國史記』 『百濟本紀』 온조왕 13년과 14년조에는 원년조에 등장하는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 사실을 묘사하는 상세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³⁾ 원년조의 기록을 13년과 14년조의 사실을 소급 기록한 것으로 보는 위와 같은 견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가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굳이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도성 혹은 왕성의 존재를 ‘하북위례성’이란 다분히 추론적인 개념으로 상정하고 그 실체를 고증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온조왕 14년조의 천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천도 이후에 사용된 ‘위례성’은 곧 ‘하남위례성’이 되어야만 하고, 상식적으로 ‘하남위례성’에 대응하는 ‘하북위례성’의 존재 역시 천도 이전의 것만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천도 이전의 기록에서 ‘하북위례성’의 단서를 찾고자 할 때는 안타깝게도 온조왕 8년조 말갈의 침입 기사만 나타나고 있어⁴⁾ 실제로 ‘하북위례성’의 실체를 추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의 상태에서 ‘하북위례성’의 실체를 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이다.

2) 茶山 丁若鏞이 『與猶堂全書』 6 「疆域考」 ‘慰禮考’에서 이와 같이 주장한 이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河北慰禮城’의 실체를 의심없이 받아들여 왔다고 할 수 있다.

3) 十三年 春二月 …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 必將遷國 … 予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都久安之計 …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涇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 九月 立城闕 … 十四年 春正月 遷都.

4) 八年 春二月 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

물론 온조왕 13년조 이후의 ‘위례성’이 ‘하남위례성’이 아닌 ‘하북위례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온조왕 17년 봄 “낙랑이 침입해와 위례성을 불살랐다”⁵⁾는 기록과 41년 2월 “위례성을 수리하는 데 漢水 동북 모든 부락의 15세 이상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였다”⁶⁾는 기록이 그러한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기록이 바로 ‘위례성’이 ‘河南’보다는 ‘河北’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온조왕 14년조 하남 천도의 주된 배경으로 낙랑과 말갈의 위협을 들 수 있는데, 불과 4년이 지난 온조왕 17년에 낙랑이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위례성을 강을 건너서까지 불사르고 돌아갔을까 하는 점과 강 이남의 도성을 수리하는 데 굳이 강 동북 모든 부락의 장정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기사에서는 그나마 위례성의 ‘하북’설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다분히 심정적인 추론일 뿐 결정적으로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입증시키는 증거로는 보기 곤란하다.

한편 이상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河北’과 ‘河南’의 ‘河’의 위치 또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온조왕 원년조와 13년조의 기록으로 미루어 남과 북의 경계가 되는 ‘河’를 ‘漢水’로 인정해 왔으며, 또한 ‘한수’는 곧 오늘날의 ‘漢江’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이렇듯 한강을 경계로 한 ‘하남’과 ‘하북’ 위례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하북위례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는 ‘하북위례성’의 위치를 한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여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하북위례성’의 후보지로 가장 흔히 거론되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압축할 수 있다. 앞서 茶山이 “하북위례성의 옛 자리가 경성 동

5) 溫祚王 十七年 春 樂浪來侵 焚慰禮城.

6) 四十一年 … 二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

북쪽 십리되는 곳 三角山 東麓에 있다”고 함으로써 대부분의 문헌 연구자들이 삼각산 동록설을 따르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위례성의 흔적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된 바가 없다.

이후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된 ‘하북위례성’의 후보지로는 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 일대의 中浪川 유역을 들 수 있다. 이 일대에는 일제 때까지만 해도 土壘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전하며,⁷⁾ 중곡동 일대에서 백제시대 石室墳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⁸⁾ 이에 차용걸, 성주탁, 최몽룡·권오영 등의 고고학자들이 이 일대를 ‘하북위례성’의 강력한 후보지로 주장하였고,⁹⁾ 이후 김기섭·이도학·김운우 등¹⁰⁾ 소장 문헌사학자들이 대거 중랑천 유역설을 뒷받침하였다.

이 밖에 소수의 의견이나마 洗劍亭 계곡 일대,¹¹⁾ 北漢山城¹²⁾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백제 왕실의 계보와 연관된 것으로 양자가 시간적 천도 과정에 의한 동일한 왕계의 도성이 아니라 ‘하북위례성’을 古爾系의 王城으로, ‘하남위례성’을 溫祚-肖古系, 곧 伯濟의 건국

7) 朝鮮總督府, 『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134쪽.

8)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권, 886쪽 ‘서울 중곡동고분’(崔夢龍).

9)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1)」, 『郷土서울』 39, 1981, 50~51쪽. ; 成周鐸, 「漢江流域 百濟初期城址研究」, 『百濟研究』 14, 1984, 128쪽. ;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89~90쪽.

10) 金起燮, 「百濟前期 都城에 관한 一考察」, 『淸溪史學』 7, 1990, 59쪽. ;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33~34쪽. ; 金侖禹,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考」, 『史學志』 26, 1993, 77쪽.

11) 李丙燾,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76.

12) 金廷學,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郷土서울』 39호, 1981.

지이자 왕도로 보아 온조왕 13년조의 위례성 民戶의 하남 이주 기사를 고이계가 초고계에 흡수되는 과정을 왜곡 기재한 것이라는 색다른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북위례성은 일반적으로 한강에서 멀지 않은 이북지역이 아닌 고이계의 왕성으로서 한강유역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¹³⁾

이상 ‘하북위례성’의 실체를 둘러싼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하남위례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북)위례성’은 상식적으로 그 존재를 상정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실체를 입증한 만한 뚜렷한 기록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도 ‘하북위례성’이 백제의 첫 도읍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혹 ‘하남위례성’이 ‘하북위례성’에서 천도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온조왕 즉위 후 단 13년간만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북위례성’의 실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최초 건국지로서의 定都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하북위례성’이 그렇게 짧은 기간만 사용되다 버려질 수 있었을까?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백제의 시조인 濫祚가 扶餘系로서 고구려를 거쳐 남하한 지배계층이라고 본다면 정도 당시 북방에 도사리고 있는 낙랑과 말갈 등의 위협을 염두에 두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조왕 13년조의 순행길에 관찰한 漢水 이남으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였다는 것은 ‘하북위례성’ 자체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도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상으로만 도읍을 옮긴 것일 뿐 실제로는 그곳에 최초로 도읍을 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후대의 『三國史記』 찬자로서도 비록 온조왕 즉위년조의

13) 金起燮, 「百濟 前期의 漢城에 대한 再檢討」 『郷土서울』 55, 15~16쪽, 1995. 필자는 이 글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하북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비정을 미루고 있다.

作都 기사와 13·14년조의 천도 기사와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남위례성’을 온조왕대의 초기 도읍지로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 온조왕 즉위년조에 “都河南慰禮城”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더불어 ‘(하북)위례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주장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체 논쟁과 마찬가지로 뚜렷이 그 위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고고학적으로는 ‘하북위례성’에 비정할 만한 유적 또는 유구가 발견되지 못한 게 사실인데다, 안타깝게도 ‘하북위례성’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서울 주변이 이미 난개발에 시달려 더 이상 새로운 유적의 발견을 기대할만한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하북위례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차라리 이 글의 주제가 되는 ‘하남위례성’ 관련 유적들의 지속적인 발굴 성과와 삼국시대 초기 기록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설정 자체부터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하북위례성’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2) 漢城說

이 글의 첫머리에서 ‘하남위례성’의 실체를 논함에 있어 ‘하북위례성’ 문제 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漢城’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왜냐하면 ‘한성’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기록 전반을 통해 볼 때 ‘위례성’과 더불어 백제시대 초기의 도성 내지는 왕성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명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한성’이 모두에 지칭한대로 ‘위례성’과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백제의 첫 왕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례성’과는 별개의 실체를 지닌 도성 또는 왕성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三國史記』 『百濟

本紀』기록의 ‘위례성’과 ‘한성’ 관련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례성’과 관련하여서는 온조왕 원년조에 ‘하남위례성’이란 명칭이 단 한 번 등장한 이래 이후의 온조왕 8년·13년·17년·41년조에 ‘위례성’이란 이름만 계속 사용된다. 이후 ‘위례성’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 전혀 없다가 250여 년이 지난 責稽王 원년(286년)에 이르러서 짧게나마 ‘위례성’ 수리 기사가 다시 등장할 뿐이다.¹⁴⁾ 물론 그 과정에는 왕도나 도성·왕성 등의 도읍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한편 책계왕 이후에는 그나마도 ‘위례성’이란 명칭 자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역시 ‘위례성’과 유사한 도성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성’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한성’이란 명칭 또한 온조왕 14년과 25년 기사에 처음 등장한 이래¹⁵⁾ 오히려 ‘위례성’보다 더 오랜 공백인 3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比流王 24년(327년)에 ‘北漢城’이란 명칭이 출현하고,¹⁶⁾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성’이란 명칭은 阿莘王 즉위년(392년)에서부터 다시 등장하고 있어¹⁷⁾ 새삼 그 존재가 주목된다. 이후에는 腆支王代와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인 蓋鹵王代까지 ‘한성’이 계속 사용되

14) 王徵發丁夫 葺慰禮城(왕이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15) 十四年 … 秋七月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14년 가을 칠월 한강 서북방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 二十五年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 … (25년 봄 이월에 왕궁의 우물이 사납게 넘쳤다. 이때 한성사람의 집 말이 소를 낳았는데 …).

16) 比流王 二十四年 … 九月 內臣佐平優福據北漢城叛 … (비류왕 24년 9월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성에 거하여 모반하므로 …). 위 기사의 ‘北漢城’이란 명칭 역시 ‘南漢城’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漢城’이 바로 漢水 以南의 ‘南漢城’을 가리키나 대개 ‘南’자를 생략하고 ‘漢城’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北漢城’의 존재는 ‘(南)漢城’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류왕대부터는 ‘漢城’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7) 阿莘王 … 初生於漢城別宮(아신왕 … 처음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다).

고 있어 한성백제시대 멸망 당시의 왕도가 곧 ‘한성’이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¹⁸⁾

이상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백제의 첫 왕도가 바로 ‘하남위례성’이며, 멸망 당시의 왕도는 ‘한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온조왕대에서 책계왕대까지는 왕도로서 ‘하남위례성’이 주로 사용된 반면, 비류왕대 이후로는 왕도가 완전히 ‘한성’으로만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남위례성’과 ‘한성’을 별개의 왕성으로 보고 책계왕에서 비류왕대 사이에 ‘하남위례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위 기록상으로는 특별히 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떠한 기록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양자를 별개의 왕성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남위례성’과 ‘한성’이 동일한 왕성을 지칭하는 것이되, ‘한성’이란 명칭이 온조왕대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위례성’에 대한 별칭으로서 후대의 史家에 의해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즉, 온조왕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할 당시에는 실제로 ‘하남위례성’이란 명칭이 ‘한성’이란 명칭과 더불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대에 왕성으로 고착된 ‘한성’이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하남위례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 역사의 시작인 온조왕대의 기록에 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온조왕대 중에서도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온조왕 14년조부터 ‘한성’이란 명칭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곧 ‘河南慰禮城=漢城’이란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8) 腆支王 … 漢城人解忠來告曰 … 二年 … 秋九月 以解忠爲達率 賜漢城租一千石(전지왕 … 한성사람 해충이 와서 말하기를 … 2년 … 가을 9월 해충으로 달술을 삼고 한성의 조 1천석을 주었다).
蓋鹵王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개로왕 21년 가을 9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을 에워싸므로).

그러나 그렇다하여 ‘하남위례성’과 ‘한성’이 반드시 동일한 왕성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의 왕성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남위례성’과 ‘한성’의 기록은 특정 시점을 경계로 사용빈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그 시점에서 비록 천도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남위례성’이 ‘한성’으로 변화하면서 왕성의 규모 또는 성격이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즉 책계왕대에서 비류왕대 사이의 어느 시점을 계기로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제도 자체가 일대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⁹⁾

이와 같은 백제 한성기의 도성 변천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에서 최초 풍납토성에 도읍을 정한 후 3세기 중·후반경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를

19) 이와 관련하여 이병도는 실제로 慰禮城(河北)에서 漢山下 漢城으로 천도한 것으로 보고, 河南 遷都의 연대를 책계왕 원년(286) 이후 비류왕 24년(327) 이전에서 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근거로 비류왕 24년 9월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성에 거하며 모반을 꾀하자 왕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였다”는 기사에 ‘北漢城’이 곧 慰禮城의 後名으로서 漢城으로 천도한 이후의 對稱일 것이므로 ‘북한성’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비류왕 24년 이전을 주장한 것이다(李丙燾·金載元, 『韓國史 古代篇』, 1965, 354~356쪽).

비록 이러한 주장은 온조왕조의 기록 자체가 후대의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13·14년의 ‘하남위례성’ 천도 기록을 비류왕대의 사실로 보는 것이어서 필자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으나 비류왕대의 정치적 변동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북방 낙랑인에 의해 흥변을 당한 責稽王과 汾西王에 이어 즉위한 比流王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방의 위협 세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외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천도 내지는 대대적인 도성의 정비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로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하남위례성’과 ‘한성’의 차별성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모한 백제가 고구려와 낙랑·말갈 등 북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새로운 방어성인 몽촌토성을 축조하는 등 도성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한 바 있다.²⁰⁾ 또한 그에 앞서 개로왕대 멸망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한성의 구조 자체가 왕성인 남성과 북성인 거민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좁게는 한성이 북성을 지칭하되 넓게는 남쪽의 왕성을 포함하여 주변 취락·농지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²¹⁾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제반 증거들로부터 추정컨대 ‘한성’은 백제의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확대 정비한 도성으로서 ‘하남위례성’과 별개의 왕성이 아닌 하남위례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조왕 이래 ‘(하남)위례성’으로 불려지던 왕성이 책계왕 이후~비류왕 이전에 ‘한성’이란 이름의 새로운 도성으로 확대 재편되고, 그것이 멸망 당시까지 ‘한성’이란 명칭으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남위례성’과 ‘한성’이 동일한 백제시대의 도성임을 입증할 만한 문헌 기록이 있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書紀』卷 14 雄略天皇 20年條 각주에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慰禮 國王及太后王子等 皆沒敵手”라 하여 개로왕대 狛(고구려)의 대군에 의해 백제 왕성이 함락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명칭이 바로 ‘위례’인데, ‘위례’가 곧 당시의 王城으로서 이를 빼앗김에 따라 왕과 태후·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음이 명확하다. 한편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三國史記』蓋鹵王 21년조 9월 기사²²⁾에는 고구려군 3만명이 王都인 漢城을 에워싸고 7일

20) 申熙權, 「百濟 漢城期 都城制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3회문화재연구학술대회 논문집, 2002.

21) 金起燮, 「百濟 前期의 漢城에 대한 再檢討」 『郷土서울』 55, 1995.

22)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 帥兵來攻北城 七日以拔之 移攻

동안 北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南城으로 이동하자 왕이 달아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위의 두 기사 모두 백제의 왕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7일간의 공격을 받은 끝에 함락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三國史記』에 北城과 南城으로 이루어진 王都 ‘漢城’이 『日本書紀』에는 大城+ 王城, 혹은 大城=王城인 ‘慰禮’로 명기되어 있어²³⁾ ‘漢城=慰禮’임이 명확히 밝혀진 셈이다.

이상 살펴본 한성과 관련하여서는 近肖古王 26년조에 또 다른 도읍으로 기록된 ‘漢山’²⁴⁾과의 연관성 등도 해명되어야 하나, 단지 위 기사를 제외하고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등장하는 ‘漢山’이 대부분 왕의 수렵지로 묘사되거나 일반적인 지명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특별히 도성으로서 의미를 두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한산’의 문제는 이 밖에 ‘漢山城’ 등 관련지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하남위례성과는 별도의 논고로 다루는 편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기로 한다.

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 23) 『日本書紀』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굳이 『三國史記』 기록에 그대로 대응시켜 大城과 王城을 분리하여 받아들일 필요 없이 大城이 곧 王城이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慰禮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侵高句麗 攻平壤城 … 王引軍退 移都漢山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니 … 왕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3) 河南慰禮城 위치 비정 諸說

1) 稷山說

‘慰禮城’ 稷山說은 ‘위례성’이 직산(현재의 천안 위례산성 일대)에 위치하였다는 설이다. 이 설은 고려시대 승려 一然이 『三國遺事』 王曆條에 “第一溫祚王 … 都慰禮城, 一云弛川 今稷山”이라 하여 온조왕의 첫 도읍지인 위례성을 직산에 비정한 이래 『高麗史』 지리지, 『世宗實錄』 지리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서 “本慰禮城 百濟王溫祚王 自卒本扶餘南奔 開國建都于此 … ”라 하여 충청도의 직산현을 온조왕이 처음 도읍으로 정한 위례성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조의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위례성 직산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의 위례성이 ‘하북위례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남위례성’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던 중 조선조 말 다산 정약용에 의해 백제의 初都地가 ‘하북위례성’이며, 그 위치가 삼각산 동록 일대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례성 직산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듯하다. 특히 현재로선 ‘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이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위례성 직산설은 거의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문헌 기록을 토대로 구 직산현의 동쪽에 위치한 天安의 慰禮山城을 백제 초기의 도읍지인 ‘위례성’으로 보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로 인해 학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대학교에서 이 곳을 1989년과 1995년의 시굴조사에 이어 1996년에 정밀 발굴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토석혼축성벽의 기저부에서 4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성벽 토루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들이 출토됨에 따라 현존하는 위례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구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보충 또

는 수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천안시 위례산성은 백제의 첫 도읍인 하남위례성이 아니라 인근의 성거산성 등과 함께 직산지방에 딸린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방어용 산성임이 분명해진 셈이다.²⁵⁾

2) 廣州古邑·春宮里 일대설

다산 정약용은 저서인 『여유당전서』에서 위례성의 하남 천도를 기정 사실화하며 위례성 직산설을 비판하고, ‘하남위례성’을 廣州 古邑의 宮村 일대에 비정하였다.²⁶⁾ 다산 정약용의 이러한 주장을 계기로 ‘하남위례성’에 관한 위치 논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광주고읍설은 이후 일본인학자 今西龍²⁷⁾ 등에 의해 주장되다가 하면, 方東仁²⁸⁾ 등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다.

이 설은 사실 다산에 앞서 『三國遺事』 王曆條 및 권2 南扶餘 前百濟條 등에서 “온조왕이 癸卯年(혹은 癸酉年)에 졸본부여로부터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14년 丙辰年에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는데, 곧 지금의 광주라”라고 전해오던 것으로, 이를 다산이 소위 ‘고골’로 불려지던 춘궁리 일대로 구체화함으로써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춘궁리 일대설이 힘을 받게 된 것은 李丙燾²⁹⁾의 주장 이후부터라 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남위례성의 정식 명칭이 한성이며, 한성을 춘궁리 일대로 보고 있다. 광주군 서부면의 춘궁리 일대는 그 지명과 더불어 4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인데다, 주변에서 古瓦와 柱礎石·佛像 등이 채집된 바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25) 서울大學校人文學研究所·天安市, 『天安 慰禮山城』, 1997.

26) 溫祚王十三年 徙都漢水之南 卽今之廣州古邑也 當時謂之河南慰禮城 … 溫祚舊宮本在廣州之古邑 謂之宮村 居民業種甘瓜 此則河南之慰禮也(『與猶堂全書』 疆域考 卷3 慰禮考).

27) 今西龍, 「百濟國都漢山考」 『百濟史研究』, 1934.

28) 方東仁, 「三國時代의 서울」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29) 李丙燾,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76.

하남위례성의 제일 후보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특히 金龍國³⁰⁾은 하남위례성을 한산인 남한산 아래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古史記錄이나 지리관계, 유적·유물 등으로 보아 하남위례성을 춘궁리를 중심으로 한 광주 ‘고골’ 일대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尹武炳³¹⁾은 구체적으로 二聖山城을 하남위례성의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한 바 있다.

이같이 하남위례성의 광주 고읍 춘궁리 일대설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으나 결정적으로 백제시대 초기의 유적 또는 유물임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즉 광주 고읍 일대의 유적 가운데 왕성으로 추정할 만한 백제 초기의 유적이 발견된 바 없으며, 그에 걸맞는 유물 또한 출토된 바 없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9차례에 걸쳐 한양대학교와 하남시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춘궁리 맞은편의 二聖山城에서는 비록 최근에 고구려 尺과 백제시대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초축 성벽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내부에서는 신라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³²⁾

2001년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실시한 天王寺址 시굴조사에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나,³³⁾ 연대의 검증이 필요한 형편이고, 비록 이것이 백제시대 기와라 하더라도 당시 이 지역이 백제의 영토였음이 분명한 이상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 관련 유물은 오히려 이 곳이 枕流王 2년의 “創佛寺於漢山” 기록의 漢山 일대에 속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30) 金龍國, 「河南慰禮城考」『郷土서울』 41, 1983.

31) 尹武炳, 「漢江流域에 있어서 百濟文化研究」『百濟研究』 15, 1984.

32) 漢陽大學校 博物館·河南省, 『二聖山城(第8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0. ; 漢陽大學校 博物館·河南省, 『二聖山城 第9次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2001.

3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하남 천왕사지 2차 시굴조사』, 2001.

있다. 한편 춘궁리 일대에는 천왕사지 외에도 桐寺址³⁴⁾가 있는데 비록 백제시대의 사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일대가 옛부터 사찰이 분포할 만한 좋은 입지를 갖추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결정적으로 춘궁리 일대는 온조왕 作都 기록의 하남위례성의 입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온조왕 원년조에 열 신하가 말하기를 이곳 하남의 땅은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라 기록하고 있는데, 춘궁리 일대는 과연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 남쪽으로는 남한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등지고 있어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는 기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지 조건과 앞서 살펴본 고고학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광주 고읍의 춘궁리 일대는 ‘하남위례성’으로 보기보다는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漢山’ 일대로 비정하는 편이 훨씬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夢村土城說

이상의 하남위례성 직산설과 광주고읍·춘궁리일대설이 다분히 문헌사적 또는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제기된 주장이라면 몽촌토성설은 실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송과구 방이동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88서울올림픽공원 조성을 계기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학교박물관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3세기 중·후반 경으로 볼 수 있는 판축성벽이 확인되

34) 桐寺址는 이성산 남쪽 고골 저수지 옆의 야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8년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상과 막새, ‘광주동사’ 명문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금당지 동편으로는 5층석탑과 3층석탑이 서 있다.(문명대 외, 『광주춘궁동동사지발굴조사보고서』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113~123쪽).

었고, 내부에서 적심건물지·수혈주거지·池塘址와 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성주탁·최몽룡·김기섭·이도학 등이 몽촌토성을 하남위례성으로 비정하였는데,³⁵⁾ 당시로서는 기존의 문헌사 연구 성과에 최신의 고고학적 자료를 접목시켜 내놓은 신선한 주장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나 최근의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계기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³⁶⁾

4) 風納土城說

한강변에 연한 풍납토성은 을축년(1925) 대홍수 때 東晉製 청동 초두를 비롯하여 과대금구·유리구슬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연유로 鮎貝房之進 등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기도 하였으나,³⁷⁾ 후속해서 별다른 주장이 뒷받침되지는 못하였으며, 국내 학자 가운데는 金廷學³⁸⁾이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개중에는 姜仁求³⁹⁾처럼 애초에 위례성은 하남위례성이며, 그것이 곧 풍납토성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편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1997년 실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풍납토성이 바로 하남

35) 成周鐸, 「漢江流域 百濟初期 城址研究」 『百濟研究』 14, 1984 ; 崔夢龍, 「夢村土城과 河南慰禮城」 『百濟研究』 19, 1988 ; 金起燮, 「百濟前期 都城에 관한 一考察」 『清溪史學』 7, 1990 ;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36) 申熙權, 「百濟 漢城期 都城制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2002.

37) 鮎貝房之進, 「百濟古都案内記」 『朝鮮』 234號, 1934.

38) 金廷學,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郷土서울』 39, 1981.

39) 姜仁求, 「百濟 初期 都城 問題 新考」 『韓國史研究』 81, 1993.

위례성이라는 주장이 새로이 제기되었으며,⁴⁰⁾ 실제로 그 해에 이루어진 풍납토성 내부의 발굴조사 결과는 풍납토성이 온조왕대 이래 한성백제 멸망시까지의 왕성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⁴¹⁾ 1999년의 성벽 발굴조사 결과는 풍납토성이 곧 하남위례성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⁴²⁾

이상 풍납토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발굴조사 성과를 통한 하남위례성의 비정 문제는 곧 이 글의 직접적인 주제에 해당되므로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校山洞土城說

하남위례성의 위치 비정 제설과 관련하여서는 소수나마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 일대의 토성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金侬禹는 백제 초기 기록의 ‘한산’을 하남시 하산곡동과 배알미동 사이에 위치한 검단산으로 보고, 검단산 아래의 교산동토성지를 하남위례성으로 비정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설의 근간에는 교산동토성이 길이 1.5km, 폭 1km, 내부 면적 45만평이 넘는 대규모에, 거대한 초석으로 이루어진 口字形 궁궐지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御用泉 등이 있다는 향토사학자 韓宗燮⁴⁴⁾의 견해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1999~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산동 건물지의 연대는 크게 9~12세기, 즉 몽고 침입 이전의 천왕사지와 관련된 지방호족 왕규를 중심으로 한 시기와 15~

40) 李亨求, 『서울 風納土城 [百濟 王城] 實測調査研究』,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7.

41)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 I-현대연합주택 및 1지구 재건축 부지』, 2001.

42)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 II-동벽 발굴조사 보고서-』, 2002.

43) 金侬禹,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考』 『史學志』 26, 1993.

44) 韓宗燮, 「百濟 建國地 河南慰禮城址의 究明에 대한 研究」(필자가 개별적으로 배부한 논문), 1992, 23~28쪽.

17세기 조선초 광주 분원의 성립과 발전, 강무장으로 활용된 광주와 관련된 2개의 시기로 비정되고 있다. 특히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이 9세기대의 주름무늬병편으로서 이를 근거로 건물지의 상한연대를 통일신라시대로 보고 있다.⁴⁵⁾

이상의 시굴조사 결과로 보건대 아직까지 이 일대에서 백제시대로 올라가는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음에 따라 교산동 건물지는 백제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하남위례성의 교산동토성 설은 현재로서는 그 근거를 상실한 셈이다.

3. 河南慰禮城과 風納土城

(1) 河南慰禮城의 입지와 風納土城

문헌 자료를 통해 하남위례성의 입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 배경을 설명한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條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온조왕 원년 조에는 하남위례성의 정도 과정을 기록하며 그 입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百濟始祖溫祚王 …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 溫祚都河南慰禮城

이를 풀어보면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가히 거할만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열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

45) 畿甸文化財研究院·河南市,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99)』, 2000. 100~103쪽.

를 “생각컨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으로 한수를 띠었고 동으로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 있으며 남으로 비옥한 들판이 보이고 서로 큰 바다가 막혔습니다” 하여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하남위례성 천도 배경은 온조왕 13년조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또한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都久安之計”라 하여 漢水 이남의 땅이 비옥함을 천도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하남위례성의 입지 조건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데, 잘라 말하면 바로 북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높은 산과 큰 바다로 막혀 있으며, 남쪽으로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하남위례성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지역으로는 현재 서울의 강남~송파~강동에 이르는 넓은 평야지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한강 이남의 지역 가운데 광주 고읍의 춘궁리 일대를 포함한 현재의 하남시 일원 또한 위 입지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곳으로서 하남위례성의 후보지로 지목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하남시 일원은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검단산을 의지하고 있어 온조왕조 기록의 하남위례성의 조건에 근접하나, 서쪽 또한 이성산과 금암산 등에 막혀 있으며, 남쪽으로도 비옥한 평야가 펼쳐 있기보다는 남한산 자락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요새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기록에 입각한 하남위례성의 입지 조건을 볼 때도 역시 제일 후보지로는 강남~강동 사이의 송파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원에는 이같은 조건을 뒷받침할 만한 토성유적 2개가 존재하는데,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그것이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결국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인 漢城의 중심지로 볼 수 있지만, 온조왕 천도 당시의 하남위례성은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곧 풍납토

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風納土城은 북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의 平地土城이다. 1925년(乙丑年) 대홍수 때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서벽 일부를 제외하고 북벽·동벽·남벽 등 약 2.1km 정도가 남아 있으며, 유실된 서벽을 포함한다면 대략 둘레 3.5km 정도의 거대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 약 3만 6천평을 포함한 토성의 면적은 총 26만평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토성의 외곽에는 성벽을 방어할 목적의 垓子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형적으로 풍납토성은 서북쪽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 동쪽의 평야와 얇은 구릉 끝으로 이성산과 검단산 등의 높은 산이 첩첩이 가로막혀 있다. 서쪽은 평야지대가 펼쳐진 가운데 서해로 이르며, 남쪽으로는 몽촌토성 등 남한산의 잔구를 제외하면 방이동·가락동을 거쳐 성남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도성의 입지 조건으로서는 더 없이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서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도성으로서의 조건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⁴⁶⁾ 즉, 한강변의 충적대지상에 위치한 관계로 강물의 잦은 범람에 따른 홍수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큰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고대의 도성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도성 입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즉 도성의 입지에 있어 큰 강은 재해 요소로서의 단점보다는 장점으로서의 조건이 훨씬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 분명한데, 이를 풍납토성과 한강의 관계에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으로 한강은 북방으로부터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서해에서 동쪽으로 춘천지방

46) 崔夢龍, 「夢村土城과 河南慰禮城」 『百濟研究』 19, 1988.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그만큼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풍납토성의 서쪽편에 해자를 파서 인공적인 방어시설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한강 자체가 해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대외 문물 교류의 핵심 루트이며, 물자 교역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수운을 이용한 서해로의 대외 진출과 외래 문물의 수입, 전국 각지로부터의 편리한 물자 운송은 한강이라는 큰 강의 존재에서 비롯된 특혜로 볼 수 있다. 비록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풍납토성의 바로 남쪽에 송파진과 강 건너 북쪽에 광진 등 조선시대의 중요 나루터가 있었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유사시에는 한강이 주요 도피로 역할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와 둘째 이유를 복합해 보면 세 번째 가정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선박 제조술 등이 뒷받침되어 원활한 수운이 확보될 경우 오히려 육로로의 탈출보다 훨씬 수월하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강과 인접하여 토성을 축조함으로써 파생되는 장점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의 지적과 같이 한강의 범람에 대비한 튼튼한 제방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백제 첫 도읍지로서 풍납토성에 대한 입지상의 문제점은 별다른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후술할 풍납토성의 견고하고 다양한 축조 기법은 풍납토성의 하남위례성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비록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당시 한강변을 따라 제방적 성격으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岩寺洞土城과 三成洞土城·龜山土城 등도 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한강을 타고 침략해 오는 적군으로부터 왕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실례로 풍납토성과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의 왕성 또는 도성의 입지를 비교하더라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성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集安의 國內城이나 樂浪의 樂浪土城, 慶州의 月城 등이 모두 강안에 위치하고 있어, 강가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큰 특징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성백제 멸망 이후의 웅진도성과 사비도성이 각기 금강과 백마강을 끼고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백제 한성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대 도성의 입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왕성과 인접한 곳에서의 왕릉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 역시 이러한 도성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초기 도성인 國內城 주변에는 丸都山城과 山城下古墳群이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신라의 月城 주변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高塚 고분이 산재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石村洞 古墳群을 비롯하여 芳荑洞 古墳群, 可樂洞 古墳群 등 대형 분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 풍납토성 일대가 당시 도성의 중심 영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風納土城의 연구 현황

풍납토성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25년(乙丑年) 8월 대홍수로 서벽이 유실될 당시 중국제 靑銅鏃斗를 비롯하여 耳飾金環·銅弩·白銅鏡·鈔帶金具·紫紺色 琉璃玉, 4구획 원문수막새 등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⁴⁷⁾

47) 을축년 홍수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博物館陳列品圖鑑』 제4집 ; 鮎貝房之進, 『百濟古都案内記』 『朝鮮』 234號, 1934, 115쪽 ; 京城

성 내부에서 이렇듯 중요한 유물이 출토됨으로 해서 당시의 일본인 학자들은 일찍부터 풍납토성을 백제 한성시대의 왕성으로 주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鮎貝房之進은 풍납토성을 그 입지상 『三國史記』 『百濟本記』 온조왕조의 作都 기록에 전주어 ‘하남위례성’으로 비정하였다.⁴⁸⁾

그러나 이후 李丙燾가 풍납토성의 지명을 근거로 하남위례성이 아닌 『三國史記』 『百濟本紀』 책계왕 원년조의 ‘蛇城’으로 비정함에 따라⁴⁹⁾ 우리 학계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64년 서울대학교 金元龍에 의해 풍납토성 내부 포함 층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져 백제시대의 주거면 2개층과 풍납리무문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 등이 발굴되었다. 그 결과로부터 풍납토성은 서기 1세기경 위례성과 거의 동시에 축성되어 475년까지 존속된 반민 반군적 읍성으로서, 개로왕 21년(475)에 고구려군이 남하하여 7일 동안 공격한 북성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⁵⁰⁾

이후 풍납토성의 역사지리적 검토를 통해 『東國文獻備考』와 『大東地志』 등에 나오는 坪古城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등이 간헐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⁵¹⁾ 풍납토성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電氣株式會社, 『京電ハイキングコース』, 1937, 19쪽 ; 龜田修一, 「考古學から見た百濟前期都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 京畿道誌編纂委員會, 『京畿道誌 下卷』, 1957, 806쪽.

48) 鮎貝房之進, 위의 논문, 115쪽.

49) 李丙燾, 「廣州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の 蛇城」 『震檀學報』 10號, 1939, 145~153쪽.

50) 金元龍,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第3冊, 1967.

51) 方東仁, 「風納里土城의 歷史地理的 檢討」 『白山學報』 16, 1974, 70~71쪽.

서울특별시의 대규모 성장과 함께 급속한 개발의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나 1997년 선문대학교李亨求가 풍납토성 실측조사 도중 토성 내부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백제토기 등 유물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풍납토성에서는 백제 한성시대의 역사를 새로 장식할 만한 중요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1997년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신대학교 박물관 등에서 실시한 풍납토성 내부 주거지와 건물지, 제사용 수혈 등의 중요 유구, 그리고 성벽 자체의 발굴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풍납토성이 곧 하남위례성일 가능성을 짚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남위례성의 실체를 고증하고자 한다.

4. 風納土城을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

(1) 風納土城內 주요 시설물

1) 육각형 수혈주거지

풍납토성 내부 발굴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유구로서 평면형태 6각형의 대형 수혈주거지를 들 수 있다. 6각형 주거지는 철기시대 이래 한강유역과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하게 발달한 ‘呂字形’ 또는 ‘凸字形’ 주거지가 계승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한강유역 전역과 임진·한탄강유역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풍납토성에서는 기존의 방형계 내지는 타원형계 주거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6각형계 주거지가 대규모로 정연하게 발굴됨으로 해서 단숨에 학계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6각형 주거지는 대체로 전면부에 방향의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며, 양 단벽과 장벽이 둔각으로 연결되고, 특히 후면부 단벽 중앙부가

돌출되어 마치 6각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같은 형태적 특징 외에도 주거지 후면부 동북벽 쪽에 터널형으로 축조된 부뚜막이 설치되고 있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판자와 기둥으로 이용한 벽체를 특징으로 한다.⁵²⁾

1997년 발굴조사에 밝혀진 풍납토성 내 6각형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중 가-2호와 가-3호 주거지는 탄화된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발굴되어 초기 백제시대의 주거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길이 10m, 폭 7m가 넘는 대규모에 평면형태가 세장한 6각형을 띠고 있으며, 남쪽 단벽에는 방형의 돌출된 출입구가 부속되어 있다. 주거지는 화재로 소실되어 탄화된 벽체 구조물과 架構 부재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우선 벽체 가장자리에 溝를 파고 15cm 남짓되는 촘촘한 간격으로 벽기둥을 세운 후 수혈 내부에 해당되는 아랫부분에 2단 이상의 가로대를 걸쳐 벽체를 지탱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후면부에서 북동쪽 단벽으로는 점토와 판석을 일부 섞어 만든 길이 2m 남짓의 터널형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변에서 일체의 생활용기들, 즉 시루·碗·鉢·短頸壺·大甕·뚜껑 등이 출토되었고, 그 밖에도 U자형 삽날·刀子 등 철기류와 망추차·어망추 등 土製品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5호 주거지는 출입구를 제외한 장축 길이 10.7m, 단축 폭 7.3m의 대형 수혈주거지로 마치 철성분이 깔린 듯 단단하게 바닥을 다졌는데, 내부에서 암키와편 2점, 상부에서 수막새 2점이 출토되었고, 일부 기둥구멍은 바닥에 받침돌이 깔려 있는 원시적인 초석의 형태를 띠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기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이 주거지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나-7호 주거지에서도 동일한 문양의 것이 출토되어 더

52) 申熙權,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 연구 -‘풍납동식 주거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육 주목된다.

기존에 한성백제시대 것으로 알려진 수막새로는 석촌동 4호분에서 출토된 4구획 원문수막새편과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편 정도가 고작인데 반해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막새류는 기하문 또는 草花文, 樹枝文, 素文, 4구획 원문 등 다양한 문양을 보이고 있다. 막새류를 포함한 풍납토성 출토 기와의 양식과 제작기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기대되나 대체로 이들이 웅진천도 이후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전국시대와 한나라·낙랑·고구려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⁵³⁾ 여하튼 풍납토성 출토 기와류는 기존의 백제시대 기와 가운데 가장 이른 형식과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풍납토성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앞서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그 위상면에서도 월등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6각형 주거지 외에도 토기 散布遺構와 폐기유구, 기타 수혈유구 등에서 풍납토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와류 외에도 전돌·토제 초석·토관 등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고, 특별히 토기 폐기유구에서는 청자편과 흑갈유병편 등 중국계 도자기류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지의 벽체를 가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달된 鑄造鐵斧 등의 철기류 역시 당시의 발달된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풍납토성 내에는 그동안 조사된 백제시대 수혈주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월등한 위상을 가진 주거지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6각형 주거지는 한강유역의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로 보건대 2~3세기대를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대

53) 崔孟植, 「風納土城 出土遺物の 性格 -기와를 중심으로-」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韓城大學校 開校 第74週年記念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2001.

는 방사성탄소연대 등의 절대연대 측정 결과로부터도 충분히 입증된다. 한편 오히려 층위상으로 6각형 주거지보다 이른 데다 기원 전후의 풍납동식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3중의 환호유구도 발견되었는데, 환호는 후술할 성벽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필수적인 유구로서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추론함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도자기류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토기 산포유구와 폐기유구 등은 대체로 4세기에서 5세기대 정도로 편년 가능하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존속 연대는 문헌상의 한성백제의 존속 연대와 상당히 근사함을 볼 수 있다.⁵⁴⁾

2) 대형 건물지와 특수 遺構

19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풍납토성 내부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소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저장공·구상유구·폐기장 등 220기에 달했는데,⁵⁵⁾ 그 가운데 조사지역 북측 경계지점에서 발견된 대형의 石造 건물지와 그 남쪽에 인접해 있는 대형의 제사용 수혈, 시유도기가 다량 안치되어 있는 수혈 등이 단연 주목된다.

대형 건물지는 현재 동-서 16m, 남-북 14m 이상의 방형 평면에 남측으로 한 번 3m 정도의 입구부가 연결된 몸자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북쪽 건물외곽은 口형의 溝가 감싸고 있는데 폭 1.5~1.8m, 깊이 1.2m 정도로 일정하며 바닥에 2~3중의 대형 판석이 깔려 있다. 발굴조사단은 이 유구가 치밀한 설계와 공력이 투입된 대형 구조물이란 점에서 특수 공공시설로 보고 있으며, 출입을 극도로 통제할 점, 건물의

54)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1.

55) 權五榮,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 성과」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대학교 開校 第74週年記念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2001.

내부와 외부를 溝로 차단한 점, 溝의 바닥에 판석과 정선된 甬을 깬 점, 화재로 폐기된 점, 유물이 거의 전무한 점 등을 들어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본래의 규모는 남-북으로 훨씬 긴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대형 건물지와 인접한 남쪽에서는 대형의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다. 길이 1,350cm, 폭 520cm, 깊이 300cm 이상의 장타원형인 이 수혈은 수 차례의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내부에서 실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인위적인 폐기 흔적이 보이는 수십 개체 이상의 고배·삼족기·뚜껑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발·완·뚝배기·직구단경호·기대 등의 다양한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大夫”와 “井”자가 새겨진 직구단경호 편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토기편 외에 12마리 분의 말 하악골과 다량의 유리구슬 등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단은 이 유구가 일반 폐기장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고, 인위적으로 파손한 소형 기종의 토기들이 대부분 완형으로 접합된다는 점, 명문토기가 2점 존재하는 점, 다량의 말뼈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성격의 제사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 대형 건물지와 제사 유구는 둘 다 국가적인 중대 祭儀 또는 제사와 관련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온조왕조에는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제사 관련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元年 夏五月 立東明王廟 (원년 여름 5월에 동명왕묘를 세웠다)

十七年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17년 여름 사월에 사당을 세우고 왕의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냈다)

二十年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20년 봄 이월에 왕이 큰 제단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三十八年 冬十月 王築大壇 祠天地 (38년 겨울 시월에 왕이 큰 제단을 쌓고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다)

Hi Seoul

SOUL OF ASIA

이상의 기사에서는 사당을 세우거나 또는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사당 내지는 제단의 모습이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건국 시조인 온조왕대부터 先王에 대한 제사를 극진히 받들었음을 보건대,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대형 건물지와 제사 유구가 왕성인 하남위례성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 西晉製 施釉陶器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수혈 유구도 보고되었다. 시행자와의 마찰로 인한 급작스런 발굴조사의 중단으로 비록 끝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유물을 수거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도 최소한 6개체 이상은 수습된 상태이다. 수혈의 성격은 확실치 않으나 440cm 이상×280cm의 장방형에 화재로 인해 소토와 벽체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으며 상부구조로 보이는 건축부재도 확인되었다. 시유도기와 함께 백제토기 大甕이 定置된 상태로 주저앉아 출토된 것으로 보아 시유도기와 대응을 격납한 시설로 보고 있다. 보고자는 이러한 시유도기를 西晉代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용도를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사여받은 위세품들을 담았던 용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으로 미루어 보건대 역시 풍납토성이 중국과의 대외 교섭의 중심지였으며, 출토된 시유도기의 양으로 볼 때도 기존의 夢村土城과 洪城 神今城에 비해 위상이 월등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향후 또 다른 중요 시설물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면적이 토성 내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다, 토성의 중심부쪽으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성의 중앙부쪽에서는 왕궁과 관청 건물지 등 왕성과 관련된 중요한 유구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는 토성 전체를 놓고 볼 때 토성의 외곽에 지배층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대형의 6각형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중심부에

가까운 경당연립부지에서는 대형의 석조 건물지와 제사 유구 등 특수한 유구가 발견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또한 풍납토성 내부에서 계획적인 공간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등장하는 ‘穿池造山’⁵⁶⁾, ‘宮南池’⁵⁷⁾ 등의 기록과 연관지어 보면 최근 토성 내부 서남쪽에 위치한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 재건축부지의 시굴조사에서 일정 범위에 걸쳐 발견된 두터운 뿔층이 왕성 내부에 조성된 인공 연못지의 흔적일 가능성도 상정해 볼 만하다.⁵⁸⁾

이상과 같이 최근 풍납토성에서는 기존의 백제시대 유적과는 차원이 다른 월등한 위상의 주거지·건물지·제사 유구 등이 발견되었고,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대한 양의 토기류, 특수한 문양의 막새를 포함한 기와류, 전돌과 초석, 토관 등의 토제품과 시유도기를 포함한 중국 도자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반 증거들을 볼 때 역시 풍납토성이 곧 백제의 첫 왕성인 하남위례성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2) 風納土城의 구조와 축조기법

1997년 풍납토성 내부에서 중요한 유구들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문

56) 辰斯王 七年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以養奇禽異卉(진사왕 7년 정월에 궁실을 중수하였으며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기이한 새를 기르며 색다른 화초를 가꾸었다).

57) 毗有王 二十一年 夏五月 宮南池中有火(비유왕 21년 여름 5월 궁궐 남쪽 연못에 화재가 있었다).

58) 申熙權, 「百濟 漢城期 都城制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3회문화재연구학술대회 논문집, 2002, 26쪽.

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에 대한 학술 및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획득, 활용코자 1999년 6월부터 10월까지 풍납토성의 동벽 2개 지점에 대한 절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성벽은 우선 생토층을 整地한 후 약 50cm 두께의 뽕을 깔아 기초를 다지고 하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중심부를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저부의 정지작업과 중심토루의 축조가 완료된 후에는 안쪽으로 사질토(Ⅱ토루)와 모래(Ⅲ토루), 점토다짐흙(Ⅳ토루)과 뽕흙(Ⅴ토루)을 위주로 한 판축토루를 비스듬하게 덧붙여 내벽을 축조하였다. 내벽 마지막 토루(Ⅵ) 상면에는 川石을 한 겹씩 깔아 3단으로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割石을 1.5m 이상 쌓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石列 및 石築은 토사의 흘러내림과 밀림을 방지하는 한편 배수의 기능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단의 川石列 사이의 의도적으로 돌을 깔지 않고 배수홈을 낸 것에서도 입증된다.

구조적으로 성벽은 크게 중심토루와 내벽, 외벽의 3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벽은 다시 Ⅳ토루 하단 川石列의 존재로부터 Ⅲ토루까지를 경계로 1차 성벽과 2차 성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각에서 출토된 토기편의 기술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심토루인 Ⅰ토루에서는 풍납동식 무문토기의 비중이 다른 토루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토성 내부 유구와 비교하면 유물상으로 3중 환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3중 환호가 사용될 당시에 토성의 중심부가 축조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토성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면서는 환호가 폐기되고 토성이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환호의 폐기시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Ⅲ토루까지는 중심토루와 함께 기원후 2세기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된다. 한편 증축된 내벽의 나머지 토루와 외벽 역시 출토유물상에서 연결 타날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3세기 중반 이후의 출현 토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보다

는 이른 시기인 3세기 전후에 축조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대는 성벽 내에서 출토된 목재와 토기편 등의 절대연대 측정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내벽 V토루의 목재 구조물에서 수습한 목재와 VI 토루 석축 하단에서 수습한 보강용 목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보정 연대가 검출되었고, 내벽 III토루의 목탄과 토기편의 방사성탄소연대와 열발광연대 역시 각각 중심연대가 3세기 초와 2세기 초로 나와 토기편의 상대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⁵⁹⁾

특이하게도 내벽 일부 구간에서는 식물유기체를 얇게 간 것이 10여 겹 이상 확인되는데, 빨흙을 10cm 정도 두께로 가져다 부은 후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등을 1cm 정도 깔고, 다시 빨흙을 까는 과정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토루를 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성벽의 축조에 식물유기체를 이용한 방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백제 고지인 金堤 碧骨堤와 扶餘 羅城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日本 九州의 水城, 大阪의 狹山池 등 제방 관련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⁶⁰⁾ 또한 식물유기체 4~5겹에 한 번씩 3단에 걸쳐 성벽의 횡방향으로 각재목을 놓고 수직목을 結構시켜 지탱한 구조물도 출토되었는데, 종간격 110cm 정도로 8렬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이러한 목재는 보강재로서의 木心 역할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한편 V토루 하단부 4단계의 석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성벽의 종방향을 따라 85cm 간격의 수직목이 확인되기도 하여 성벽 축조의 구획선 역할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심토루 외벽으로는 경사지게 떨어지는 자연층 위에 정지작업을

59) 申熙權, 「風納土城 築造年代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37, 2002.

60) 申熙權,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大學校 開校 第74週年記念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2001, 68~70쪽.

거처 판축법으로 토루를 쌓고, 내벽과 마찬가지로 상부에 割石 또는 川石을 깔아 마무리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석렬은 중심토루로부터 거의 동일한 거리에 축조되어 있어 계획된 축성 의도를 볼 수 있다. 이상 확인된 규모만 보더라도 성벽의 폭이 43m, 높이 11m가 넘는 대규모이고, 조사 구간이 협소하여 내외부로 확장 조사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로 내려가면서 그 규모가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풍납토성이 현존 국내 최대 규모의 판축 토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약 3.5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전구간을 축조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실로 대단한 공권력을 갖춘 國王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大役事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성벽의 구조와 축조 방법의 차이에 따라 정확한 작업량 산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인력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풍납토성의 축조에는 어림잡아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⁶¹⁾ 따라서 『三國志』 東夷傳 韓傳의 기록을 근거로 馬韓과 弁辰의 인구 규모가 一國당 평균 2,000戶 내외에 약 1만명 정도임을 감안하면,⁶²⁾ 풍납토성을 쌓기 위해 동원된 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대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百濟’라는 거대한 국가권력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풍납토성이야말로 첫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61) 唐代까지의 각종 체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通典』의 拒守法에 근거한 공역기준으로 풍납토성을 총길이 약 3,500m, 기부 폭 약 30m, 높이 8m, 상부 폭 15m로 가정한 상태에서 산출된 작업량이 약 1,050,000명의 공역임을 추산한 글이 발표된 바 있다.(朴淳發,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62) 金貞培, 『韓國古代的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5. 맺음말

이상 백제 한성시대의 실질적인 첫 도읍지라 할 수 있는 하남위례성과 관련된 제반 연구성과들을 검토한 후, 최근 발굴조사로부터 가장 강력한 하남위례성의 후보지로 떠오른 풍납토성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하남위례성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우선 『三國史記』 「百濟本紀」 온조왕 원년조에 묘사된 하남위례성의 입지와 그간 하남위례성의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직산, 광주고읍·춘궁리 일대, 몽촌토성, 교산동토성 등 제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북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남으로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이 하남위례성의 제일 후보지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風納土城은 1997년 이래의 발굴조사 결과 내부에서 16m 이상의 대형 石造 建物址와 祭祀 遺構, 그리고 대형의 6각형 주거지 등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수 유구들은 기존의 백제시대 유적에서 유례가 없던 것으로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판단된다. 특히 풍납토성에서 특징적으로 출토된 수막새와 전돌·초석·토관 등은 당시 일반 민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중요한 유물들로서 풍납토성의 특별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제 시유도기편과 도자기류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기도 하여 당시 풍납토성에서 행해졌던 활발한 대외 교류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후 1999년 실시된 풍납토성 동벽에 대한 절개조사 결과 풍납토성이 폭 43m, 높이 11m 에 달하는 3.5km 이상의 국내 최대 관축토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일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풍납토성의 축조는 성벽을 쌓는데만도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당시의 인구 규모와 사회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고대국가로서의 ‘百濟’ 왕권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역사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보아 풍납토성은 기원 전후부터 한성백제 멸망기인 5세기 후반대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등 과학적 절대연대로도 입증된다. 특히 성벽은 중심구간을 1차로 쌓기 시작하여 나머지 구간을 덧붙여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初築年代는 기원전 1세기~2세기대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고고학적 증거로부터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시대의 첫 왕성인 ‘河南慰禮城’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성백제 도성으로의 조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한강의 범람 방지 및 왕성 방어를 위해 제방적 성격으로 축조한 삼성동~암사동에 이르는 토성의 흔적을 들 수 있다. 또한 풍납토성 서남쪽에 조성된 석촌동·방이동·가락동 등의 왕릉급 고분군도 풍납토성의 왕성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이 밖에 삼국시대 도성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평지에 축조된 왕성을 방어하기 위한 배후 산성의 존재인데,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풍납토성 동쪽과 남쪽의 배후로도 전략적 요새로서의 二聖山城과 南漢山城 등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지된다.

한편 풍납토성으로 비정되는 하남위례성의 축조 이후 꾸준한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를 도모한 백제는 고구려와 낙랑·말갈 등 북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3세기 중·후반경 전략적 요충지로서 夢村土城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확대 정비된 도성이 곧 責稽王~比流王대에 등장하는 ‘漢城’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구조가 한성백제의 멸망시인 蓋鹵王代까지 이어져 ‘北城’과 ‘南城’의 구조로 묘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풍납토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하남위례성의 실체를 고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강동·송파 일원과 하남·광주 등에서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가 계속적으로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남위례성과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 『三國史記』 등 삼국시대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한성시대의 왕성인 하남위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고고학적 성과와 문헌 기록에 대한 비교 연구는 물론이고, 한성시대 이후의 웅진시대·사비시대, 인접국가인 고구려·신라의 도성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삼국시대 도성제의 모태가 된 중국의 도성제와도 종합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의 재고찰

- 放鶴洞土城과 河南省 고골을 중심으로 -

吳 舜 濟*

1. 서론
2. 河北慰禮城의 재고찰
 - (1) 河北慰禮城과 放鶴洞土城
 - (2) 河北慰禮城인 放鶴洞土城의 도성방위체제
3. 河南慰禮城의 재고찰
 - (1) 백제 초기 도성인 漢城의 도시구조
 - (2) 하남시 고골 일대의 전통신앙유적과 사찰
4. 백제 초기 도성인 漢城의 방위체제
5. 결론

1. 서론

百濟時代를 漢城時期(B.C.18~475), 熊津時期(475~538), 泗泚時期(538~660)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¹⁾ 500여년에 걸친 한성시기는 680여년의 시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성시기에는 河北慰禮城 → 河南慰禮城 → 漢山 → 漢城 등으로 수도가 변천되어 왔으나, 전 시기를 통틀어 한성시기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 명지대학교 기록과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객원교수

1) 金元龍, 『改訂新版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9, 150~151쪽.

한성시기의 백제는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으며, 근초고왕 때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깃발을 사용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정도로 강력한 정복국가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西海大島인 강화도를 발판으로 수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遼西·揚子江 하구지역으로 뻗어 나갔으며,²⁾ 倭國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백제의 성장은 곧 왕권의 강화에 기초를 둔 것이며, 그것은 도성경영의 완비에 따른 국력의 축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당시 고구려의 도성유적은 중국 遼寧省 桓仁縣의 五女山城, 吉林省 集安縣의 國內城, 平壤의 安鶴宮城·長安城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⁴⁾ 그러나 백제 한성시기의 수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대두되어 아직도 구체적으로 도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河北慰禮城은 면목동⁵⁾·정릉⁶⁾·세검정⁷⁾·직산⁸⁾·상계동⁹⁾·미아

2)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3, 白山學會, 1967. ;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 白山學會, 1967. ; 李明揆, 「百濟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考察」 『史學研究』 37, 韓國史學會, 1983.

3)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4) 魏存成, 「高句麗 初·中期的 都城」 『北方文物』, 1985.2. ; 車勇杰, 「高句麗前期의 都城」 『國史館論叢』 48, 國史編纂委員會, 1993. ; 車勇杰, 「高句麗의 都市와 城郭」 『高句麗의 考古文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申滢植, 『集安 高句麗遺蹟의 調査研究』, 國史編纂委員會, 1996. ; 申滢植, 「高句麗의 都城體制와 그 克服」 『韓國古代史』, 三英社, 1999. ; 김일성종합대학, 『대성산성의 고구려유적』, 1973. ; 이화선, 『조선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5)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1)」 『郷土서울』 3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1. ; 成周鐸, 「百濟城址研究-都城址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通해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史論叢』, 정음문화사, 1985. ; 金侖禹, 「河北慰禮城과 河南慰

리와 우이동¹⁰⁾·방학동토성¹¹⁾ 등으로 비정되고, 河南慰禮城은 풍납토성¹²⁾·몽촌토성¹³⁾·하남시 고골의 춘궁동¹⁴⁾·이성산성¹⁵⁾·하사

禮城考』『史學志』第26輯, 檀國大學校 史學會, 1993, 88쪽.

- 6) 丁若鏞, 『與猶堂全書』第6集, 疆域考, 卷3. “慰禮故址盖在今京城東北十里之地三角山之東麓居民誤謂之漢陽古縣”
- 7)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8) 安鼎福, 『東史綱目』附錄 卷下, 「地理考」 百濟疆域考 ; 申景濬, 『旅菴全書』卷5, 「疆界考」國都 ; 金在鵬, 「百濟舊都稷山考」『朝鮮學報』70, 朝鮮學會, 1974 ; 鄭東和, 「百濟慰禮城研究」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9) 鄭永鎬, 「서울의 百濟文化」『第5回 馬韓·百濟文化學術會議 - 百濟文化研究의 現況課題-』,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8.
- 10) 金龍國, 「河南慰禮城考」『鄉土서울』4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3.
- 11) 韓宗燮, 『慰禮城百濟史』, 集文堂, 1994 ; 吳舜濟, 『漢城百濟史』, 集文堂, 1995.
- 12) 鮎貝房之進, 「百濟古都案内記」『朝鮮』234號, 朝鮮總督府, 1934. 11. ; 中村春壽, 『日韓古代都市計劃』, 大典出版社, 1978. ; 金廷鶴, 「서울近郊의 百濟遺蹟」『鄉土서울』3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1, 16~17쪽. ; 井上秀雄, 「朝鮮의 都城」『日本の 古代都市』, 1982. ; 成周鐸, 앞의 논문, 1984.
- 13) 李基白, 「百濟文化 學術會議錄」『百濟文化』7·8, 公州師範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5. ; 鄭永鎬, 앞의 논문, 1978. ; 成周鐸, 앞의 논문, 1984. ; 崔夢龍·權五榮, 앞의 논문, 1985. ; 李道學, 『百濟古代國家研究』, 一志社, 1995, 274~275쪽. ; 金起燮, 「百濟前期都城에 관한 一考察」『清溪史學』7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68쪽. ; 朴淳發, 「百濟國家形成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 朴賢淑,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31쪽.
- 14) 丁若鏞, 앞의 책. ; 李丙燾, 앞의 책, 1976. ; 李弘植, 「백제건국에 관한 제문제」『국사상의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1960. ; 金龍國, 앞의 논문, 1983.

창동¹⁶) · 교산동토성¹⁷) · 남한산성¹⁸) 등으로 보았으며, 漢山은 이성산성¹⁹) · 북한산성²⁰) · 검단산²¹) · 남한산성²²) 등으로 비정되고 있고, 漢城은 북한산성²³) · 풍납토성과 남한산성²⁴) · 풍납토성과 몽촌토성²⁵) · 춘궁동²⁶) · 몽촌토성과 이성산성²⁷) · 이성산성과 남한산성²⁸) ·

-
- 15) 洪敬謨, 『南漢誌』, 山川·城池條. ; 尹武炳, 「漢江流域에 있어서의 百濟文化研究」 『第2回 百濟研究國際學術大會』,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4. ; 車勇杰, 앞의 논문, 1981.
 - 16) 鮎貝房之進, 앞의 논문, 1934, 110쪽.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 17) 韓宗燮, 「百濟建國地 河南慰禮城址의 糾明에 對한 研究」 『第7回 全國郷土文化研究發表 受賞資料集』, 韓國文化院聯合會, 1992. ; 金侖禹, 앞의 논문, 1993, 89~103쪽. ; 吳舜濟, 앞의 책, 1995.
 - 18) 津田左右吉, 「百濟慰禮城考」 『朝鮮歷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19) 崔夢龍·權五榮, 앞의 논문, 1985.
 - 20) 申景濬, 앞의 책. ; 李道學, 앞의 책, 1995, 260~316쪽.
 - 21) 金侖禹, 앞의 논문, 1993, 100쪽.
 - 22) 津田左右吉, 「百濟慰禮城考」 『朝鮮歷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今西龍, 『百濟史研究』, 1934. ; 金映遂, 「百濟國都變遷에 對하여」 『全北大論文集』1, 全北大學校, 1957, 32~36쪽. ; 李弘植, 앞의 논문, 1960. ; 矢守一彦, 「朝鮮の都城と邑城」 『都市フ・ラソの研究』, 1970. ; 李丙燾, 앞의 책, 1976.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3, 1976. ; 藤島亥治郎, 「朝鮮三國時代の都市と城」 『朝鮮三國と倭國』, 1980. ; 金廷鶴, 앞의 논문, 1981. ; 車勇杰, 앞의 논문, 1981, 51쪽. ; 金龍國, 앞의 논문, 1983. ; 金起燮, 앞의 논문, 1990, 68쪽. ; 吳舜濟, 앞의 책, 1995. ; 朴賢淑, 앞의 논문, 1996, 32쪽.
 - 23) 申景濬, 앞의 책.
 - 24) 矢守一彦, 「朝鮮の都城と邑城」 『都市フ・ラソの研究』, 1970, 216~223쪽.
 - 25) 金起燮, 앞의 논문, 1990, 68쪽. ; 李道學, 앞의 책, 1995, 280쪽.
 - 26) 金龍國, 앞의 논문, 1983. ; 成周鐸, 앞의 논문, 1985. ; 崔夢

교산동토성과 남한산성²⁹⁾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백제 한성시기 도성의 위치비정설

항 목	위 치	주장하는 학자	
河北慰禮城	면목동설	車勇杰, 成周鐸, 崔夢龍·權五榮, 金侬禹, 金起燮	
	정릉	丁若鏞	
	세검정	李丙燾, 金廷鶴(北漢山城)	
	서울 강북	李弘植, 方東仁, 成周鐸, 千寬宇, 李道學	
	직산	安鼎福, 申景濬, 金在鵬, 鄭東和	
	고양	金映遂	
	풍납토성	姜仁求	
	미아리·우이동	金龍國	
	상계동	鄭永鎬	
河南慰禮城	방학동토성	韓宗燮, 吳舜濟	
	풍납토성	鮎貝房之進, 中村春壽, 金廷鶴, 井上秀雄, 成周鐸	
	몽촌토성	李基白, 鄭永鎬, 成周鐸, 崔夢龍, 權五榮, 李道學, 金起燮, 朴淳發, 朴賢淑	
	하남시 고골	고골	安鼎福, 今西龍
		남한산성	津田左右吉
		이성산성	洪敬謨, 尹武炳, 車龍杰
		춘궁동	丁若鏞, 李丙燾, 李弘植, 金龍國
		하사창동	鮎貝房之進
교산동토성 +이성산성	韓宗燮, 吳舜濟, 金侬禹		

龍·權五榮, 앞의 논문, 1985.

27) 車勇杰, 앞의 논문, 1981.

28) 한인호, 『조선중세건축유적연구-삼국편-』, 사회과학출판사, 1995, 28~36쪽.

29) 吳舜濟, 앞의 책, 1995. ; 吳舜濟, 『百濟 漢城時期 都城體制의 研究』, 明知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항 목	위 치	주장하는 학자
漢山	이성산성	崔夢龍 · 權五榮
	북한산성	申景濬, 李道學
	검단산	金侖禹
	남한산성	津田左右吉, 今西龍, 金映遂, 李弘植, 矢守一彦, 李丙燾, 千寬宇, 藤島亥治郎, 金廷鶴, 車勇杰, 金龍國, 金起燮, 吳舜濟, 朴賢淑
漢城	북한산성	申景濬
	한양설	安鼎福, 丁若鏞
	풍납토성+남한산성	矢守一彦
	몽촌토성과 이성산성 중간	車勇杰
	풍납토성+몽촌토성	李道學, 金起燮
	춘궁동	金龍國, 成周鐸, 崔夢龍 · 權五榮
	이성산성+남한산성	한인호
고골(교산동토성 · 이 성산성)+남한산성	吳舜濟	

그리고 都城體制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운영실정을 파악하는데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
웅진시대나 부여시대는 그 당시 수도가 공주나 부여라는 사실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도시구조도 잘 드러나 있다.³⁰⁾ 그러나 한성지역

30) 安承周, 「公山城에 대하여」, 『考古美術』 138 · 139 合, 韓國美術史學
會, 1978. ; 洪再善, 「百濟 泗泚城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 成周鐸, 「百濟 泗泚都城 研究」, 『百濟研究』13, 忠南大
學校 百濟研究所, 1982. ; 安承周, 「公州 公山城에 대하여」, 『文化財』
17, 文化財管理局, 1984. ; 尹武炳, 「山城 · 王城 · 泗泚都城」, 『百濟
研究』2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0. ; 兪元載, 「웅진도성의 나
성문제」, 『호서사학』19 · 20합, 호서사학회, 1992. ; 兪元載, 「웅진
도성의 5부 문제」, 『민족문화의 제문제』, 于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
刊行會 編, 1994. ; 尹武炳, 「百濟王都 泗泚城研究」, 『學術院論文集-

은 몽촌토성·풍납토성과 삼성토성을 연계하여 도성체제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으나³¹⁾ 그 위치 자체가 불확실하기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防禦體制의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구려의 경우 이미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백제도 공주나 부여지역은 수도 외곽의 성곽 및 나성이 밝혀져 있어 도성방위체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³²⁾ 그러나 한성시기에는 도성방위체제를 하남시 고골의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나³³⁾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 하남시 고골에서 확인된 대형 건물지와 집중된 사찰지 및 제사유적들은 古代에 있어서 王都로서의 면모를 잘 반영하고 있어 이곳이 백제초기 도성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물론 문헌과 고대도시 구조이론에 입각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이성산성이 신라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³⁴⁾ 최근에는 백제시대의 산성을 비롯하여 막새와당·토기·벼루편

人文社會科學編-』33, 大韓民國學術院, 1994. ; 成周鐸, 「百濟 熊津城」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6. ; 朴淳發, 「泗泚都城의 構造-羅城 構造를 中心으로-」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0. ; 成周鐸, 「泗泚都城과 百濟의 城郭」 위의 책, 2000.

- 31)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9, 韓國上古史學會, 1992. ; 李道學, 『百濟古代國家研究』, 一志社, 1995.
- 32) 유원재, 「웅진도성의 방비체제에 대하여」 『충남사학』1, 충남사학회, 1985. ; 유원재, 「사비도성의 방비체제에 대하여」 『공주교대논총』 23집, 공주교육대학교, 1987. ; 田中重明, 「百濟後期 王都泗泚의 防禦體系」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0.
- 33) 方東仁, 「風納里土城의 歷史地理的 檢討」 『白山學報』 第16號, 白山學會, 1974.
- 34) 沈光注, 『二聖山城에 대한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

등이 발견되어³⁵⁾ 이 성이 백제시대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이와 아울러 금암산마애불은 백제의 태안마애불과 같아 백제시대의 불상임을 알 수 있으며, 목탑 심초석이 2개나 나온 천왕사에서는 백제시대의 숫막새가 나와 이곳이 백제에 불교가 전해질 당시에 건립된 백제시대의 절터였음이 드러났다.³⁶⁾ 더구나 남한산성에서 석성 안쪽에 토성이 발굴되었고 행궁지에서도 백제시대의 토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어,³⁷⁾ 이곳 또한 백제시대에 쓰였던 산성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한성시기 하북위례성은 방학동토성, 하남위례성은 하남시 고골, 漢山은 “큰산[大山]”이라는 의미로 남한산성, 漢城은 한산인 남한산성과 하남위례성인 하남시 고골 일대를 감싸안고 있는 “큰성[大城]”³⁸⁾이라는 의미의 거대한 도시 전체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하남위례성에 대한 위치와 구조에 대한 해명은 초기 백제사 연구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리고 미진한 연구는 계속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도성체제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더욱 진척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文, 1988.

35)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8次 發掘調査報告書』, 2000.

36) 최몽룡,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제3회 문화재연구학술대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0. 5. 15.

37) 土地博物館, 『南漢山城 行宮址 4次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 2001. 11.

38)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條 “百濟記云蓋鹵王乙卯年冬貊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王城降陷遂失慰禮國”

2. 河北慰禮城의 재고찰

(1) 河北慰禮城과 放鶴洞土城

1) 하북위례성 위치 비정의 諸說

하북위례성이란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濫祚王 卽位年條에 기록된 하남위례성에 대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河北”이라든지 “河南”이란 용어는 온조·비류의 집단이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곳이 漢江 이북이었다는 의미에서 “하북”, 도읍을 한강 남쪽으로 옮긴데 연유하여 “하남”이라 이름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례성”이란 그들의 도성형태에 연유하여 이름 붙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약용은 慰禮=圍哩=성곽으로 “울타리”, “울”, “담장”을 뜻하고 있어 “위례”는 “울타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

백제가 처음부터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보지만, 정약용은 온조가 처음부터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강의 북쪽의 하북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으며, 그가 負兒岳에 올라간 것 또한 즉위 원년이 아니라 낙랑과 말갈의 끊임없는 공격을 피해 새로운 도시를 물색하기 위해 13년에 부아악에 올라가 강 남쪽을 바라보고 그곳을 시찰한 후, 그곳에 柵을 만들고 천도를 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후 이것은 정설화되어 왔다.

이러한 하북위례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면 직산, 정릉, 고양, 서울의 강북지역, 세검정, 북한산성, 상계동, 우이동, 면목동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면목동·중곡동설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

면목동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면목동에서 백제시대의 횡혈식 석실분이 발견되었고,³⁹⁾ 峨嵯山과 龍馬山에 많은 보루들이 존재⁴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土壘들은 고구려가 쌓은 보루라

39)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2~3쪽.

는 것이 서울대학교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것이 만약 온조 당시의 유적이라 할지라도 높은 용마산과 아차산을 등지고 있어 초기의 작은 세력으로서 그 큰 산을 지키기 어렵다. 더구나 중랑천변은 북으로부터 하천을 끼고 발달한 퇴적된 벌판으로 교통이 원활하여 적이 공격하기 쉬워 지리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정릉·삼양동 부근으로 보고 있는 설은 북한산의 주봉이 백운대이므로 삼각산의 東麓이 아니라 南麓에 해당되어 불합리하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고대의 건물지나 성터 등이 조사되어 보고된 바 없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필자는 三角山 동쪽의 한중섭이 찾은 도봉구 방학동의 방학동토성으로 비정하고자 한다.⁴¹⁾

2) 방학동토성과 “巖”자바위



방학동토성 내부와 초석

放鶴洞土城은 도봉구 방학동의 연산군묘 부근에 있는 시루봉을 서남쪽에 두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분지이다. 이 분지를 둘러쌓고 토루들이 남아 있으며, 그 안의 절터에서 백제계의 회백색

연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고, 토성의 북문에는 엇갈린 형태의 초기 웅성이 남아 있다.

40) 崔鍾澤, 「京畿北部地域の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山城과 防禦體系(제5회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회, 1999.

41) 한중섭, 『慰禮城百濟史』, 1994.

이곳에서 서북쪽 정상부에는 ‘해 가는 길’을 의미하는 “曦”자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놓여져 있는데, 이 바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도봉산, 서로는 북한산의 백운대, 동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 남으로는 시루봉이 배치되어 있다. 백제는 부여의 후예인데, 부여는 왕의 성으로서 태양을 상징하는 “解”씨를 썼으며, 고대에 태양은 왕을 상징하였다. 이곳의 엄자바위 뿐만 아니라 하남위례성으로 보는 하남시 고골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해가 떠오르는 산’이라는 뜻의 日門山으로 불리우던 黔丹山, 남쪽에는 ‘해가 하루종일 비치는 산’이라는 뜻의 日長山인 淸涼山이 배치되어 있어 이것 역시 태양숭배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曦”자바위

이곳 엄자바위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불암산 정상의 북쪽에 제단유적⁴²⁾이 남아 있고, 북쪽에는 의정부 호원동의 회암사 북쪽 산자락에 석굴암이라는 동굴유적과 삼성재에 제단유적과 별자리바위가 남아 있다.⁴³⁾ 서쪽으로는 북한산 인수봉 동쪽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부아암에 “眞岩祭壘”라는 제사유적이 海東地圖⁴⁴⁾에 표기되어 있다. 이 곳의 서쪽 연장선상으로는 북한산 원효봉 아래 덕암사라는 절터에 동굴유적이

42) 吳舜濟, 앞의 책, 1995.

43) 安國承, 「臨津江·漢灘江流域을 中心으로 한 城郭과 百濟積石塚에 대한 考察」, 『경기향토사학』,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9, 384쪽.

44) 楊州牧, 『海東地圖』 卷1, 奎章閣 所藏本, 1750年 製作.

남아 있으며, 그 연장선상으로는 서삼릉 입구에 黔岩과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대형 고분이 남아 있다. 특히 검암은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부분이 고분을 향하고 있어 이 고분이 그 당시 매우 높은 신분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는 廣輿圖⁴⁵⁾에 “鐘巖”과 함께 “祭堡”가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고려대학교 부근에 “제터고개”와 “북바위”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제사를 지냈던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북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방학동 토성의 엄자바위를 중심으로 사방에 전통신앙유적들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는 하남시 고골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아악과 북한산

방학동토성은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의 동쪽에 존재하고 있다. 온

<그림 1> 향림사(自都城之三江圖)



조왕이 낙랑과 말갈의 침략으로 편할 날이 없자 재위 13년에 반드시 도읍을 옮기고자 負兒岳에 올라 도읍을 정할 곳을 찾았는데, 하남의 지형이 “북은 漢水를 띠고 동쪽은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은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바다에 격하였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온조왕 스스로 나서서 한수의 남쪽을 두루 돌아 보고는 그곳의 땅이 기름져 마땅히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자

45) 楊州牧, 廣輿圖, 奎章閣 所藏, 19世紀 製作.

한 것이다. 즉 그 당시 하북위례성 지역에서 가장 높고 조망하기 좋은 해발 837m의 백운대에 올라 廣州의 서쪽 평야를 바라본 것이다.

먼저 온조왕이 올라갔던 부아악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하여 그 곳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三國史記』, 卷32, 雜志, 祭祀條에 “북한산주에 있는 부아악에서 小祀를 지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그 이후에 『高麗史』, 卷56, 地理

志, 楊州條에는 “양주는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으로 남평양이라고도

<그림 3> 負兒岳(都城圖)



불려졌고, 삼각산이 있는데 이 산이 신라 때에 負兒岳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高麗史』 世家, 卷4, 顯宗條에는 태조의 梓宮을 부아악 香林寺로 두번이나 옮겼다고 하였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佛宇條에는 “향림사는 삼각산에 있는데 고려 현종 무술년의 난으로 태조의 재궁을 이 절로 옮겼다가 7년에 현릉으로 다시 모셨으나 9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다시 옮겼다가 10년에 현릉으로 다시 모셨다”고 되어 있다. 『大東地志』, 卷1, 漢城府, 山水條에는 “삼각산은 한성부의 북쪽

<그림 2> 향림폭포(大東輿地圖)



불려졌고, 삼각산이 있는데 이 산이 신라 때에 負兒岳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高麗史』 世家, 卷4, 顯宗條에는 태조의 梓宮을 부아악 香林寺로 두번이나 옮겼다고 하였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佛宇條에는 “향림사는 삼각산에 있는데 고려 현종 무술년의 난으로 태조의 재궁을 이 절로 옮겼다가 7년에 현릉으로 다시 모셨으나 9년에 거



부아암[독바위]

15리에 있는데 백제 때에는 負兒岳 또는 橫岳·華山 등으로 불려졌다”고 하였다. 申景濬은 『旅菴全書』에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삼각산은 국도의 진산으로 서울의 북쪽 30리에 있는데, 산이 석봉으로 되어 있어 그 상봉을 백운이라 하며 그 옆에는 국망·인수의 세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이 우뚝서서 구름 위로 솟아올라 있기에 삼각산이라 칭하며 일

명 화산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이라 칭했는데 그것은 상봉의 배후에 석봉이 가까이 붙어 있어 마치 아기를 업은 것과 같은 형상이므로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四山禁標圖』에 우이천의 좌측 상류인 漕溪가 갈딱고개 밑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언덕 너머 삼각산의 우측 밑에 負兒岩이 그려져 있고, 『都城圖』에는 삼각산 우측 밑에 자그마한 負兒岳이 그려져 있다. 그곳을 답사해 갈딱고개에서 인수봉쪽을 보니, 그 바로 아래에 향아리를 옆으로 뉘어 놓은 듯한 바위가 있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인수봉 동쪽 독과 같이 얹혀져있는 독[甕·獨]바위”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봉의 배후에 아기를 업은 것과 같이 가까이 붙어 있는 석봉”이라고 말한 부아암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正浩는 『大東地志』에서 삼각산을 횡악으로 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곳을 매우 신성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 때에도 中祠 중에 물가인 四瀆에 대한 제사가 漢山河

(용진, 광진교 부근), 小祠가 부아악(삼각산,북한산)에서 행해져 왔다. 즉 방학동토성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2) 河北慰禮城인 放鶴洞土城의 도성방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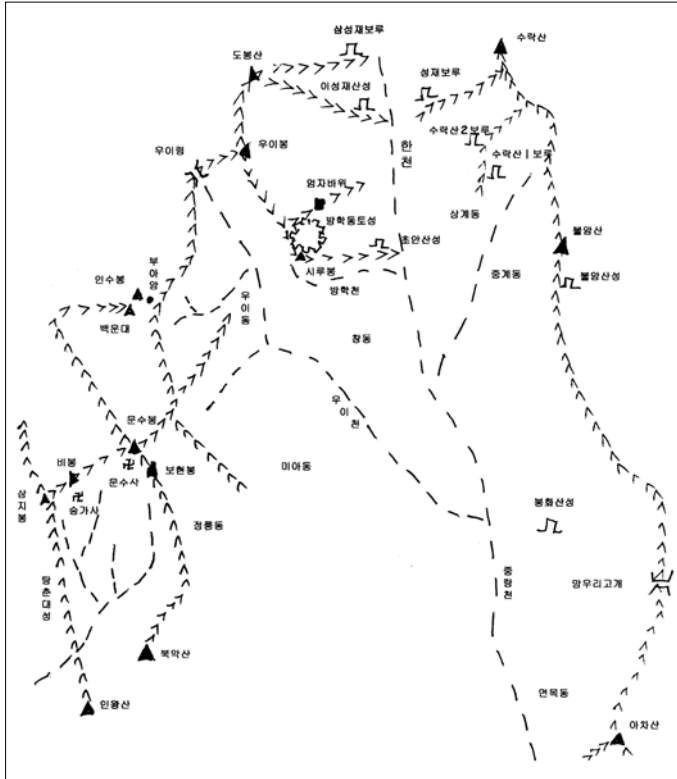
방학동토성이 자리잡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면 동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아차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고, 그 가운데는 ‘한내’ 또는 ‘漢川’이라고 불리우던 중랑천이 흐르는 곳에 드넓은 마들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곳의 방어체제는 서쪽에 위치한 수락산에 남양주 쪽에서 넘어오는 덕릉고개쪽을 지키는 보루와 북쪽인 의정부쪽을 지키는 2개의 보루를 설치하였고, 그 서남쪽에는 불암산성을 쌓아 남양주 쪽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방학동토성의 북쪽으로는 의정부의 회룡사 계곡을 끼고 사패산 동쪽 마지막 봉우리에 삼성재보루가 있다. 그 건너편에는 이성재산성이 자리잡고 있고, 이 산성에서 동쪽으로 중랑천과 서울~의정부간 3번 국도 건너편 작은 야산의 정상에는 성재보루가 있어 포천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있다. 특히 성재보루에서 이성재산성쪽으로 중랑천을 가로지른 土壘가 남아 있어 중랑천을 끼고 쳐들어 오는 적을 막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당시의 낙랑과 말갈의 공격방향인 북쪽과 동쪽에 대한 방어체제를 위와 같이 구성하였던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성이 함락될 경우, 우이령고개를 퇴로로 이용하여 송추쪽으로 빠져 나갔거나 북한산의 능선을 타고 북한산성쪽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 송추 지역에는 기산리보루가 있으며, 그 전초기지는 노고산보루가 있다. 경희대학교 박물관에는 송추에서 나온 백제토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삼양동 부근에서는 백제시대의 금동불이 나오고 있어 이 지역이 백제시대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Hi Seoul

SOUL OF ASIA

<그림 4> 하북위례성(방학동토성)의 도성방위체제



온조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후에는 이곳이 慰禮城 또는 北漢城으로 불려졌음을 볼 때 북한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잡은 파주·고양을 거쳐 쳐들어오는 적을 막았던 북한산성과 함께 동쪽의 의정부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責稽王 때에는 한수의 동북지역 주민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약용은 이것을 남양주의 평구(平丘 : 미금시), 용진(龍津 : 양수리), 토원(兔院 : 퇴계원)⁴⁶⁾ 등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북위례성을

수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북위례성은 이들과 가까운 곳인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책계왕 이후 『三國史記』의 기록에는 하북위례성에 대한 기록은 없고 北漢城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의 남쪽에 있던 漢城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어져 부르게 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후일 도읍이 한성으로 바뀐 후에는 남쪽의 한성에 대칭되어 “북쪽에 있는 한성”이라는 뜻으로 ‘北漢城’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이 성이 강 남쪽의 한성인 “南漢城”에 대한 대칭으로써 북한성으로 불려졌다면 ‘남한성+남한산성’에 대한 ‘북한성+북한산성’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운영되어졌을 것이고, 이 당시 북한산성이 이곳의 피난성으로 쓰였을 것이다.

3. 河南慰禮城의 재고찰

(1) 백제 초기도성인 漢城의 도시구조

고대사회에 있어서 王都는 지배자의 거처인 王宮과 각종 중앙관청 및 王京人들이 거주하였던 당시 정치·사회·문화·종교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통치구조상 전국적인 육상과 수상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이곳에는 우선 화려한 궁정시설과 각종 중앙 관부의 유지가 집중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도로망·수로망이 분포되어야 하며 왕권의 권위와 天祭를 위한 여러 가지 祠堂·寺刹의 건물지가 포진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 세계[宇宙]의 중심지이며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의 원형이 되는 고대의 市는 원래 祭壇과 井으로부터 발생하여⁴⁷⁾ 降神·祭禮·集會의 장소였고,⁴⁸⁾ 이들은 후일 상업의 중심지구

4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경기편 상)』 17, 1985.

로 발전하게 되었다.⁴⁹⁾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神市라는 도시가 있었음을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접할 수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는 B.C. 4000~3000년의 紅山文化에서는 神殿과 積石塚·石槨墓 등의 고분군 그리고 城郭들이 나타나고 있어,⁵⁰⁾ 이곳에서도 신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왕궁의 좌우에 大屋을 지어 鬼神·靈臺·社稷에 제사를 지냈고, 그 동쪽에는 큰 동굴이 있어 隧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중국의 고대도시는 왕과 제후의 궁전·종묘를 중심으로 지배자와 생산에 종사하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것을 城이라고 하였으며, 인가가 성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것을 다시 둘러쌓은 성벽을 郭이라고 했다. 그리고 周나라에서 수도를 건설하는 형식은 거대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都城의 중앙에는 궁전과 政廳을 짓고, 그 좌측에 조상의 종묘, 우측에 사직을 짓고, 그 뒤에는 시장을 두는 방식이었다.⁵¹⁾ 漢나라의 궁성인 장안성 남쪽에서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禮制建築物이 발굴되었다.⁵²⁾

그리고 그리스·로마의 폴리스들은 화려한 궁궐과 신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자연적 소우주 형태를 갖춘 고대도시의 특성⁵³⁾을 가지며, 中東의 우르(Ur)·에렉(Erech)·니푸르(Nippur)·바빌로니아 등의 고

47) 姜英卿, 「韓國古代의 市와 井에 대한 一研究」 『원우총론』 2, 숙명여대대학원원우회, 1984, 3~14쪽.

48) 李成九, 「中國古代 市의 觀念과 機能」 『東洋史學研究』, 東洋史學會, 1991, 3~23쪽.

49) 金昌錫, 「한국고대 市의 原形과 그 성격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韓國史研究會, 1997, 98쪽.

50) 李亨求, 『韓國文化의 起源』, 까치, 1991, 87쪽.

51) 尹定燮, 『都市計劃史 比較研究』, 1996, 43쪽.

52) 王仲殊 著·姜仁求 譯註, 『漢代 考古學概論』, 學研文化社, 1993, 44~45쪽.

53) 李揆穆, 『都市와 象徵』, 一志社, 1988, 50~55쪽.

대도시들은 적에 대한 방어상 古壘로 견고히 둘러쌓았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宮殿과 神殿이 그 대표적인 건물이었다. 인도의 모헨조다로는 大城壁으로 둘러싸여 있는 속에 돌로 포장된 도로·하수구·浴湯 등이 훌륭히 갖추어지고, 그 중앙에는 사원과 궁전이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⁴⁾ 일본의 아스카 지역도 飛鳥寺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板蓋宮·淨御宮·豊浦宮·小墾田宮·嶋宮·稻葉宮의 王宮들과 石舞臺·神社·酒船石·寺刹·연못[飛鳥池] 등의 도시유적들이 배치되어 있다.⁵⁵⁾

즉 동·서양의 예를 통하여 볼 때 도시란 제단으로부터 발생하여 제례·집회·교역의 장소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엘리아데(Eliade)는 도시의 건설은 우주의 창조와 같은 것으로 성곽은 聖과 俗을 가르는 것이며 그

안에 왕궁과 사원이 우주의 중심인 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고대도시가 지니는 특징을 쿨랑주(Coulanges)의 『고대도시(Ancient city)』와 비트포겔(Wittfogel)의 『동



남한산성 북문에서 본 하남시고골일대

54) 尹定燮, 앞의 책, 1996, 43쪽.

55) 門脇禎二, 『新版 飛鳥』, 日本放送出版協會, 1977.

56) 엘리아데 지음·박규태 옮김, 『성스러운 건축과 상징』, 『상징·신성·예술』, 서광사, 1991, 192~203쪽. ; 엘리아데 지음·이은봉 옮김, 『성소·사원·궁전·세계의 중심』,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470~482쪽.

방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의 이론과 결부시켜 백제 한성시기의 왕경을 복원해 보면, 먼저 쿨랑주는 고대도시에서 神殿과 같은 신앙유적이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음⁵⁷⁾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트포겔은 동방전제주의에서 고대도시는 우선 장엄한 궁궐, 신전, 거대한 방어시설, 축성, 망루, 설책, 뺨어가는 도로망, 수도, 분묘,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 수운용 운하 등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의 인력동원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였다.⁵⁸⁾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 백제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내용에서 築城·修宮의 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백제사회에 있어서 고대 동방사회의 특징인 치수·관개의 확충, 천문학의 발달 등이 보여진다. 특히 백제 초기의 기록은 거의가 축성·設柵·徙民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장엄한 궁궐·신전·분묘, 거대한 방어시설의 축조, 뺨어가는 도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등의 축성은 백제 초기의 왕이 이미 고대 동방 전제군주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⁵⁹⁾

57) As soon as the families, the phratries, and the tribes had agreed to unite and have the same worship, they immediately founded city as a sanctuary for the common worship and the thus the foundation of a city was always a religious act.(Fustel de Coulanges, *The ancient city*, N.Y, 1956, p.134.)

58) The builders of canals and dams easily became the builders of trenches, towers, palisades, and extended defense walls.(syncopation) Rigid cooperation assured security of residence just as it assured success in farming, They all work together to build the villages. (Karl A·Wittfogel, *Oriental despotism*, Yale university press, 1957, pp.30~41).

59) 申滢植, 『百濟史』,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92, 63~64쪽.

먼저 백제의 초기도성이었던 하남위례성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북으로는 강[한강]을 끼고 동으로 높은 산[崇山]에 의지하며, 남으로 기름진 평야[沃澤]를 갖고 있는 한편, 서쪽으로 멀리 바다[西海]를 끼고 있는 천혜의 분지임을 나타내고 있다.⁶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山海經』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며,⁶¹⁾ 하남시 고골일대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 동시에 한산 아래의 새 도읍터에는 하남위례성과 궁궐을 조성하고 있었다.⁶²⁾ 이곳에는 宮室·樓閣·臺榭를 짓고,⁶³⁾ 우물과 연못을 마련하여⁶⁴⁾ 궁정의 멋을 짓들였으며, 궁중의 서쪽에 射臺를 마련하여⁶⁵⁾

60) 『三國史記』 卷23, 온조왕 즉위년조, 13년조.

61) 『山海經』 “西次三經之首曰崇吾之山在河之南北望冢遂南望嶠之澤西望帝之博獸之丘東望虫焉淵.”

62) ① 온조왕 13년 7월 漢山 밑에 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기었다. 9월 城闕을 세웠다. ② 온조왕 15년 정월 새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사치하지도 않았다. ③ 온조왕 25년 2월 王宮의 우물이 넘쳤다. ④ 온조왕 41년 2월 한수의 동북 제부락에 사는 나이 15세 이상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축하였다.(『三國史記』 卷23)

63)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條에 “國人을 징발하여 흙을 써서 城을 쌓고 안에는 宮室·樓閣·臺榭 등을 지었는데 모두가 장려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64) ① 온조왕 25년 2월 王宮의 우물이 넘쳤다. ② 초고왕 22년 5월 王都의 우물과 漢水가 모두 말랐다. ③ 초고왕 39년 10월 東井에 혜성이 나타났다.(『三國史記』 卷23) ④ 비류왕 13년 하4월 王都의 우물이 넘치고 흑룡이 그 가운데에 나타났다(『三國史記』 卷24) ⑤ 진사왕 7년 정월 宮室을 重修하고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이상한 짐승과 화초를 길렀다. ⑥ 비유왕 21년 5월 宮城 남쪽 연못(宮南池)에서 수레바퀴와 같은 불꽃이 일어나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다.(『三國史記』 卷25)

65) ① 고이왕 9년 7월 西門에 나가 활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② 비류왕 17년 8월 宮城의 西쪽에 射臺 지었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활쏘는 연습을 하였다.(『三國史記』 卷23) ③ 아신왕 7년 9월 都內인민을 모아 西臺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였다(『三國史記』 卷25)

군사훈련과 大閱을 통해⁶⁶⁾ 왕권의 권위와 신성함을 내외에 과시하였다.⁶⁷⁾ 이에 왕은 南堂에서 정사를 보고,⁶⁸⁾ 한편 군사훈련과 순행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⁶⁹⁾ 제방의 수리와 궁궐의 중수를 위한 대규모 인력동원을 위한 무력의 합법적 동원이 가능했던 것이다.⁷⁰⁾

한편, 왕성에는 각종 궁궐 시설과 함께 반드시 祭天·崇祖[시조묘]를 위한 제단이 나타나고 있다.⁷¹⁾ 이러한 시설은 왕의 초인적 능력과 天道와 人道의 조절자로서 善射者나 선천적 능력을 상징하는 필수조건으로 이해된다.⁷²⁾

위의 사실들을 참고하여 백제의 도성을 재구성하여 보면 『三國史記』 第3, 「百濟本紀」 卷25, 蓋鹵王 21年條의 기록을 통해 漢城이란 北城과 南城 2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가 공격할 당시 개로왕이 북성에서 남성으로 옮겨가 저항하였는데, 두 성의 거리는 고구려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2.5km 이하로 매우 가까워

66) ① 구수왕 8년 8월 漢水의 西쪽에서 大閱을 하였다. ② 고이왕 7년 7월 왕은 石川에서 군사를 大閱하였다. ③ 근초고왕 24년 11월 漢水의 南쪽에서 大閱을 하였는데 旗幟는 모두 黃色을 사용하였다. (『三國史記』 卷 24) ④ 아신왕 6년 7월 漢水 南쪽에서 군사를 大閱하였다.(『三國史記』 卷25).

67)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91쪽.

68) 고이왕 28년 정월에 왕이 南堂이 앉아 정사를 보았다.(『三國史記』 卷24).

69) 申滢植, 앞의 책, 1984, 99~100쪽.

70) Karl A.Wittfogel, 앞의 책, 1957, 30~41쪽.

71) 온조왕 원년 東明廟를 세웠다. 온조왕 17년 4월 祠堂을 세우고 國母를 제사 지냈다. 온조왕 20년 춘 2월 왕이 대단을 설치하고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온조왕 38년 2월 왕이 大壇을 쌓고 天地에 제사를 지냈다.(『삼국사기』 권23).

72) 申滢植, 앞의 책, 1984, 89~91쪽.

야 한다.⁷³⁾ 그런데 『日本書紀』 雄略 21년조 개로왕의 패망 기사에서 “百濟記云蓋鹵王乙卯年冬 狍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王城降陷遂失慰禮國”이라 하여 7일간 공격을 당한 북성은 하남위례성으로 불려졌으며, 평상시 왕이 거주했던 王城이고, 남성은 위급할 때에 들어갔던 피난성으로 山城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온조왕이 漢山 밑에 하남위례성을 쌓았다고 하였고 근초고왕 때에는 고구려의 공격에 대피하여 한산이라는 성으로 천도한 일⁷⁴⁾이 있던 것을 볼 때 漢山城이 南城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백제의 도성이었던 부여의 扶蘇山城이나 공주의 公山城에서 추정공지가 산성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그 배후의 산성은 피난성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지리적 조건이 같았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하남위례성은 북쪽에는 漢水가 흐르고 동쪽에는 높은 산이 있다고 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기루왕 40년 6월에 큰비가 浹旬쪽이나 와서 한강의 물이 넘쳐 민가를 표휼하였다. 7월에 有司에 명하여 수해를 입은 전답을 보수하였다.(『삼국사기』 권23)
- ㉡ 구수왕 8년 國都의 東편에 큰물이 나서 산이 40여개소나 무너졌다.(『삼국사기』 권24)
- ㉢ 구수왕 9년 2월 有司에 명하여 堤防을 수리하였다.(上同)
- ㉣ 개로왕 21년 한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되 蛇城의 동쪽에서 崇山의 북쪽까지 이르렀다.(『삼국사기』 권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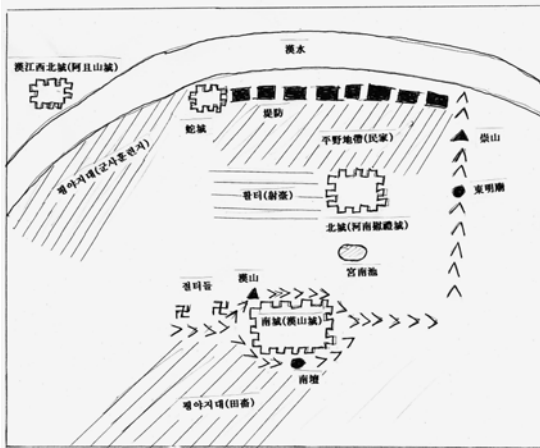
위의 자료 ㉣에서 그 산은 崇山으로 불려졌는데, 그 곳에서부터 서쪽 강변에 있는 蛇城까지 제방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등의

73) 고구려의 丸都山城과 國內城이 2.5km, 大城山城과 安鶴宮城이 750m, 長壽山城과 峨洋里土城이 1.7km, 城子山山城과 河龍古城이 1.5km 떨어져 있다.

74) 近肖古王 26년 都邑을 漢山으로 옮겼다.(『三國史記』 卷24).

기사를 참고해 보면, 그 제방 안쪽인 한수의 남쪽에는 충적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궁성과의 사이에 민가가 있었는데, 홍수가 질 경우 제방의 유실로 민가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제방을 자주 수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조왕은 동명묘를 세웠는데 東明이란 “시불”의 뜻으로,⁷⁵⁾ 태양숭배사상과 통하는 것이기에⁷⁶⁾ 고구려의 國東大穴에서와 같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의 산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동쪽에 자리

<그림 5> 삼국사기로 복원한 백제도성



잡은 높은 산은 ‘숭배 받는 산’인 崇山이다. 왕성인 하남위례성은 漢山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산이라는 큰 산은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⁷⁷⁾ 그 산에는 山城과 함께 많은 절터⁷⁸⁾와 천지에 제사를 지내던 南壇⁷⁹⁾이 자리잡고 있었을

75)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1965, 3쪽.
 76) 市는 東方으로 상징되는 神의 강림 장소이자 降神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 행사의 거행 장소였는데 동방으로 상징되는 신은 太陽神이다. 이러한 태양신의 권위에 의거한 祭禮는 정치행위로서 중요한 것이었다.(李成九, 앞의 논문, 1991, 11~13쪽).
 77) 북으로는 漢水가 있고 동으로는 높은 산[崇山]이 있었기 때문이다.
 78) 枕流王 2년 10월 漢山에 불사를 세우고 10인의 僧侶를 두었다. (『三國史記』 卷24).
 79) 比流王 10년 5월 南郊에서 天地에 제사를 지냈는데 왕이 친히 犧牲을 배었다.(『三國史記』 卷24).

것이다. 한산의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전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三國史記』 기록을 토대로 백제도성을 도해하면 앞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볼 때 한강을 북의 경계로 하고 북성[平地城]과 남성[山城]으로 간주하고 서방은 한강의 보호와 동방은 송산을 방어책[城]으로 한 하나의 도성체제를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그림 6>의 風納土城에 맞추어보면, 동쪽 송산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이 없고, 일자산이라 불려지는 얇은 구릉이 존재할 뿐이다. 도

<그림 6> 몽촌토성·풍남토성 지형도(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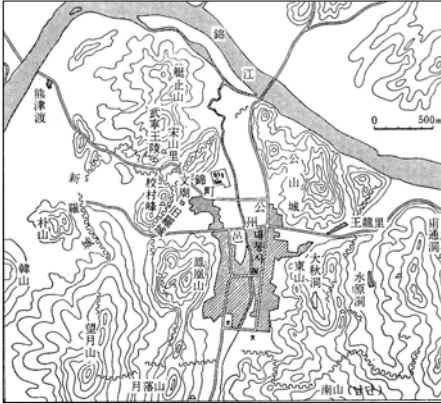


리어 漢山에 해당하는 남한산이 동남쪽에 있어 방위가 맞지 않는다. 성의 북쪽이 바로 한강이 되어 제방을 쌓을 공간이 없이 성의 북벽이 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서북쪽에 蛇城에 해당하는 성과 제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이 홍수가 나서 백성들의 집이

표해하였다는 기록과 전혀 맞지 않고 王城이 침수되는 결과가 된다.⁸⁰⁾

80)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王城이 홍수에 피해를 보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림 7> 공산성과 대통사



풍납·몽촌토성과 하남시 고골일대

벌판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포위되기 쉽기 때문이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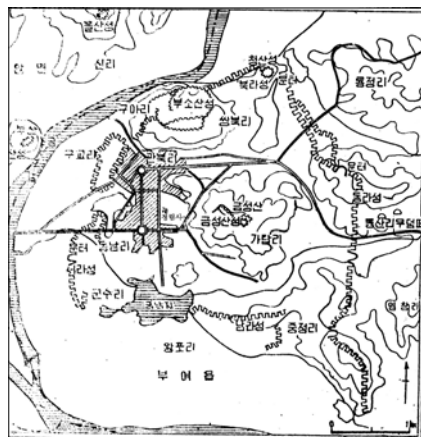
더구나 乙丑年 대홍수에 북쪽 성벽이 유실된 적이 있고, 여러 차례 침수당한 상습 침수 지역이었으며, 발굴과정에서도 4m 이상의 모래가 여러 층으로 퇴적된 아래에서 유물 층이 나오고 있어 대홍수로 인한 여러 번의 범람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최몽룡⁸¹⁾은 풍납 리토성이 위치한 일대는 지대가 너무 낮고 또 강에 인접하여 있어 도성으로 부적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고구려의 남침을 저지하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성임을 밝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 부근에 백제 당시의 사찰지들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남쪽은 松坡의 넓은 벌판으로 漢山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이 없는데, 南城에 해당하는 피난성을 夢村土城으로 본다면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몽촌토성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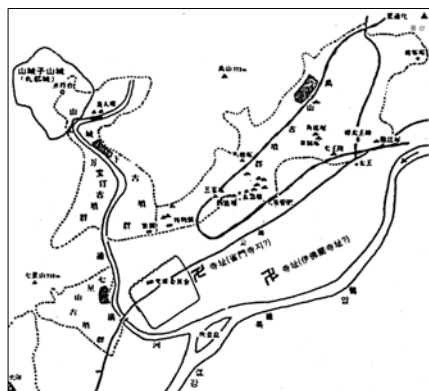
81) 崔夢龍, 「漢城百濟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百濟史의 理解』, 學研文化社, 1991, 96쪽.

그리고 <그림 5>의 여러 조건들을 <그림 6>의 몽촌토성과 맞추어보면 동쪽에 崇山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이 없고 일자산이라는 얇은 구릉이 존재할 뿐이다. 동남쪽으로 거대한 산줄기가 보이고 있으나, 이곳은 漢山으로 지목되는 南漢山으로 승산에 해당되지는 못하고 있다. 남쪽은 송파의 넓은 벌판으로 한산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이 없다. 그리고 이 성 부근에도 백제 당시의 사찰지들이 없다. 남성을 南漢山城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방위가 맞지

<그림 8> 부소산성과 정림사



<그림 9> 국내성의 도시구조와 환도산성



않고, 그 이동거리가 7km 정도나 되어 너무 멀고, 그 사이에 평야지대가 전개되어 있어 강변 가까이 위치한 몽촌토성은 적의 도강을 하면 포위될 위험성이 높으며 퇴로가 차단되기 쉽다. 즉 풍납토성과 마찬가지로 崇山 [동]과 漢山 [남] 등 지표가 되는 지명이 지리적 방향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한산

82) 成周鐸은 이곳이 한강변의 얇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왕이 거주하는 도성으로서는 방비하기 어려운 지형이므로 도성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곳을 지적하였다(성주탁, 「百濟城址研究-都城址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으로 줄곧 거론되어 왔으며, 李丙燾는 하남시의 黔丹山을 승산으로 지목한 바⁸³⁾ 있고, 이것은 거의 정설화 되어 있어 백제의 도성을 찾는 중요한 지리적 표점이 되고 있다.

더구나 1984년 8월말 한강이 범람하였을 때에 몽촌토성의 내부까지 침수된 적이 있으며, 축조의 상한선이 3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백제초기의 기록에는 맞지 않다.⁸⁴⁾ 成周鐸은 몽촌토성이 3세기 동안 군림한 도성지로서 주초석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부근에는 東明廟·大壇·南壇·南堂·射臺 등의

<그림 10> 안학궁의 도시구조와 대성산성



유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구려군의 남침을 7일간이나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⁸⁵⁾

가장 중요한 사실은 「廣開土大王碑文」으로 永樂 6년(396)의 백제정벌 기사를 보면 “王이 발연 대노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阿利水를 건너 선두부대를 조건하여 百殘의 국도를 향해 진격했다. 백잔의 군대는 그들의 수혈[漢城]로 도망갔다. 곧 그들의 王城을 포위했다. 백잔의 主

83) 李丙燾, 앞의 책, 1976, 505쪽.

84) 朴淳發, 「百濟都城의 變遷과 特徵」 『韓國史의 理解』,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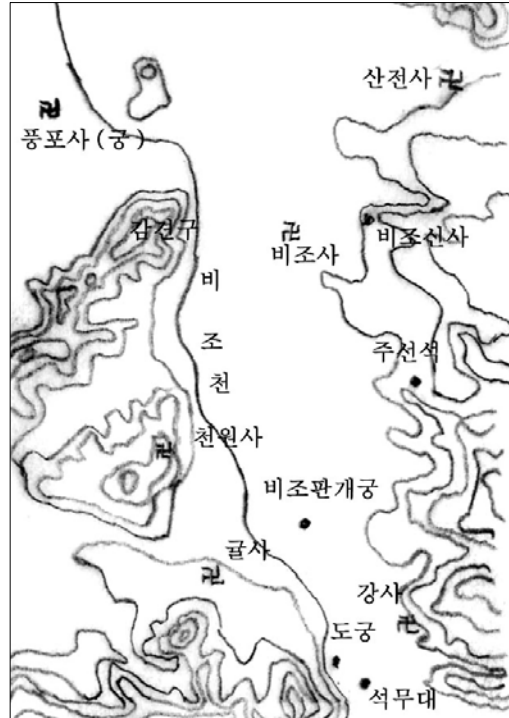
85) 成周鐸, 「韓國의 古代城郭」 『東洋 都市史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43~48쪽.

는 방법이 없자 남녀 생 구일천을 헌납해 보냈다.”⁸⁶⁾고 하였는데 백제의 도성이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 같이 한강변에 있었다면 도강을 하자마자 포위되어 함락되었을 것이지만, 이 기록에서는 한강을 도강하고도 선두부대를 보내 쳐들어 갈 정도로 강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주탁⁸⁷⁾은 『太宗實錄』 卷28, 14년 8월 28일 戊辰條에 “廣州 尉由城의 전지를

各品에 도로 주었다”는 기록과 『太宗實錄』 卷32, 16년 10월 7일 乙丑條에 “임금이 상왕을 받들어 廣州 慰要城에서 사냥하고, 초 8일에 환궁하였다”는 기록, 『太宗實錄』 卷34, 17년 9월 3일 乙卯條에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廣津을 건너 慰要城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石島에 머물러 잤다”고 한 기록에서 “尉由城” “慰要城”이란 경기도 광주지역에 있던 백제의 도읍지 慰禮城임을 밝히면서 조선초기까지도

<그림 11> 아스카의 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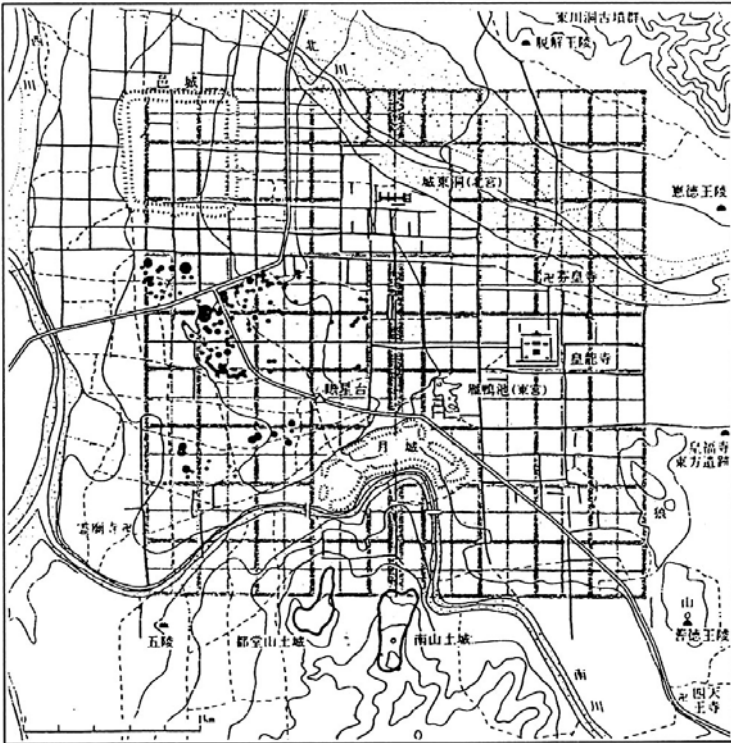


86) 王威赫怒，度阿利水，遣刺迫城，殘兵歸穴，就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

87) 성주탁, 「백제사비도성연구」 『백제연구』 13집, 1982.

이 지명이 남아 있었으며, 그 당시 검단산 밑에는 강무장이 있어 왕들이 자주 출행하였다고 하였다. 김종규의 조사에 의하면 궁 안의 외수 부근에는 “도장모루”가, 항골에는 “도장골”, 가운데말에는 “도장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 부근에 講武場과 위요성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⁸⁸⁾

<그림 12> 경주의 왕경복원도와 황룡사·분황사



88) 오순제, 앞의 책, 1995, 45~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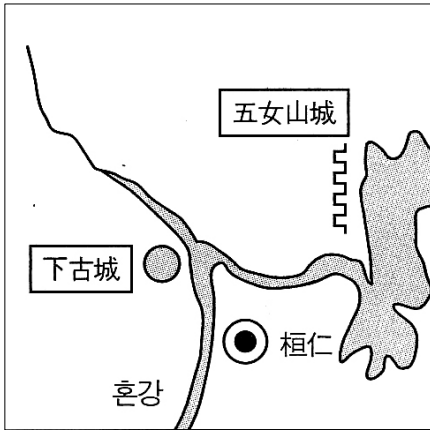
백제에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불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한산에 사찰들을 지었으며, 일시적으로 도성이기도 하였던 漢山⁸⁹⁾이 과연 어디였던가를 밝히는 작업은 백제의 도성인 漢城·河南慰禮城이 어디였던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하겠다.

<그림 13> 일본 大宰府의 도시구조와 관세음사



89) 崔夢龍은 진사왕 7년(391)에 궁실을 중수한 기록을 근거로 근초고왕이 371년에 한산으로 천도한 후 20년이 지난 이 때에 평지성으로 이주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인 것으로 보았는데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최몽룡, 앞의 책, 1991, 85쪽).

<그림 14> 졸본의 오녀산성과
하고성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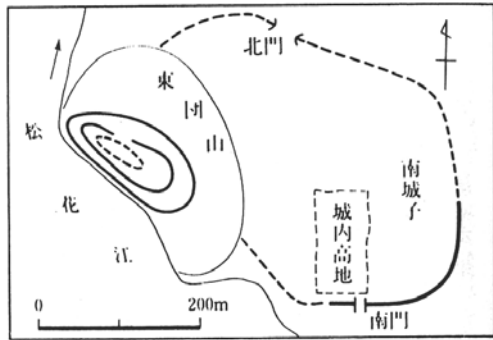
백제의 불교는 北朝의 前秦에서 전래된 고구려와 달리 南朝인 東晉으로부터 전래되었다. 그 당시 백제의 수도가 河南慰禮城⁹⁰⁾에 있었으며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자마자 사찰을 漢山⁹¹⁾에 지었다고 하였는데, 한산에 있다고 전하는 藥井寺의 명문외편과 신복선사·봉수사지가 하남시 고골에서 발견되었다. 『三國史記』에 나오는 天王寺⁹²⁾와 같은 명칭

- 90)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가 고국원왕을 죽인 원한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하여 한산으로 천도하였지만 진사왕 7년(391)에 궁궐을 중수하였다. 아신왕은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그는 침류왕의 장자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무 어려 숙부인 진사왕이 올랐다. 진사왕은 385년에 쫓고 침류왕은 384년에 쫓으니 그 이전에 그가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한편 아신왕 6년(397) 7월에 한수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7년 9월에는 도성 내의 인민을 모아 서대에서 활쏘기를 연습하였고, 비유왕 21년(447)에 궁남지에서 수레바퀴와 같은 불꽃이 일어났으며 29년(455)에 한산에서 사냥을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당시 한산이 백제의 도성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늦어도 391년 아니면 384년 이전에 이미 평지성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 내려온 평지성은 『日本書紀』의 개로왕 패망기사에서 북성인 왕성을 “慰禮”라고 칭하고 있어 하남위례성임을 알 수 있다.
- 91) 漢山은 북한산과 남한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온조가 도읍을 정하기 위해 올라간 한산은 북한산이고, 그가 한강 이남의 한산 아래에 새로운 하남위례성이라는 도읍을 정한 한산은 남한산이 된다.
- 92) 『三國史記』百濟本紀, 義慈王 26年 5月 震天王·道讓二寺塔.

의 사찰 또한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 천왕사지에서는 백제시대의 숫막새를 비롯하여 목탑지의 심초석이 2개나 나오고 있어 하남시 고골일대가 백제시기의 왕도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교산동토성·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은 5리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우며 교산동토성의 대형건물지⁹³⁾의 동쪽에 있는 선법사에는 왕이 사용했다는 샘물이 남아있다. 대형건물지와 외성의 門址 사이에는 넓은 건물터가 있어 필자는 이곳을 고이왕이 정사를 보았던 南堂⁹⁴⁾으로 본다. 이 부근에는 우물지가 있어 王井⁹⁵⁾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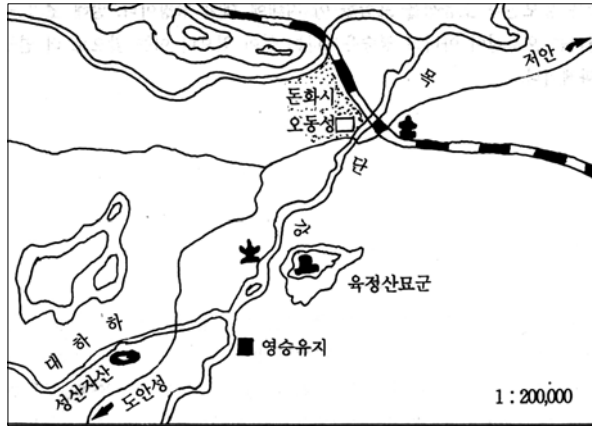
<그림 15> 부여왕성인 동단산성과 남성자성



93) 세종대의 조사에 의하면 이곳은 下司倉洞 200번지 일대로 동서 55m, 남북 90m 장방형 토축으로 둘러쳐진 약 2000여평으로서, 현재 노출된 초석이 56개이고 적심석으로 보이는 것이 33개가 된다. 초석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이 140cm~100cm, 단축이 100~80cm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모두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초석들은 客山의 정상방향으로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다. 오른쪽 석렬은 질서가 정연하나 나머지는 흐트러져 있다.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오른쪽 석렬은 주초석의 간격이 2.5~3m 간격이었다. 이는 新井宏이 3~4세기에 한국에서 사용하였다는 古韓尺의 1尺인 26.7cm의 10배인 2.67m에 근접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곳은 삼국시대의 대형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척도가 唐尺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초석들의 양상을 보면 7~9층으로 겹쳐져 쌓여 있어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번에 걸쳐 중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하남시 교산동 일대 문화유적』, 1996, 27쪽).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도시구조는 부여와 고구려의 도시구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백제의 도성인 하남시 고골일대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세

〈그림 17〉 성산자성과 영승유적 및 오동성



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의 도성 및 지방도시유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공통된 특징으로 보여진다. 즉 이곳은 『삼국사기』의 백제도성의 기록과 가장 잘 맞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가장 뚜렷하게 백제의 도성이었던 하남위례성·한산·한성 등이 어울려 있었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의 후예임을 통해 부여의 시조인 東明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며 국호마저도 南扶餘로 바꾸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⁷⁾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여·고구려의 도성체제가 백제로 연결되고 있어 양자간에는 일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⁸⁾ 이러한 시각에서 부여의 문화가 백제로 계승되

96) 북한의 한인호는 북성을 이성산성, 남성을 남한산성으로 비정하고 그 사이에 도시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한인호, 앞의 책, 1995, 124~126쪽).
 97)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 10號, 全南大學校 史學會, 1981.
 98) 池內宏, 「高句麗 丸都の遺蹟」, 『東方學報』 8冊, 東方文化學院, 407~

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1981년 이후 만주의 부여·고구려·발해 유적과 일본의 백제계 유적들을 답사한 결과, 부여의 동단산성과 남성자성으로부터 고구려의 오녀산성과 하고성자성·국내성과 환도산성·안학궁성과 대성산성·장수산성과 이양리토성, 백제의 방학동토성과 북한산성·공산성과 추정궁지·부소산성과 추정궁지, 발해의 성산자성과 오동성·성자산성과 하룡고성 및 일본의 백제계 유적인 대재부의 수성과 대야성 등에 남아 있는 ‘평지성+산성’의 도성체제들을 비교 분석하여 하나의 연속성에서 도성체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남위례성⁹⁹⁾을 한산 밑에 두었고,¹⁰⁰⁾ 위급해지자 한산으로 들어갔으며 漢城¹⁰¹⁾이라는 도시를 구성할 때에도 北城과 南城을 두었는데, 북성은 평지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왕이 거주하던 王城으로서 하남위례성으로 불려졌고¹⁰²⁾ 남성은 위급할 때에 들어갔던 피난성으로서 그 남쪽에 있던 산성인 한산¹⁰³⁾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409쪽. ; 井上秀雄, 「朝鮮の都城」 『都城』, 社會思想社, 1975, 292~2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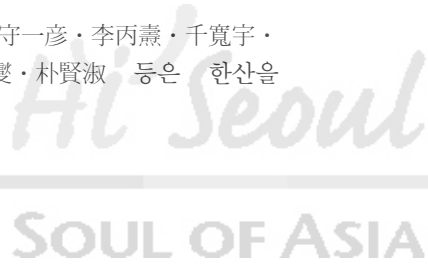
99) 丁若鏞·李丙燾·李弘植·金龍國 등은 광주고읍이 있던 宮村인 현재의 춘궁동으로 보고 있다.

100) 온조왕 13년 7월 漢山 밑에 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다. 9월 城闕을 세웠다.(『三國史記』 卷第24)

101) 金龍國, 成周鐸, 崔夢龍·權五榮 등은 춘궁동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성산성 1차저수지에서 “南漢城道使”라는 목간이 나와 이 부근이 한성이었을 것으로,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을 때에 이곳에는 군사령부인 漢城亭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본다.

102) 千寬宇·方東仁·金龍國 등은 河南慰禮城과 漢城을 동일한 곳으로 보고 그 위치도 춘궁리 일대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金起燮은 河南慰禮城은 좁은 의미로 왕이 거처하는 곳인 王城을 뜻하며 漢城은 넓은 의미인 王城과 주위의 일반 민간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의 都城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103) 津田左右吉·今西龍·金映遂·李弘植·矢守一彦·李丙燾·千寬宇·藤島亥治郎·金廷鶴·車勇杰·金龍國·金起燮·朴賢淑 등은 한산을



볼 때 ‘평지성+산성’의 세트체제를 갖춘 것이 한성[큰성=大城]이라는 거대한 도시구조로 파악이 된다.

또한 두 개로 나누어진 북성과 남성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羅城은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최근에 밝혀진 甕路¹⁰⁴라는 특수한 시설을 갖춘 나성체제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웅진의 나성체제의 부정¹⁰⁵에 대한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성체제가 사비시대 뿐만 아니라 일본의 大宰府에서까지 나타남으로서 추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하남시 고폘에서는 天王寺라는 거대한 절터가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백제의 웅진시대에는 大通寺, 사비시대는 定林寺, 고구려 국내성의 省門寺·伊佛蘭寺, 안학궁의 상오리절터, 신라 경주의 黃龍寺, 발해 상경성의 1호 절터가 도시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같은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어 백제도성체제의 공통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천왕사를 중심으로 교산동토성 남문지에 이르는 넓은 벌판에는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¹⁰⁶를 중심으로 이방제의 도시

남한산성으로 보고 있는데,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條에는 “南漢山”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으로 볼 때 南漢山城이 있는 靑涼山이 南漢山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104) 1994년에 한중섭에 의해 발견된 웅로는 필자와 윤명철에 의해 재조사되었다. 객산 쪽에 새미길와 막은데미, 금암산 쪽의 덜미재와 온천동쪽의 웅로를 비롯하여 남한산성 벌봉쪽에서 뽕족바위쪽 사이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는 흥두깨바람재웅로는 S형, ●형, ◐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웅로시설들을 줄지어 구축하였다. 이것은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피해 한산으로 천도한 후 구축한 시설로 보인다.

105) 俞元載, 『熊津百濟史研究』, 주류성, 1997, 133~142쪽.

106) 천왕사부근에서 나오고 있는 敷石施設은 동서길이 20m, 남북길이 15m로 부석은 대부분 5cm 이내의 작은 천석들을 이용하여 전면을 깔았으며,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사선방향으로 확인되어 도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2次 試掘

구조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하남시 고골 일대의 전통신앙유적과 사찰

1) 하남시 고골 일대의 古代 전통신앙유적

불교가 들어온 침류왕 이전 백제의 도성에는 전통적인 신앙유적들이 산재하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제의 왕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¹⁰⁷⁾에는 백제시대의 사찰지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 일원에는 수많은 사찰 뿐만 아니라 많은 고

調査資料』2001.12.31)

그리고 한종섭의 조사에 의하면 남문지에서 남쪽으로 뻗은 도로의 하수도 공사 중에 나타난 잔돌을 깔은 도로유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천왕사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남북축을 이루는 중심도로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남문지에서 덕풍천쪽으로 뻗은 도로유적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율하유적이 나타나고 있는 곳으로 이어져 있다.

107) 풍납토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유적에서는 말의 목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곳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의 항해의 안녕을 빌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津城[나루성]으로서 죽막동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백제시기의 이러한 역할을 하였던 성으로는 익산 웅포면 입점리고분군 옆의 御來山城과 나주 다시면 북암리고분군 옆의 會津土城 등이 있다.

車勇杰은 한강 남안의 나루마다 있는 유적을 방어취락[渡津聚落]으로 보았고, 그 중에서도 풍납토성을 중심적인 위치로 보았다(차용걸, 앞의 논문, 1981, 51쪽). 그리고 尹明喆도 풍납토성이 백제의 발전기에 있어서 수도성 입구의 수륙교통과 상업활동·방어 등을 위한 나루진성의 기능을 하였고, 특히 고구려와 갈등이 심해해질 무렵에는 수도권 하안방어체제의 중심성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명철, 『광개토대왕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광개토대왕과 고구려 남진정책』, 고구려연구회, 2002.3, 195쪽).

대의 전통적 신앙유적들이 나타나고 있어 왕도로씨의 면모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① 동쪽 黔丹山의 東明廟祭壇

黔丹山(해발 675m)은 1992년에 조사되었는데¹⁰⁸⁾ 하남시 고평의 동쪽에 있다. 이 산은 廣州 고평의 鎭山으로 北漢山·龍門山·冠岳山이 한 눈에 들어오며, 서남으로 남한산성이 있는 淸涼山과 이어져 있고 동쪽 기슭 아래는 北漢江·南漢江 그리고 京安川이 합류하여 큰 강인 斗尾江을 이루고 있다. 그 정상에는 東明王廟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¹⁰⁹⁾ 그 곳에서 서쪽으로 二聖山城·風納土城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런



제단에서 본 검단산 정상

데 정상으로부터 남쪽으로 4번째 봉우리에는 祭壇이 잔돌을 이용해 폭 281m, 길이 704m의 직사각형으로 축조¹¹⁰⁾되어 있다. 그 바닥은 잔돌을 한자(一尺) 이상으로 촘촘히 쌓아서 다졌는데, 이것은 바위절터[岩寺洞], 桐寺의 제2寺址, 金岩山磨崖佛, 禮山의 四面石佛址¹¹¹⁾의 바닥

108) 韓宗燮, 앞의 논문, 1992.

109) 李道學, 앞의 책, 1995.

110) 漢尺(약 23.3cm)으로 환산하여 폭이 12尺, 길이가 30尺이 된다.(韓宗燮, 앞의 논문, 1992).

111) 張慶浩, 『百濟寺刹建築』, 藝耕産業社, 1991.

에서 보이는 동일한 바닥 양식¹¹²⁾으로 본다. 즉 이러한 수법을 백제 한성시기에 있어서 신앙적 건물터의 독특한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이 제단의 앞에는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위가 판판한 바위가 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바위는 솟아오른 信仰石이 있어 제단의 좌측 석열과 이 돌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그 방향이 김단산 정상 of 동명묘를 향해 眞北(眞北에서 시계방향으로 20°내외) 방향을 이루고 있다 제단의 북쪽에는 祭物을 진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평편한 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이 부근에 “배알미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東明廟에 拜謁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¹¹³⁾

부여 계통의 온조집단은 고조선과 부여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왔을 漢나라의 천문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용적인 古韓尺¹¹⁴⁾을 쓰지 않고 漢尺으로 이 제사 유적을 축조하였다.¹¹⁵⁾ 이로 보아 後漢이 멸망한 220년 이전의 유적으로 백제초기의 온조가 동명에게 제사를 지낸 유적으로 본다.

한편 『東國輿地志』 광주조에 “黔丹山은 광주의 동북 10리에 있는데 백제 승려 김단이 그곳에 거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전하지만 黔이란 “가미” “고마” “곰” “감” 등 神을 나타내는 고어로서¹¹⁶⁾ “신성한 壇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명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東明이란 “시냇물”,¹¹⁷⁾ “새벽의 밝음” “黎明”을 뜻한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을 이름도 “배

112) 文明大, 『廣州 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板橋-九里,新島-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8.

113) 韓宗燮, 앞의 책, 1994, 45~48쪽.

114) 新井宏, 『まほろしの古代尺』, 吉川弘文館, 1980.

115) 韓宗燮, 앞의 논문, 1992.

116)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8쪽.

117) 위와 같은 책, 389쪽.

알미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윗배알미리와 아래배알미리 사이에 해발 371.1m의 “拜謁山”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이곳을 매우 신성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명묘에 대해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第1에 “溫祚王 元年 5月 立東明王廟”라고 하여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으며, 『太宗實錄』太宗 14년 3월 18일 辛卯條에도 내시별감을 보내 검단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어 후세에도 검단산이 매우 중요시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나타나는 동명묘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多婁王 2年 1月 謁始祖東明廟
- 仇首王 14年 4月 王祈東明廟乃雨
- 責稽王 2年 1月 謁東明廟
- 汾西王 2年 1月 謁東明廟
- 比流王 9年 4月 謁東明廟
- 阿莘王 2年 1月 王謁東明廟
- 腆支王 2年 1月 王謁東明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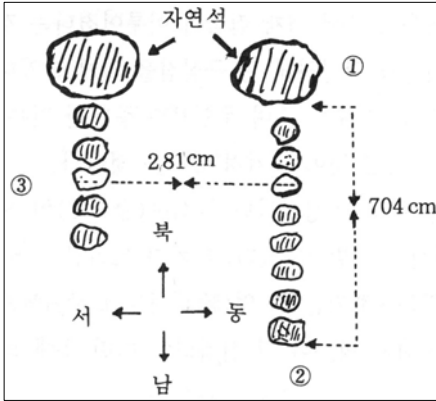
이 중에 仇首王 때만 기우제를 지낸 것이고, 나머지는 동명묘에 배알한 것이었는데, 『三國史記』, 雜誌, 祭祀條에는 구수왕이 빠져 있고 契王 2년 4월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남천한 후에는 동명묘에 배알한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동명묘는 유일하게 이 곳에만 존재했었다¹¹⁸⁾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백제인들이 모셨던 동명은 고구려의 주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魏書』에 東城王이 北魏에 보낸 표문에도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근원이 되었다”¹¹⁹⁾고 말하고 있고, 『北史』에

118) 盧明鎬, 앞의 논문, 1981.

119) 『魏書』, 卷100, 「列傳」, 卷88, 百濟國條 “臣(百濟)與高句麗源出

<그림 18> 동명모제단



도 百濟는 索離國의 東明으로부터 나왔다¹²⁰⁾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隋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다.¹²¹⁾ 그리고 『續日本紀』에 “대저 백제의 태조 都慕대왕은 日神이 降靈하여 문득 扶餘에 개국하였는데, 天帝의 秘記를 받아 諸韓을 거느리고 왕을 칭하였다”라¹²²⁾ 하여 백제는 부여를 세운 도모에서 나왔음을 기록

하고 있다. 『三國史記』¹²³⁾에도 백제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王의 姓을 “扶餘氏”라¹²⁴⁾ 하였고, 『三國遺事』에 聖王 때에

夫餘”

120) 『北史』, 卷94, 列傳, 百濟傳 “百濟之國蓋馬韓之屬也出自索離國, 其王出行其侍兒於後娠娠王還欲殺之侍兒曰前見天上有氣大如鷄子來降感故有娠王捨之後生男王置之豕牢豕以口氣嘘之不死後徙於之馬蘭亦如之王以爲神命養之名曰東明及長善射王忌其猛復欲殺之東明乃奔走南至淹滯水以弓擊水魚鼈皆爲橋東明乘之得渡至夫餘而王焉東明之後有仇台篤於仁信始立國於帶方故地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遂爲東夷強國初以百家濟因號百濟”

121) 『隋書』, 卷81, 列傳, 東夷, 百濟條 “百濟之先出自高麗國其國王有一侍女忽懷孕王欲殺之婢云有物狀如雞子來感於我故有娠也王捨之後遂生一男棄之廁溷久而不死以爲神命養之名曰朱蒙”

122) 『續日本紀』, 卷40, 桓武天皇 延曆 九年 七月條 “夫百濟太祖都慕大王日神降靈奄扶餘而開國天帝授籙惣諸韓而稱王”.

123)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溫祚王 卽位年條 “百濟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故以扶餘爲氏”

124) 「唐平濟碑」에서는 “其王扶餘義慈”라 하였고, 「唐劉仁願紀功碑」에는 “蘇定方 平破百濟 執其王扶餘 義慈”라 하여 百濟 義慈王의 姓이

는 도읍을 천도하고 국력을 쇄신하고 부여의 전통을 계승한 것을 천명하기 위하여 국호를 “南扶餘”로 바꾸었기 때문이다.¹²⁵⁾ 즉 동명이 橐離國에서 졸본에 이르러 卒本夫餘를 건국하자 北夫餘의 解夫婁가 그를 피해서 동쪽으로 옮겨 東夫餘를 세웠다. 그 후 동부여에서 출생한 朱蒙은 그 곳에서 달아나 졸본부여에 이르러 동명의 왕업을 이어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러한 졸본부여의 후예인 백제의 온조는 한강변에 자리를 잡은 후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인 동명을 모시게 된 것이다.¹²⁶⁾

② 南쪽 黔丹山과 南壇

『三國史記』百濟本紀에는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드렸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祭天地가 왕도 안에 있거나 그 부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溫祚王	20年	2月	王設大壇親祠天地異鳥五來翔
	38年	10月	王築大壇祠天地
多婁王	2年	2月	王祀天地於南壇
古爾王	5年	1月	祭天地用鼓吹
	14年	1月	祭天地於南壇
比流王	10年	1月	祀天地於南郊
阿莘王	2年	1月	祭天地於南壇
腆支王	2年	1月	祭天地於南壇

扶餘氏임을 밝혀주고 있으며, 중국 낙양에서 출토된 의자왕의 아들 「扶餘隆 墓地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25)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南扶餘前百濟條 “百濟聖王二十六年 戊午春移都於泗泚國號南扶餘”

126) 吳舜濟, 「百濟의 東明과 高句麗의 朱蒙」 『實學思想研究』 12輯, 母岳實學會, 1999. 8.

이러한 기록은 고대사회에서 祭天 또는 신앙문제가 정치와 함께 국가의 대사임을 알게 한다. 이에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하여 고골 일대의 지형을 비교해 보면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는 黔丹山에도 祭祀遺蹟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조선시대의 甕城¹²⁷⁾이 두 봉우리에 남아 있는데, 정상에는 주초석과 기와편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의 북쪽 아래 봉우리 현재는 국가의 중요 시설물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주민에 의하면 정상 북쪽의 두 번째 봉우리에는 제단처럼 남쪽 검단산 정상을 향해 석축으로 된 장방형으로 잔돌이 깔려 있는 유구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 지역은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⁸⁾ 이 곳은 남쪽 검단산의 정상부를 眞南 방향으로 바로 보는 위치로서 동쪽 검단산에 있는 동명묘 제사유적과 매우 흡사한 지형이었다.¹²⁹⁾ 즉 이곳은 고골의 남쪽 방향으로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듯이 天地에 제사를 지내던 南壇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英祖 36년(1760)년에 편찬된 『輿地圖書』 卷4 廣州條에는 남한산성 부근에 “南壇寺”¹³⁰⁾라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부근에 남단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어 추후 계속적인 조사가

127) 南門 쪽에는 3개의 甕城이 있었다.(「문화재」 『광주군지』, 1990).

128) 필자와 한중섭의 1998년 지표조사시 이 곳에서 백제시대의 회백색 연질타날문토기편을 수습하여 이 곳에 백제시대의 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9) 黔丹山이란 “神聖한 祭壇이 있는 山”이라는 뜻인 동시에 그 동쪽 아래 마을 이름이 “검복리(黔伏里)”로 말 그대로 “神聖한 곳을 향해 옆드린다”는 뜻의 지명으로 본다.

130) 『南漢誌』에는 南壇寺가 한흥사 서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漢興寺는 개원사 동쪽 기슭에 있고, 開元寺는 남한산성의 東門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六百年史』에는 남단사가 남장대부근 제2옹성과 제3옹성 사이의 길목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망되는 곳이다. 이렇게 남단에서 행해진 天地에 대한 제사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에도 『삼국사기』 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11年條에 “왕이 제단을 설치하고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王設壇祭天地)”라 하였다. 이것은 한강유역을 상실해 東明廟에 대한 拜謁은 끊긴¹³¹⁾ 반면 남쪽 검단산에서 행하여졌던 천지에 대한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제사를 현재 公山城의 남쪽에 자리잡은 南穴寺 부근의 南山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본다.

③ 四方과 八方の 黔丹

하남시 고골을 중심으로 동쪽의 검단산에서 동명묘제단터와 남쪽 검단산의 천지단이 발견된 이후, 북쪽에도 검단산이 『大東輿地圖』에 천마산의 북쪽에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곳은 『大東地志』 卷3, 楊州條에 “黔丹山이 현의 동쪽 6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窟雲川은 양주에서 동쪽 80에 있는데 黔丹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王宿川의 지류가 이곳의 검단산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로 黔丹川이다. 현지를 조사하여 보니, 현재 南楊州郡 榛接邑 八夜里的 학림에는 “검단(黔丹)” “검다내[黔丹川]” “검단이고개”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검단산은 鐵馬山 북쪽 줄기 중에 鑄錦山에 이르기 직전에 남양주군 진접면 팔야리, 수동면 내방리, 포천군 내촌면 엄현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633m의 산으로, 주금산 주봉 바로 아래의 토산으로 교산동토성에서 보면 진북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고골에서 眞西쪽의 김포군 검단면에도 검단¹³²⁾이라는 지명이 있다.

131) 盧明鎬, 앞의 논문, 1981.

132) 金浦의 옛이름은 “검포(黔浦)”로 그 뜻은 “검(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포구”라고 풀이되는데, 이 곳에는 “왕길” “대왕” “소왕길”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서 백제의 한성시대 왕들이 이곳을 통하여 西海大島인 강화도를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들” “한뫼” “한밀” 등의 “한[大]”이 포함된 지명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고대에 매우 중요

이렇게 볼 때 왕궁터가 있던 하남시 고골을 중심으로 사방에 검단산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던 동방·서방·남방·북방·중앙을 나타내는 五方思想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오방사상, 신라의 五岳信仰¹³³⁾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黔丹”이라는 지명은 동·서·남·북의 사방 이외에도 서북 방향에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烏頭山城 부근의 黔丹寺¹³⁴⁾ 뒷산의 黔丹山¹³⁵⁾이 있고, 동남¹³⁶⁾으로는 충북 괴산군 淸川面 平丹里와 淸原郡 未院面 大元里 경계에 높이 766m의 黔丹山¹³⁷⁾이 있고,¹³⁸⁾ 서남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 正南面 桂香里에 “검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동북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外西面 高城里에 “검단이”라는 마을이 있어 앞에서 언급한 동·서·남·북의 사방 외에도 서북·서남·동북·동남쪽

한 곳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133) 吐含山·地理山·鷄龍山·太伯山·父岳 등에 中祀를 지냈다.(『三國史記』卷32, 雜誌 第1, 祭祀).

1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交河條에는 黔丹山이 縣의 서쪽 5리에 있으며 그곳에 黔丹寺라는 절이 있고 黔丹山燐燧는 서로는 풍덕군 德積山, 남으로 고양군 高峯城山에 응했다고 한다. 현재 검단산 뒷산의 정상에는 봉수터가 남아 있다.

135) 높이 151.8m로 坡州郡 炭縣面 法興里와 城東里의 경계에 있는데 본래는 송리산이라 하였다. 黔丹禪師가 수도한 토굴이 남아 있는데 黔丹이라는 중이 석굴 아래에 절을 짓고 수도한 후부터 黔丹山이라고 하였다.(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경기 하-』, 18, 1991, 261쪽)

136) 忠北 中原郡 利柳面과 仰城面에 “검단”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곳 忠州는 “미울성”이라 불렀는데, 李道學은 그 뜻을 “밀성(低城)”이라고 보고 高句麗가 국내성과 같은 國原城이라는 別都를 설치할 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1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山川條 “儉丹山 在淸川縣 距州東六十四里 百濟僧儉丹所居故名”

138)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충북편-』 3, 1970, 7쪽.

의 4방향에도 검단이라는 지명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로 “검단”이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하남시 고평과 같이 그것을 중심으로 사방과 팔방으로 “검단”이라는 지명이 정확히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만이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전통적 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④ 三山

3산은 백제 뿐만 아니라 신라의 경우도 대사에 속하는 국가적 숭배 대상이다. 우선 이병도는 黔丹山을 백제 당시에는 “崇山[숭배받는 산]”이었을 것으로 보았다.¹³⁹⁾ 그리고 金岩山은 주민들 사이에 “가마산”으로 불려지고 있어 “釜山”으로, 淸涼山이 “큰 산”을 뜻하는 “漢山” 또는 “日長山¹⁴⁰⁾으로 불려지고 있어 이들을 백제의 漢城지역을 지키던 삼산으로 본다. 三山이란 고대 전통사상에 나오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산다는 三神山으로 蓬萊山·方丈山·瀛洲山 등을 말한다. 백제의 사비시 대에는 日山·吳山·浮山으로 되어 있고,¹⁴¹⁾ 백제인들이 건설한 일본의 飛鳥지역에도 耳成山·香久山·畝傍山¹⁴²⁾ 등이 있다. 이러한 삼산은 신라에서는 奈歷山·骨火山·穴禮山 등이 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도 禹山·七星山·龍山 등이, 평양의 안학궁성은 대성산·고

139) 李丙燾, 앞의 책, 1976.

140) 이것은 “해가 길게 걸려있는 산”이라는 뜻의 日長山으로 日門山인 黔丹山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곳을 계속 비춘다는 뜻인데, 한중섭이 찾은 하북위례성으로 보는 방학동토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 가는 길 “曠”자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태양숭배사상을 가지고 있던 백제인들의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신시대의 “倍達”, 고조선의 “阿斯達”과 “朝鮮”, 북부여의 “解慕漱(해머슴애)”, 졸본부여의 “東明”, 백제계의 天智天皇이 지은 일본의 국호인 “日本” 등이 광명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141) 『三國遺事』, 卷2, 南扶餘前百濟.

142) 日本에서는 이것을 大和三山이라고 한다.

방산·청암리산 등 3개의 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백제가 절을 지었다는 漢山이란 현재 부여에 있던 百濟三山,¹⁴³⁾ 일본의 大和三山¹⁴⁴⁾과 같이 南漢山[淸涼山]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黔丹山[客山], 서로는 金岩山[二聖山]을 포함한 것으로 “큰 산[大山]”을 뜻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절들은 객산과 금암산·청량산에 분포되어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왕궁에 가까운 곳에 지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백제 한성시기의 절터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백제 초기의 三山에 대한 사상적 기반은 부여에서 발견된 山水文塼, 山水鳳凰文塼 등에 그려져 있는 三神山¹⁴⁵⁾을 의미하는 것으로, 『三國遺事』 南夫餘條에 “日山·吳山·浮山이라고 하는 三山이 있는데 백제의 전성시대에 그 산에 神人이 각각 있어 서로 조석으로 늘 날아 다녔다”고 하였고 미륵불상도 三神山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즉 桓因·桓雄·檀君의 三神思想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三神산에 대한 사상이 부여의 후예들인 백제인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온조가 하남위례성을 이곳에 정한 것은 삼태기모양으로 3개의 산이 둘러싸인 이곳을 삼신산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 신앙의 중심인 검단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불교가 들어오자 삼산의 하나인 金岩山 줄기에 절터를 마련한 것이다.

143) 泗泚時代의 扶餘에 있는 日山·浮山·吳山을 말한다.

144) 아스까(飛鳥)에 있는 耳成山·香久山·畝傍山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성산은 현재 하남시의 二聖山과 그 음이 같다.

145) 漢代에 만들어진 博山香爐에서 博山(뱀파;뱀산)이란 중국의 동쪽 바다 가운데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이상향의 三神山으로 蓬萊山·方丈山·瀛洲山 등이며 이러한 삼신산은 蓬萊山이라고도 불려졌다.

⑤ 二聖山城 내의 9각·8각·12각형 신앙건물지와 신앙유적
『三國史記』卷24「百濟本紀」第2의 기록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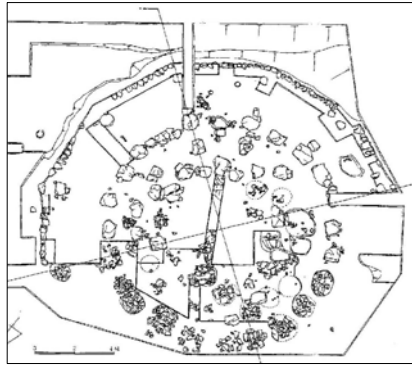
古爾王 10年 1月 設大壇祠天地山川

近肖古王 2年 1月 祭天地神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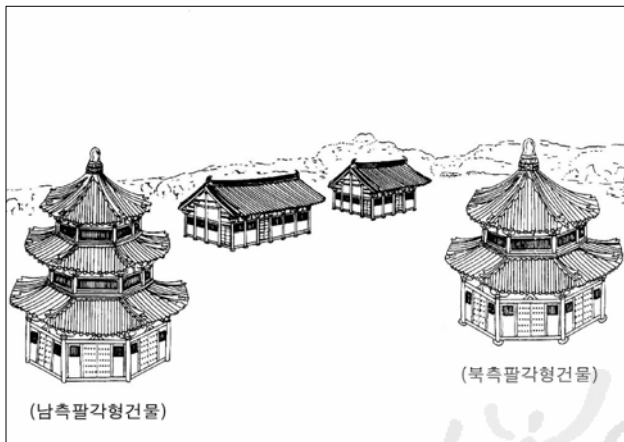
<그림 19> 9각건물지



<그림 20> 공산성의 12각건물지



<그림 21> 일본 熊本 鞠智城의 8각건물지





이천 설봉산성의 8각제단

이러한 내용은 백제가 온조왕 이후 항상 天地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南壇과 달리 고이왕이 새로 大壇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二聖山城과 비교해 보면, 그곳에는 9각형 建物址가 두 개, 8각형 건물지 하나가 발굴되었다.¹⁴⁶⁾ 그리고 현재 정상부 E지구에 9각건물(직경 1,032cm), 그 좌측 D지구에 8각건물(직경 880cm), 성의 하단부에 있는 저수지, 좌측 B 지구에 또 다른 9각건물(직경 1024cm)이 있다. 현재 상단부의 9각형건물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제일 끝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늘[天]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 天壇으로, 또 8각형건물은 중앙쪽에 치우쳐 있어 방위 개념

이러한 내용은 백제가 온조왕 이후 항상 天地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南壇과 달리 고이왕이 새로 大壇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二聖山城과 비교해 보면, 그곳에는 9각형 建物址가 두 개, 8각형 건물지 하나가 발굴되



이성산성의 12각건물지

146) 漢陽大學校, 『二聖山城 3次發掘報告書』, 1991.

중에서 중앙을 가르키는 “土”의 개념과 합치되어 地壇으로 보인다. 특히 저수지 부근 하단부에 있는 또 하나의 9각건물과 12각건물에서는 고이왕 때는 山川, 근초고왕 때는 神祇에게 제를 올렸던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고이왕이 새로 지은 壇(9각건물, 8각건물)¹⁴⁷⁾을 신라의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 이유로 이 성에서는 8차발굴 때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초축성벽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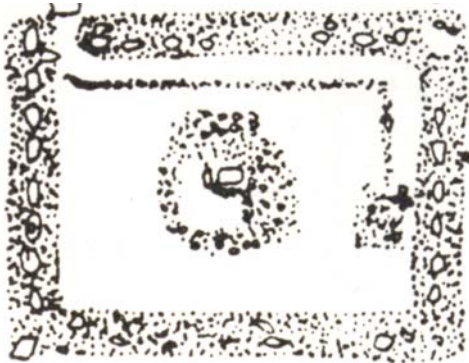
순천검단산성의12각건물지



이성산성의 신앙석

147) 이성산에서 “二聖”이란 “비류와 온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沸流系の 古爾王(千寬字,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326쪽)이 온조계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후에 왕궁이 가까운 이곳에 大壇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비류계의 왕들은 이곳을 매우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 국내성지역 동대자유적의 신앙석



이성산성의 백제벼루편

되었으며, 경주지역에서는 나정¹⁴⁸⁾과 흥륜사 목탑지¹⁴⁹⁾가 8각이지만 9각건 물지는 慶州지역에서 발굴된 적이 없는데 신라가 서북단 변방 군사적 목적의 성인 이곳에 수도에나 존재했을 대규모의 제단이나 건물을 지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¹⁵⁰⁾ 특히, 이곳에서 百濟時代의 연질벼루편·토기편·연와문막새와 당 등이 수습되고 있고 건물지 위에서 통일신라 때 확장하여 묻은 골호가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시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사라지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古韓尺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 148) 「경주 나정 정비사업지구내 발굴 현장설명회 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 149) 申昌秀, 「興輪寺의 發掘成果 檢討」 『新羅文化』 第20輯, 東國大新羅文化研究所, 2002. 8.
- 150) 신라 때에는 負兒岳인 三角山과 龍津인 광나루 부근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다.

또 우측 정상 E지구 9각건물지 옆 장방형 건물이 있는데 그 크기는 C지구의 1호 건물보다는 작고 H지구 건물보다는 큰 규모(3,202×788cm)로 9각 건물과 관련된 신앙유적으로 누각형의 창고로 보고 있다. 이곳은 제사에 쓰이는 기물의 보관과 준비를 하는 장소로 보인다. 또 주초석 안에 있는 튀어나온 돌[信仰石¹⁵¹⁾]은 우측



이성산성의 백제시대 토기

의 단면을 평편하게 절단하였는데 그 방향이 검단산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대의 正東쪽 방향이다. 이 돌은 검단산 제단의 상석으로 쓰인 돌 바로 앞에 있는 우뚝 솟아오른 돌(검단산 정상 방향), 이성산성 내



이성산성의 백제시기 막새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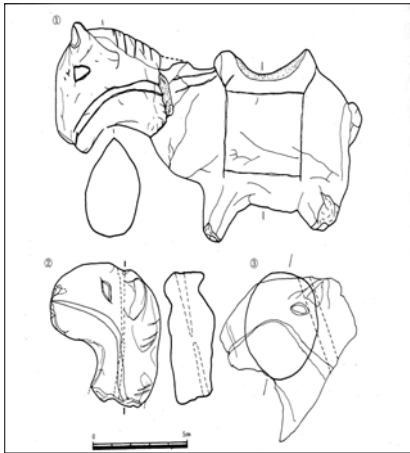
의 C지구 1호 건물지 안의 솟아오른 돌(客山 정상 방향) 등을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이 왕이 사용했던 건물지에만 나타나는 것인 동시에 방향을 정하는 표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제사의 제주가 王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왕이 이 건물 안에서 天祭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곳에서

151) 필자는 충주의 彌勒寺址 절터의 불상을 둘러싼 석굴유적 중 석불의 바로 앞에 이러한 신앙석이 2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동쪽의 것은 온전하나 서쪽의 것은 반파되었다.

나오는 부러진 鐵製馬는 이곳에서 행해진 제사에 쓰였진 것¹⁵²⁾이다.

현재 8각건물지는 백제계유물이 나오고 있는 雪峯山城¹⁵³⁾ (다)지구에서 8角祭壇址와 백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熊本の 鞠智城¹⁵⁴⁾ 안의 8각건물지와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성산성 중앙에서 나온 12각건물지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의 公山城과 順天의 백제계 산성인 黔丹山城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8각과 12각형 건물지는 백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성산성 내의 9각·8각·12각형의 건물지들이 26.7cm의 古韓尺¹⁵⁵⁾으로 지어진 것을 보면 백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지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림 23> 9각건물지지구에서 나온 토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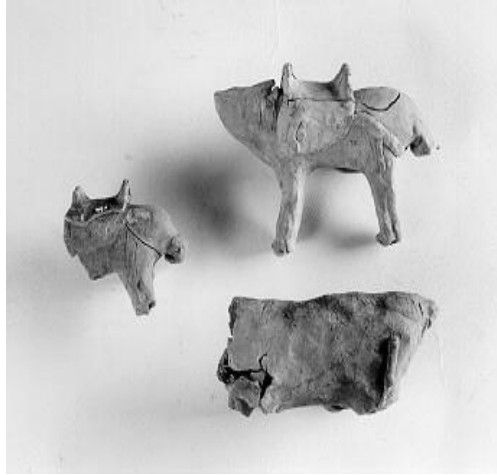
152) 이러한 형태의 말은 백제시대의 제사유적인 영암 월출산제사유적, 부안 죽막동제사유적 등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풍납토성의 제사유적에서도 말의 목뼈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풍납토성이 백제한성시기에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제사를 지냈던 최대의 津城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4年條에 당나라 황제의 칙사 유인원과 웅진도독 부여융이 웅진의 취리산에 올라가 白馬를 죽여 신지와 천곡의 神에게 祭祀를 지내고 그 피를 敵하였다고 하여 말이 제사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15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이천시, 1999, 388~398쪽.

154) 熊本縣教育委員會, 『鞠智城跡 13次發掘報告書』, 1992, 44~49쪽.

155) 新井宏, 앞의 책, 1990.

최근 이곳에서는 한양대학교의 8차발굴 조사에 의해 腰鼓가 출토되었는데,¹⁵⁶⁾ 이러한 요고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약기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백제에서도 祭典에 요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고이왕 때에는 天地에 대한 제사에 鼓吹[북과 피리]가 사용되었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월출산 제사유적의 말



부안 죽막동유적의 말

156)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 第8次發掘調查報告書』, 1999.

그 당시 음악이란 왕권의 권위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史記』卷12, 『孝武帝本紀』第12에 “옛날 天地에 제사할 때에는 모두 음악이 있었는데 그래야 天神과 地神에 대한 예절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卷24, 『樂書』第2에는 “大樂은 天地와 조화를 같이 하고 大禮는 천지와 절도를 같이 한다. 調和하기 때문에 만물은 그 본성을 잃음이 없이 천지간에 생성하고 절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땅에 제사지내어 尊卑의 질서를 밝힌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天地의 제사에 따르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방형 건물지의 중앙부에 솟아있는 거대한 신앙석은 고구려의 국내성지역에서 발굴된 東臺子遺蹟의 信仰石¹⁵⁷⁾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추후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별자리바위(거북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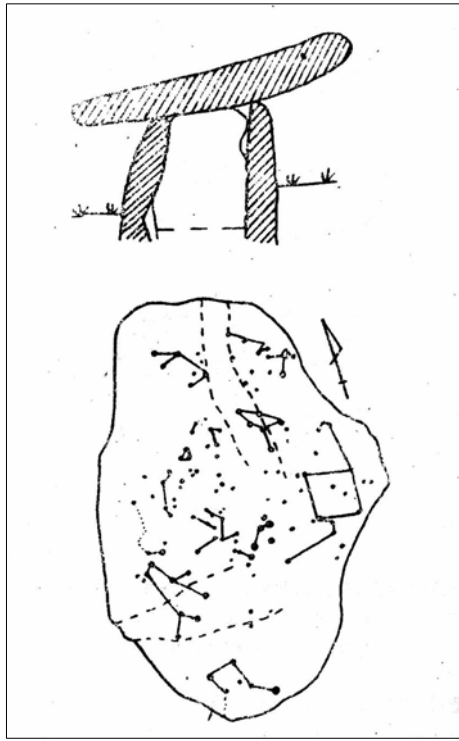
⑥ 二聖山城 내의 별자리바위

이성산성 안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3군데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바위는 거북이 형태의 바위로 그 등 위에 三台星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파여진 구멍의 크기는 별들의 밝기에 따라 다르다. 그 아래쪽에 있는 바위에는 큰 개자리와 작은개자리로 보이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157) 東臺子遺蹟은 정실 2칸과 측실 2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실인 東屋은 비교적 유구가 뚜렷하여 동서 15m, 남북 11m의 정방형으로 그 중앙에 큰 돌로된 石坐가 하나 놓여 있다.

유적은 성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七星바위와 더불어 백제인들의 별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古朝鮮의 고인돌의 덮개돌 위에 새겨진 별자리¹⁵⁸⁾에서 보여주는 고대의 신앙을 백제인들이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별자리와 백제의 영향권 내에 있던 일본 飛鳥지역의 다카마스고분[高松塚]과 기토라(キトラ)고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¹⁵⁹⁾

한국하천연구소 소장인 이형석의 조사에 의하면, 集安 國東大穴 입구의 마을 어귀에서 삼태성과 북두칠성이 새겨진 바위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박원길은 몽고에서는 삼태성이 생명을 주관하며,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⁶⁰⁾



158) 김동일, 「대동강유역은 고대천문학의 발원지」 『조선고고연구』 제1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9, 43~45쪽.

159) 明日香村教育委員會, 『キトラ古墳學術調査報告書』, 1987.

160)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민속원, 2001.

⑦ 七星바위

校山洞土城 내부의 북서쪽 모서리에 존재하며 폭 1m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7개의 자연바위를 2~5m간격으로 하여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하였고, 그 옆에는 치성을 드리던 바위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현재 하남위례성으로 보는 교산동토성 안의 안샘재에는 七星바위¹⁶¹⁾가 있는데 7개의 바위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이성산성 안의 9각형건물지와 동쪽 黔丹山 정상 사이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즉 검단산 정상의 東明廟 → 칠성바위 → 9각형건물지[天壇]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 신앙유적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백제인들의 전통신앙적 중심축¹⁶²⁾이었던 神聖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9각형건물지는 天壇이며, 7星 또한 하늘의 중심자리를 나타냄을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민간에 남아 있는 七星信仰·七星閣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고천왕 5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임성태자가 11년에 북진성공을 세우고 “北斗七曜石”을 봉납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러한 북두칠성요석의 실물이 현재 교산동토성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¹⁶³⁾ 칠성바위의 자루부분의 방향은 동명묘제단으로 보고 있는 동쪽 검단산 祭壇遺蹟의 방향과 같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眞北 방향이다. 진북이란 북극성 방향을 말하는데, 백제에는 북극성을 北辰妙見菩薩 또는 妙見尊星王으로 하는 칠성신앙이 있었다. 이것은 국토를 옹호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보살로 이것에 대한 경배는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正法護國信仰이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방향의 기준을 북극성

161) 대구시의 칠성바위는 바위가 널려있는 모습이 북두칠성을 닮아 있다. 충북 괴산군에도 칠성바위가 있고 단양군 大崗面에도 칠성바위가 있으며 단양팔경에도 七星巖이 있다.

162)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백제의 불교에도 북두칠성을 믿는 妙見信仰이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 불교로 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절에는 七星堂이 남아 있다.

163) 오순제, 앞의 책, 1995, 42쪽.

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雲住寺의 입구에서 좌측[서쪽]에 있는 와불 [미륵불, 여래불]쪽을 오르는 길목에 있는 칠성바위를 보면 북두칠성의 방위각과 밝기와 매우 흡사하여 고려시대 칠성신앙의 근거지이며 천문학적인 관측자료로써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절의 탑은 고려시대에 백제인들의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彌勒臥佛이 일어나는 날 백제인들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은 민중불교의 결집이라고 본다.

⑧ 동굴신앙유적

하남시 고골부근에는 서쪽에 호랑이굴과 金岩山磨崖佛 아래 의 동굴유적, 남쪽에는 法華寺址 의 동굴유적, 동쪽으로는 검단산 정상 아래 黔丹寺址의 동굴유적 등이 있다.

이것은 공주의 東穴寺·西穴寺·南穴寺와 같이 궁터를 중심으로 동·서·남쪽에 자리잡고 있던 동굴신앙유적과 불교유적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절터나 마애불이 같이 있다. 이러한 유적은 일본 九州의 熊本縣에서 발견된 동가라링(トソカラリソ)



구마모토의 동가라링

164)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熊本(구마모토), 久多羅(구다라) 등의 백제의 熊 [곰, 고마] 계 지명뿐만 아니라 鞠智城과 船山古墳을 비롯한 장식교분은 명백히 백제의

164) 古閑三博, 『夢甦る謎の隧道遺構トソカラリソ』, 三弘會, 1994.



공주의 남혈사지



금암산의 호랑이굴절터

것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지성에서 발견된 팔각건물은 하남시의 二聖山城 안에서 발견된 팔각건물과 같은 형태이며, 이곳에서는 백제의 막새와당이 출토되었고 그 부근에는 백제계의 황혈식고분인 船山古墳이 있어 백제유적임을 증명해주고 있다.¹⁶⁵⁾ 국지성의 중심연대를 현재는 6~7세기로 매우 낮추어 잡고 있으나, 그 주위에 나타나는 선산고분을 중심으로 한 장식고분들이 웅진시기 백제고분과 비슷한 것을 볼 때 그 시기를 올려 잡아

야 한다고 본다. 九州 구마모도의 유적들은 백제계의 유적으로 그들은 제주도를 중간에 두고 백제·중국과 교역하며 有明海를 통해 菊池川을 수로로 이용하다였고 본다.¹⁶⁶⁾ 즉 이곳에 나타나는 혈사지는 고구려의

165)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백제·전기신라 및 가야사-조선전사 개정판 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88~91쪽.

국동대혈 등과는 달리 동굴신앙이 불교와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공주와 일본의 구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백제시대의 동굴신앙유적은 한강변 양천구 가양동에 남아있는 孔巖유적이



백제시대의 孔巖

있는데, 고구려시대에는 齊次波依로 불려졌던 곳으로 “제사를 지내던

[祭處]바위”라는 뜻¹⁶⁷⁾으로 그 부근에서 백제시대의 軟質打捺 文土器片을 수습하여 백제시대의 동굴신앙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⁸⁾ 그 옆의 작은 산은 “塔山”으로 불리는데, 이곳에 塔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주의 東穴寺·西穴寺·南穴寺와 같이 동굴신앙유적이 불교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은 고구려의 국내성 동편 압록강가의 산위에서



강화도의 혈구

166) 尹明喆,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고대 동아시아중해의 해양교섭에 관한 연구」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법화사지복원추진위원회, 2000, 46쪽.

167) 李道學, 앞의 책, 1995.

168) 韓宗燮, 앞의 책, 1994.

발견된 國東大穴이라는 거대한 동굴유적과 매우 흡사하다. 고구려왕은 이곳에서 隧穴神을 모셨던 것으로 국내성에서 배를 타고 산아래 도착하여 동굴에 올라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¹⁶⁹⁾

필자는 이와 비슷한 “穴口[구멍바위]”유적이 江華島 佛恩面 三成里的 해발 466m의 穴口山에 남아있음을 조사하였는데, 고구려는 강화도를 차지한 후 穴口郡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렇게 강화도 전체를 가르키던 “穴口”라는 명칭이 혈구산에 있는 “穴口”에서 비롯된 것임을 본다면 이 바위동굴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아래·위 두 개의 동굴이 남아 있는 혈구는 滿洲 集安市의 國東大穴이나 경기도 하남시의 호랑이굴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동굴과 불교유적이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은 평양의 永明寺와 麒麟窟, 백제의 孔巖과 塔山, 하남시 호랑이굴과 절터, 공주의 동혈사·남혈사·서혈사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그 외에 扶安 竹幕洞祭祀遺蹟과 堂窟, 洛山의 觀音菩薩, 蔚州의 掌天窟神 등¹⁷⁰⁾이 있다.



고구려의 국동대혈

169) 申滢植, 『集安 高句麗遺蹟의 調査研究』, 國史編纂委員會, 1996, 169쪽.

170) 徐永大, 「百濟의 國家祭祀와 竹幕洞祭祀遺蹟의 性格에 대한 討論」,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研究』, 國立全州博物館, 1998, 148쪽.

특히 그 아래 골짜기에 穴口寺로 불려졌던 거대한 절터가 남아 있는데, 고려의 元宗이 1264년에 이 절에 大日王道場을 만들고 왕이 몸소 향을 공양하였다고¹⁷¹⁾한 중요한 사찰로서 이 유적이 고려시대까지도 중요한 신앙유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⑫ 연못지

현재 발굴 중인 교산동 대형건물지 안에서는 네모난 연못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네모난 연못지는 고구려 대성산성의 연못, 백제의 공산성 내의 방형연못지·부여 왕궁지의 연못지·정림사지 연못과 궁남지, 일본 아스카의 島庄遺蹟과 石神遺蹟·飛鳥池遺蹟 등이 方池¹⁷²⁾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것도 이성산성의 연못들과 함께 방형을 나타내고 있어 백제시기의 연못으로 추정된다. 이 연못에는 입수구와 출수구가 있고 그 연못 가운데에는 흙으로 만든 작은 산이 있는데, 三神山



교산동대형건물지의 방형연못지와 삼신산

171) 『高麗史』 卷26, 世家, 元宗 5年 6月 壬子.

172) 朴景子, 『雁鴨池 造營計劃 研究』, 學研文化社, 2001, 227쪽.

을 형상화한 듯한 작은 봉우리들이 있다. 이것은 민가나 관청 또는 사



비조연못의 삼신산

찰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중국의 秦·漢·唐시대 이후 皇家園林에서 一池三山 苑池에 조성된 蓬萊山·方丈山·瀛洲山을 형상화 한 것으로 왕궁의 연못에서만 볼 수 있는 삼신산을 나타내고 있는 것¹⁷³⁾이다.

또한 『三國史記』에 궁실을 중수하고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다는 기록¹⁷⁴⁾과 일치하

고 있어 이곳이 백제시대에 왕궁지였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은 宮南池로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3, 卷25, 毗有王 21년조에는 궁



부소산성 왕궁터의 방형연못지

173) 위와 같은 책, 226쪽.

174)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7年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

남지의 기록이 나오고 있다. 부여의 부소산성 바로 아래의 추정 왕궁지에서 남쪽으로 쪽 뺀 주작대로를 따라 가다보면 정림사지가 나오고, 이곳에서 더 내려가면 궁남지가 나오며 그 옆에 이궁지가 있다.



이성산성 내의 2차저수지(방형연못)



공산성의 백제 방형연못지



일본 아스카의 飛鳥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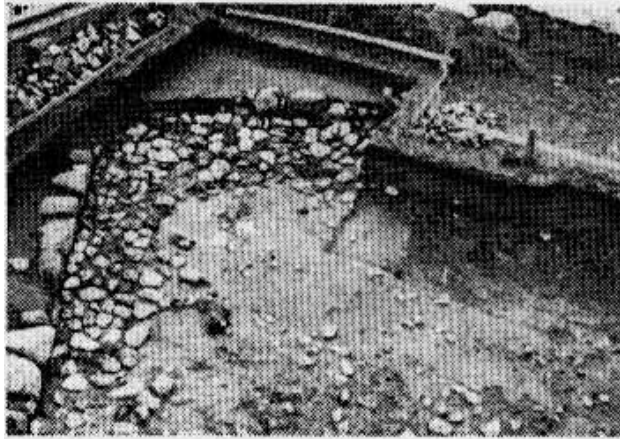
최근 천왕사 남쪽의 두머니에서 공사 도중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었을 발견되었다. 이것은 지하 약 3m 깊이에서 빨층이 약 1m 정도 두께로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또한 백제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형의 연못지였을 것으로 본다. 이 유적은 현재 추정 왕궁지인 교산동 대형건물지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천왕사, 추정궁 남지로 이어지고 있어 사비시대의 추정궁지, 정림사지, 궁남지로 되어 있는 도시 배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정림사의 백제 방형연못

현재 교산 동토성에서는 천왕사쪽으로 도로유적이 나오고 있고, 천왕사에서도 부석을 깔은 도로의 흔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사비시대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곳



일본 飛鳥의 島庄遺蹟

궁남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화재보호재단의 천왕사 발굴조사와 교산동토성 남측 발굴에서 도로유적이 나왔으며, 한

종섭은 교산동토성의 남문지와 남문으로부터 천왕사쪽으로 향하는 직

선상의 도로유적

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경주나 고구려의

평양지역의 조사

에서 드러난 도

로유적과 같이

부석을 깔아 만

든 것으로 그 양

측에는 큰 돌을

이용하여 배수로

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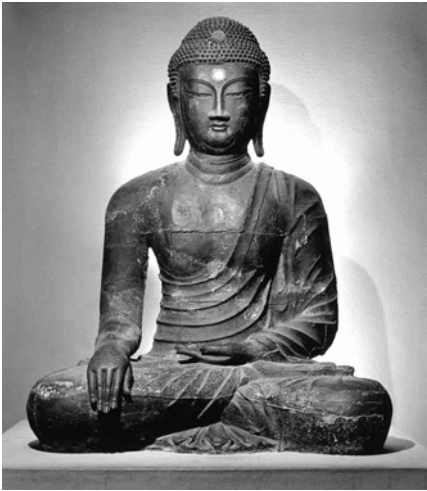
대성산성의 장수못

2) 하남시 고골 일대의 사찰유적

1992년 이후 필자와 백제문화연구회가 조사해 온 하남 일원의 백제시대 불교유적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天王寺址

일제 때 鮎貝房之進 등은 천왕사지에 토성과 주초석들이 있고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왕궁지로 지목¹⁷⁵⁾하기도 하였다. 이 곳은 원래 “천행이별”이라고 불려졌던 것으로, 하남시 향토사학자 이철재는 “天王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천왕사지 철불



천왕사의 명문기와

175) 鮎貝房之進, 앞의 논문, 1934. 11 ;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2, 47쪽.

1995년 3월에 필자와 하남시 문화재전문위원인 한종섭은 이 부근 지표를 조사하면서 “천왕”이라는 명문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天字가 “。”자 밑에 “大”로 되었고 그 후 “天王”이라고



천왕사 철불좌대

반듯하게 쓴 명문기와의를 수습함으로써 이곳이 거대한 평지사찰인 天王寺가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1995년 4월 하남시 향토사학자 김종규에 의해 전돌이 있는 곳이 발견되어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하던 과정에서 전돌 모퉁이에 구멍이 나있음을 보고 건축공학자인 강찬석은 땅에 깔았던 전돌이 아니라 전탑에 쓰였던 전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전돌 모퉁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근에 탑의 난간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난간석은 황룡사지나 미륵사지 난간석과 매우 흡사하였다.



천왕사 목탑 난간석



천왕사 상부목탑의 심초석과 사리공



부여 천왕사지의 목탑심초석

1995년 5월 14일 필자는 여주 지방을 답사하던 중 高達寺址의 ‘慧目山 高達禪院 國師 元宗大師之碑’에 “高麗 太祖의 청에 의해 廣州 天王寺에 주지로 있다가 혜목산 고달사로 옮겨갔다”¹⁷⁶⁾는 기록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高麗史』 卷132, 列傳 46, 叛逆 6, 辛旽에 “광주 천

왕사의 사리를 왕륜사에 옮겨다”라 하였고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15년 4월조에 “광주 천왕사의 佛舍利를 王輪寺에 안치하다”라고 하였으며 『世宗實錄』에 “광주 천왕사의 사리 10과를 궐내에 바치다”¹⁷⁷⁾하여 이 곳에 있던 사리를 왕에게 받쳤



익산 제석사의 7층목탑심초석

176) 慧目山 高達禪院 國師元宗大師之碑 “大王以大師 玄道周行 法身圓對 芳請廣州天王寺 遂從之住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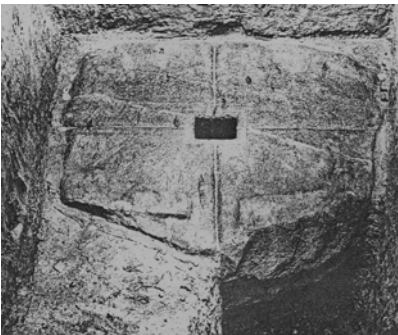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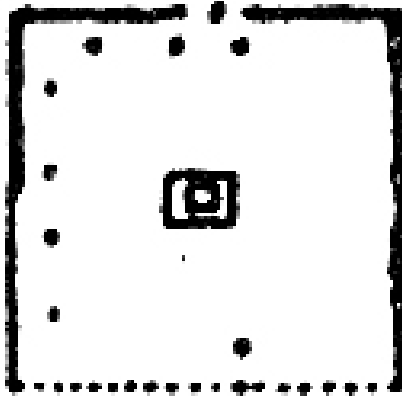
177) 『世宗實錄』 卷112, 28年 4月 23日 庚申 “納廣州天王寺舍利十枚于內”

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불교를 믿지 않았던 조선왕조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곳의 塔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왕륜사와 궐내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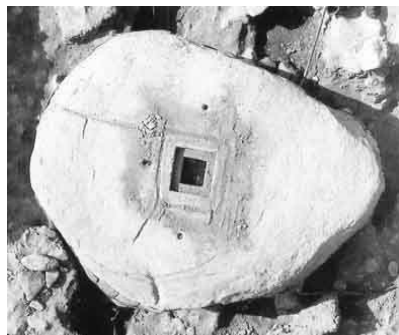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나라 최대의 廣州鐵佛을 필자는 이 천왕사에 있던 철불로 추정해 왔다. 그 이유는 광주철불이 이 부근의 작은 절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역 민중들이 만든 도피안사철불과는 달리 서산의 보원사철불보다 매우 우수하고 단아한 품격의 이 철불은 국가적 대사업이 아니고서는 조형될 수 없는 우수한 작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군수리사지의 목탑심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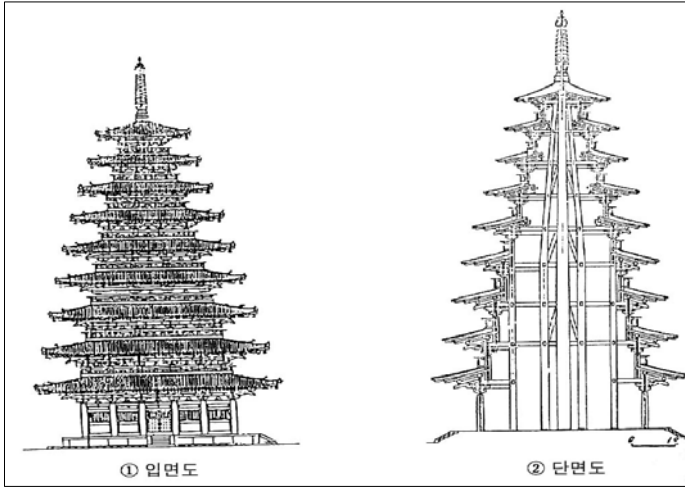


일본 飛鳥寺의 목탑심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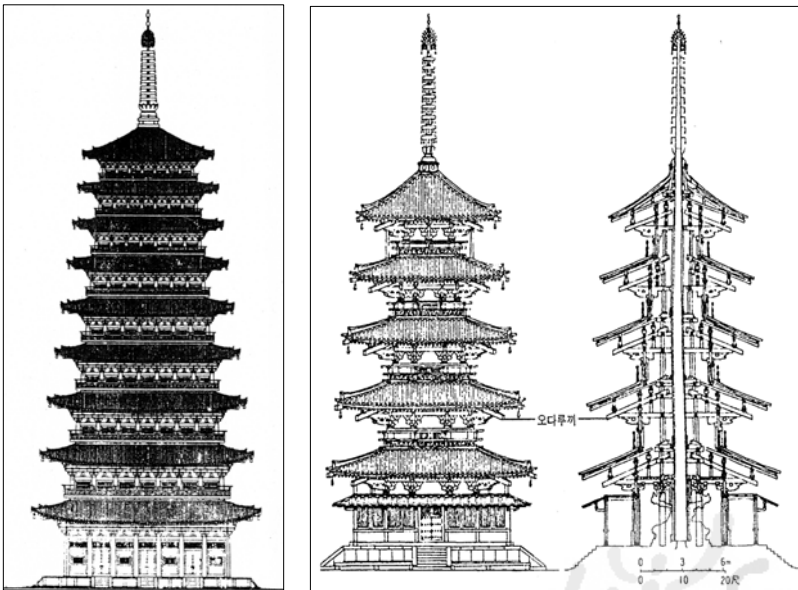


황룡사의 9층 목탑심초석

<그림 26> 익산 미륵사지의 9층목탑 복원도



<그림 27> 황룡사 9층목탑 <그림 28> 일본 나라의 법룡사 5층목탑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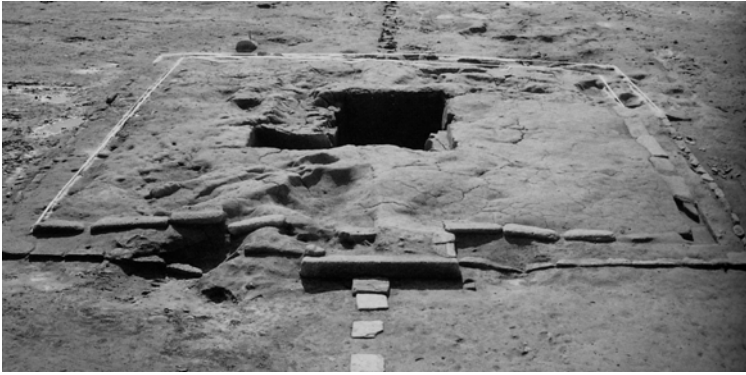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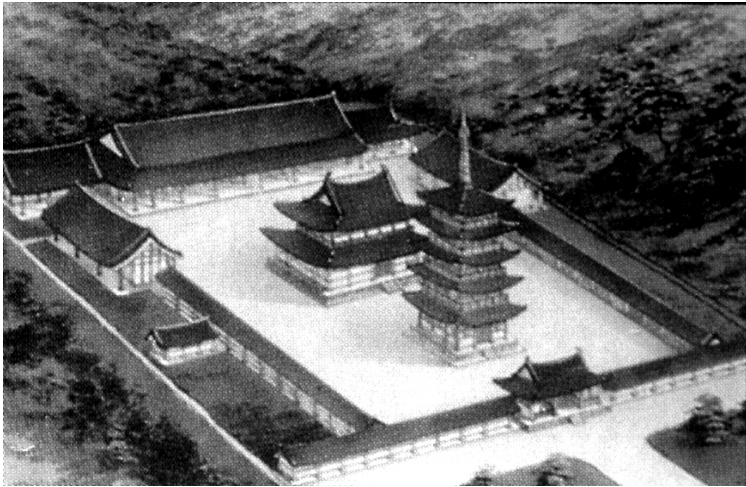
일본 나라의 법륜사 5층목탑



하쿠오(白鳳)시대의 약사사의 쌍목탑



부여 능산리사지의 목탑심초석



능산리사지의 복원도

필자가 철불의 좌대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던 중 1995년 3월 백제문화연구회는 교산동토성의 추정 왕궁지 바로 남쪽에 있는 민가에서八角의 불상좌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산동 남문지 남쪽 민가로 들어가는 도로에도 또 하나의 불상좌대가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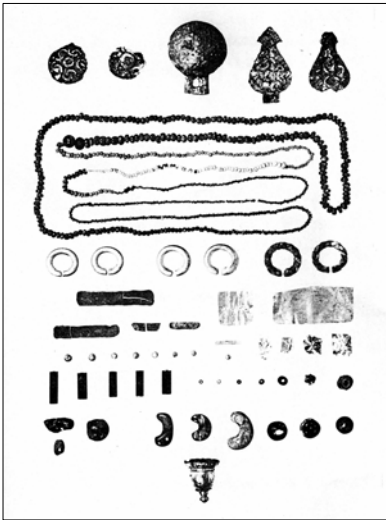
발견하였다. 현재 이 절터는 많은 민가들이 자리잡고 있고, 민가의 추녀 밑에는 절에 쓰였을 장대석이 박혀 있으며, 민가의 뒷뜰에는 이 절에서 사용되었을 초석과 화돌들이 남아있다.



천왕사의 백제막새와당



비조사목탑 심초석의 사리함



비조사 목탑 사리함 출토유물



고달사의 원종대사 부도



천왕사 작은 철불의 좌대

쓰였을 부재와 확돌 등이 향교 뜰에 있음도 확인하여 주었다.

1999년 여름에 전담부근에 있던 묘가 이장되면서 心礎石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舍利孔 구멍 안에 안치되었을 사리함 등의 유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된 자료¹⁷⁸⁾에서 하사창 동 폐사지 철불이 동·서로 있었는데 서쪽의 것은 크고 동쪽의 것은



천왕사지 하부의 목탑심초석

1995년 7월 백제문화연구회는 郷校 안의 초석들이 여러 가지 초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천왕사가 폐사된 후에 그 곳에서 가져다 쓴 초석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와 동시에 탑에

쓰였을 부재와 확돌 등이 향교 뜰에 있음도 확인하여 주었다. 작다고 하였다. 이 좌대가 작은 철불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01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발굴로 백제시대의 수막새기와, 거대한 목탑지 1동, 건물지 1동, 담장시설 3렬, 배수시설 3렬 등이 드러났다.¹⁷⁹⁾

178) 朝鮮總督府, 『大正六年遺蹟調査資料』, 1920, 604~609쪽.

<표 2> 삼국시대의 목탑지 심초석의 비교

국가	사찰명	목탑 기단부의 크기	심초석의 크기	사리공 외부의 크기	사리공 내부의 크기	사리공의 깊이	초석의 크기
백 제	제석사	1250×1250	180×180	60×25	없음	18	80×72
	구아리사지	?	104×92	17.5×17.5	11×10.5	13	?
	친왕사	?	148×138	42×42	32×32	39	70×80
	능사지	1030×1030	106×130.5	높이 74cm, 밑변 50cm의 사리감 설치	높이 45cm, 너비 25.3cm (사리감 안의 사리공)	24.5	?
	군수리사지	46척×46척 (1333.9cm)	3.1척×3.1척 (약93.9cm)	?	?	?	?
	동사지	2800×2800	직경 510cm, 한변 210cm인 팔각형	220×140	직경 45	24.5	96×90
	서복사지	820×820	?	?	?	?	?
	미륵사지	1700×1700	?	?	?	?	120×120
	금강사지	47척×47척 (1424cm)	직경6.6척 (200cm)	직경 4척 (121cm)	?	2.2척 (66.7cm)	?
	용정리사지	1850×1850	?	?	?	?	?
신 라	황룡사지	2220×2220	400×300	29×29	20×20	27.5	100×120
	사천왕사지	2100×2100	117×117	29×29	23×23	33	61×61
	망덕사지	1610×1620	직경이 138cm, 한변 51cm인 팔각형	30×30	24.5×24.5	31	68×63
	기림사지	630×635	70×60	20.5×20.5	11×11	21	50×48
	홍륜사지	직경1500,한변 770의 팔각형	?	?	?	?	?
	보문사지	32×32척 (969.7cm)	4.47×4.47척 (135cm)	직경 4.11척 (124.5cm)	직경 1.03척 (31.2cm)	?	?
	낭산서록사지	1200×1200	직경96의 팔각형	27×27	17×17	28	?

특히 이곳 天王寺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6년 5월

17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試掘調査 略報告書』, 2001.

조¹⁸⁰⁾에 보이는 절로 사비시대에도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의 명칭인 天王은 제석사의 “帝釋”과 함께 우리의 전통사상인 하늘[天神 : 하느님] 숭배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백제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찰로서 한성시기의 三山인 崇山·漢山·釜山 등의 중심이며, 사상적 정점에 자리잡은 須彌山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탑은 미륵사지 목탑 뿐만 아니라 신라 황룡사의 목탑을 비롯하여 일본 나라지방의 비조사·법륜사 등의 목탑들이 모두 백제인들의 손에 의해 건립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목탑 또한 백제 한성시기에 건립된 거대한 목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鮎貝房之進¹⁸¹⁾은 하상창동인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와편을 수습하였고 토루와 대형초석 10여개가 있다고 하여 이곳이 백제시대의 유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도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¹⁸²⁾

특히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탑의 심초석은 2개로, 상부에 나타나고 있는 심초석은 백제 사비시대의 천왕사지·군수리사지·제석사지·능산리사지 등에서 나오는 목탑심초석과 백제인들에 의해 건립된 일본 아스카[飛鳥]의 비조사 목탑심초석, 백제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황룡사 목탑심초석이나 경주 사천왕사의 목탑심초석과 같다. 이 중에서도 사천왕사는 쌍탑식의 목탑으로 그 시기가 가장 늦은 문무왕 때이므로 이곳에 있는 심초석은 그 이전인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사각으로 되어있는 사리공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하부에 나타나고 있는 목탑의 심초석은 상부의 심초석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우리 나라 목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백제의 한성시기로 추정된다.

180) 震天王·道讓二寺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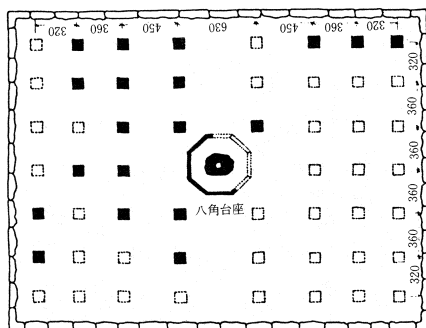
181) 鮎貝房之進, 앞의 논문, 1934.11.

182)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2,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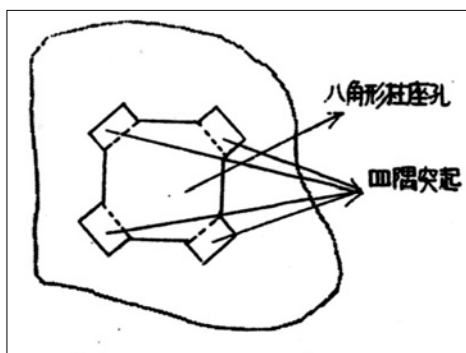
② 桐寺址

동국대학교의 발굴 조사(183)에 의하면 현재의 대원사 절터 입구 쪽에서 삼국시대의 절터유적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백제문화연구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왔다. 날씨가 매우 가물었던 1993년 여름에 桐寺 앞의 저수지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언저리에 토기와 와편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 주민들은 이 저수지가 일제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저수지까지 절터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¹⁸⁴⁾ 동국대학교에서 발굴한 동사의 금당지

<그림 29> 동사지



<그림 30> 약초제사 심초석 사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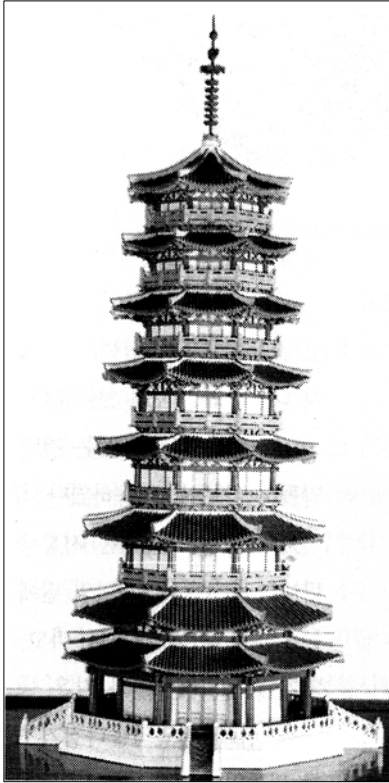


불상좌대로 추정되는 곳에는 원형 안에 팔각형이 있고, 그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파인 대형 초석이 놓여져 있었으며, 그 바깥의 사방에는 초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을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실측하여 보니, 고한척에 가까운 동서 28m, 남북 28m의 정방형을 이루

183) 동국대학교, 『광주 춘궁리 동사지발굴보고서』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도, 1988.

184) 오순제, 앞의 책, 1995, 71~72쪽.

<그림 31> 금강사탑 복원도



고 있었다. 강찬석은 이것을 고구려의 금강사지·정릉사지·상오리사지·토성리사지 등의 8각木塔址와 비교함으로써, 목탑지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금당의 불상좌대라면 황룡사지 금당과 같이 벽면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치우쳐 있지 않고 건물지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목탑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나라 최대의 목탑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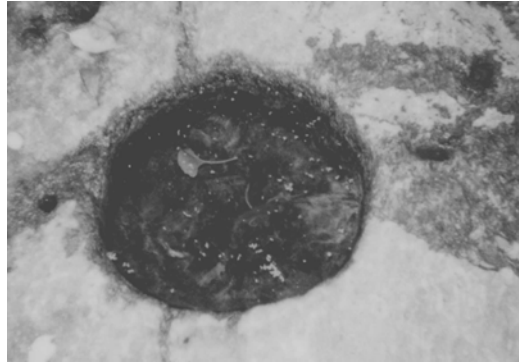
2002년 여름 필자와 백제문화연구회의 한중섭·전성영·박상효 등은 백제와 신라시대의 심초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주의 천왕사와 마주하고 있는 망덕사지와 낭산서록사지¹⁸⁵⁾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이곳의 심초석은 동사지와 마찬가지로 팔각형¹⁸⁶⁾을 하고 있

었으며, 그 주위에는 사각형으로 다듬어진 초석들이 동서로 4열, 남북으로 4열이 배치되어 있는 중앙에 심초석이 있었다. 다른 건물지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원형으로 다듬어진 초석들이 쓰여졌는데, 망덕사

185) 朴日薰, 『慶州狼山西麓의 木塔址』 『考古美術』 63·64, 考古美術同人會, 1965.

186) 日本의 나라지역의 若草伽藍址 心礎石도 八角形의 舍利孔을 가지고 있으며 네모서리에는 돌기가 나와 있다.(李殷昌, 『扶餘 舊衙里寺址 心礎石』 『考古美術』 第6·7卷, 1964).

지와 함께 사천왕사·
황룡사·기림사·제석
사지·미륵사지 등을
조사하여 보니, 기림사
의 목탑지에는 심초석
주위의 4개의 초석만
사각형으로 다듬었고,
나머지는 자연석의 표
면만 다듬은 것을 쓰기
는 했지만 대부분의 목



동사지심초석의 축구멍

탑지에는 사각형으로 다듬은 초석들이 쓰여졌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황
룡사 목탑지는 8열×8열, 기림사 목탑지는 4열×4열, 망덕사 목탑지는 4
열×4열, 미륵사 목탑지는 6열×6열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 심
초석이 놓여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곳은 목탑지의 심초석이였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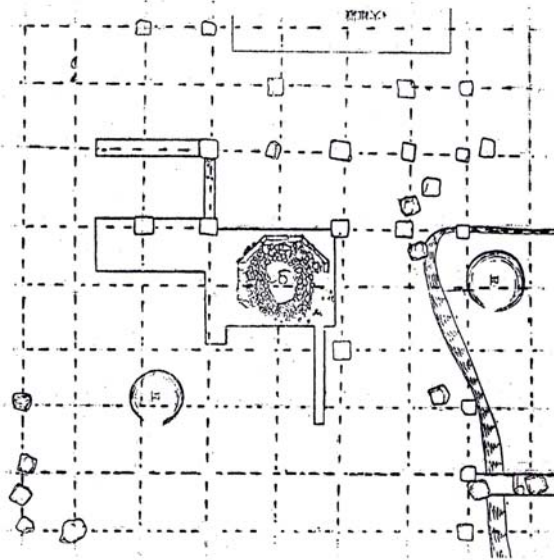
수 있었다. 그리고 황룡
사의 심초석에는 덮개
석이 움직이지 못하도
록¹⁸⁷⁾ 4개의 지름 약
10cm의 축구멍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도 축구
멍이 동·서 방향으로
두 곳이 남아있어 이곳
이 목탑지의 심초석임
을 증명해주고 있다.



동사목탑지의 솟막새기와

187) 부여의 군수리사지 심초석의 발굴당시의 사진을 보면 덮개석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朝鮮古蹟研究會,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古蹟調査報告』, 1936).

<그림 32> 동사목탑지 재실측도



그리고 흥륜사를 발굴한 申昌秀(188)에 의하면 이 사찰은 동·서 양쪽의 목탑지가 8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직경이 19m로 한 변은 7.7m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탑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유구가 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단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동사

지의 팔각심초석과 비교되나 초석이나 적심석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동사지의 발굴도면 <그림 29>에는 8칸×7칸의 금당지로 되어있었는데, 필자와 한종섭이 발굴 당시의 도면과 현재 노출된 초석들을 재실측(<그림 32>)한 결과, 9칸×9칸으로 1~2줄이 빠져 있음을 알았다. 즉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목탑지 중에서 칸수가 가장 많고 가장 큰 규모의 목탑지로서 그 구조 또한 특이하여 필자는 천왕사 하부목탑이 맨 먼저 건립되었고 그후 동사지목탑을 거쳐 천왕사지 상부목탑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현재 동사지 입구의 건물지에는 목탑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방형초석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원래는 방형의 초석이었는데 윗부분 원형으로 다듬은 것이 남아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있다.

188) 申昌秀, 앞의 논문, 2002.



그리고 1998년 6월 현재 목탑지의 서쪽 평탄지에서 치미조각을 발견하였는데 황룡사의 치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 도깨비암막새와편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현재 대원사라는



동사의 치미조각

절터의 대응전 앞과 장독대 부근에 남아있는 대형초석들은 금당지에 사용하였던 초석들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목탑지의 초석렬이 정동쪽에서 시계방향으로 20°정도 틀어진 방향으로 백제시대 당시의 방향과 일치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부여의 금강사지가 동서방향으로 배치된 것¹⁸⁹⁾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사지의 심초석이 자연암반에 원형으로 뚫려있는 것 또한 일치하고 있어 이 사찰 또한 금당이 왕궁지가 있었던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門址는 현재 춘궁동쪽에서 넘어오는 산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으로 올라오는 중간에는 작은 절터가 남아있으며, 현재 석탑이 있는 부근에는 주초석들이 남아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심초석 부근에서 한층섭이 수습한 숫막새와 암막새기와는 테두리의 아래쪽까지 무늬가 있어 다른 숫막새와 그 용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목탑에 쓰였던 기와로 아래쪽에서 보이는 부분까지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89) 尹武炳, 『金剛寺址』, 國立博物館, 1969.

③ 金岩山磨崖佛

동국대학교의 발굴¹⁹⁰⁾에서는 “마애불의 머리와 팔이 파괴되긴 했지만 그 모습이 장중하며 옷주름이 U자형으로 매우 굽게 되어 있어 백제의 泰安磨崖佛과 흡사하다”고 하였다. 또 바위절터[岩寺址]나 예산의 四面石佛과 같이 바닥에 잔돌을 깔았으며 백제시대의 외편이 나온다고 하였다. 필자와 한중섭이 공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마애불의 머리가 추정 왕궁터를 바라보고 있고, 마애불 → 동사 → 능너머고분 → 궁터 → 선법사로 이어짐을 확인¹⁹¹⁾하였으며, 파괴된 머리조각을 땅에 깔려 있던 돌조각에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실 기둥구멍으로 보이는 두 개의 구멍사이의 거리가 80cm로서 古韓尺¹⁹²⁾으로 환산하면 3尺이 되어 백제시대에 지어진 절로 추정된다.

그 아래 동굴에서 무속인이 2개의 불상을 발견하여 발굴팀에게 준 것을 확인하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금동불을 수습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이곳이 穴寺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④ 藥井寺址

하남시 고골 지역이 한산이었음을 확인할 유물을 찾던 중에 하남시 향토사학자인 김종규가 이 절터에서 찾아낸 “藥井寺”라는 명문기와를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필자가 여러 기록들을 조사하던 중에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 佛宇條에서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藥井寺在漢山)”라는 구절을 발견하여 이 부근이 漢山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그와 아울러 正祖 때에 지은 『梵宇攷』 廣州 寺刹 藥井寺條에서는 “모두 한산에 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俱在漢山今廢)”라고 하여, 지금으

190) 동국대, 앞의 책, 1988, 113~114쪽.

191) 한중섭, 앞의 책, 1994, 53~56쪽.

192) 아라이 히로시(新井宏, 앞의 책. 平成 4年)는 통일신라가 당적을 쓰기 이전인 즉 삼국시대 이전 한국에서 쓰인 척으로 2.67cm를 1척으로 하고 있다.

로부터 200여년 전에 없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¹⁹³⁾

이것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枕流王 원년(384) 9월에 胡僧¹⁹⁴⁾인 마라난타가 썸으로부터 오자 왕이 이를 맞아 궁내에서 예의로써 공경하였으며, 다음 해 2월에 佛寺를 漢山에 창건하고 度僧 10명을 두었다고 한 기록과 일치한 것이다.¹⁹⁵⁾ 즉 금암산에서 남한산성의 주봉인 청량산에 이르는 지역이 한산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⑤ 神福禪寺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神福禪寺俱在漢山”¹⁹⁶⁾이라고 하여 이 지역에 신복선사가 존재하였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李穀의 『廣州神福禪寺 中興記』¹⁹⁷⁾와 洪敬謀가 쓴 『南漢誌』와 『東文選』에 의하면 고려말 당시 이곳의 명문거족인 朴璉魯가 후원자가 되어 고려 忠肅王 당시인 1314년 시작하여 1323년에 완성한 대찰로 되어 있다.

김종규는 널무니[廣門峴]로 올라가는 길목의 골짜기가 “신부골”로 불려지고 있어, 이 곳을 조사하던 중에 대형의 석축을 쌓은 절터를 발견하였다.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수차에 걸쳐 이 곳을 조사하던 중 고려시대의 거대한 사찰터였음이 밝혀졌다.¹⁹⁸⁾

⑥ 奉水寺址

향동의 부처골에서 당초문암막새와당·점선문와당이 나오고 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奉水寺俱在漢山”라고 하여 약정사와 함

193) 오순제, 앞의 책, 1995, 73~74쪽.

194) 『海東高僧傳』 卷1, 流通一之一, 釋摩羅難陀條에는 그가 온 곳을 竺乾(인도의 간다라)이라 하였다.

195) 오순제, 앞의 책, 1995, 121~130쪽.

19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廣州牧, 佛宇條.

197) 李穀, 『稼亭集』, 卷3.

198) 오순제, 앞의 논문, 2000, 37쪽.

께 한산에 있었으나 正祖 당시에는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물맛이 좋은 우물이 남아있는데, 필자와 김종규는 이 곳을 봉수사지로 지목하고 있다.

⑦ 慈化寺址

具敏會가 쓴 『南漢秘史』는 금암산 밑의 절을 일제 때 鳥居龍藏이 발굴하던 도중에 구민회가 방문하여 그곳에서 나온 일본의 범룡사의 벽화글씨와 필법이 동일한 “法隆寺”라고 쓰여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¹⁹⁹⁾ 이 사찰을 조사하던 중 “慈化寺” “慈化寺施主”라는 고려 시대의 명문기와를 찾아내게 되었다.

현재 이 곳에는 민묘가 자리잡고 있으며, 깨어진 불상조각과 초석들이 남아있다. 구민회는 일제 때 도리이[鳥居龍藏]가 이곳을 발굴할 당시 범룡사라는 명문기와를 확인한 바 있어, 필자는 백제시대에 法隆寺라는 절이 있다가 하남위례성이 함락되면서 사라진 터에 고려시대에 성역화 되면서 자화사라는 절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⑧ 法華寺址

법화사는 淸나라가 남한산성을 공격하던 중에 황제의 사위인 양고리가 북문전투에서 전사당하자, 전쟁이 끝난 후에 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절로서 그의 출생지인 法華屯을 따서 법화사라 하였다고 한다.²⁰⁰⁾ 백제문화연구회는 이 곳을 답사하여 동굴을 발견하고, 백제시대의 타날 문연질토기를 수습하여 백제시대의 절터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필자는 이 절을 공주시대에 왕궁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했던 穴寺址와 같은 백제시대의 동굴사원으로 한성시대의 南穴寺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199) 구민회, 『南漢秘史－백제구도－』, 광주문화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 1956.

200) 이철재, 『하남의 역사』, 피플뱅크, 1995, 381~382쪽.

⑨ 과목산절터

하남시 향토사학자 김종규는 향동의 과목산에서 칠연엽숫막새와당을 수습하였는데, 가운데 동심원 속에 작은 둥근 원이 있고 도드라져 나와 있으며, 주위에는 동심원이 있고, 그 속에는 작은 점들이 줄줄이 도드라져 있고, 그 사이에 배치된 7개의 연꽃잎은 하트모양이다. 필자가 답사하여 보니 객산을 마주 바라보는 좋은 위치로 격자문와편이 나오고 있어 백제시대의 절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²⁰¹⁾

⑩ 호랑이굴절터

1997년 필자가 혈사유적을 답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종규가 금암산 밑에 호랑이굴이 존재함을 제보하였다. 백제문화연구회에서는 이곳을 답사하여 혈구나 국동대혈과 비슷한 구조의 동굴과 절터를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 절터가 교산동 추정왕궁지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어 한성시대의 西穴寺址에 해당되는 절로 생각한다.

⑪ 북쪽사지

백제문화연구회와 세종대학²⁰²⁾은 교산동토성 서쪽 성벽을 북으로 쫓아 답사하던 중에 성벽의 제일 끝 쪽에서 탑에 쓰인 석재와 와편을 발견하였다. 이 곳은 절터가 들어서기에는 매우 작은 공간이었다. 이 곳에 세운 탑은 한강 쪽에서 들어올 때나 향교고개, 혹은 사리고개를 넘어 올 때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이는 높은 위치로 인하여 백제 당시에 중요한 사상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²⁰³⁾ 이 당시 북쪽사지 언덕 아래 논에서 백제시대의 삼족토기편도 발견하였다.

201) 오순제, 앞의 논문, 2000.

202) 世宗大 世宗研究院, 앞의 책, 1996, 216-223쪽.

203) 오순제, 앞의 책, 1995, 74쪽.

⑫ 안샘재절터

교산동토성 안에서 절터를 찾던 중에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안샘재절터가 교산동토성 안에 존재하고, 안샘이라고 불리우던 우물²⁰⁴과 연꽃잎이 새겨진 주초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조사하여 보니, 이 곳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와편들이 널려져 있었다. 이 곳은 교산동토성 안에 존재하던 절로 선법사터에 있었던 고대의 사찰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⁰⁵

⑬ 禪法寺

선법사는 객산폭포와 약수가 있는 곳으로, 폭포 옆에는 약사여래불이 새겨져 있으며, 그 옆에는 “太平二年丁丑七月二十九日, 古石佛在如賜以重修, 爲今上皇帝萬歲願”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흥직은 태평 2년을 宋나라 太平興國 2년인 高麗 景宗 2년(977)으로 보고 있다. 古石佛과 重修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사찰을 고려시대에 다시 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백제문화연구회의 조사과정에서 선법사 바로 뒤의 언덕에서 주초석과 6각형기단석 및 축대를 발견하였는데, 이 축대는 추정왕궁터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백제시대의 와편과 토기편이 나오고 있어 백제시대의 사찰지였음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마애불의 발 밑에는 선법사 주지스님이 공사 중에 발견한 八蓮葉의 좌대가 놓여져 있는데, 백제시대의 막새와당과 흡사하면서 그 중심에는 5개의 원이 새겨져 있어 五方을 나타내주고 있다.²⁰⁶ 특히 선

204) “안샘재”와 “바깥샘재”가 있는데, 교산동토성 안에 있는 것을 안샘재, 교산동토성 바깥에 있던 우물을 바깥샘재라고 불렀던 것을 확인하였다.

205) 吳舜濟, 앞의 논문, 2000, 101쪽.

206) 吳舜濟, 앞의 책, 1995, 70쪽.

법사를 지을 때에 고식기와의 퇴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스님이 전해 주었다.

⑭ 계두사지

필자가 선리에서 나온 명문기와의 “北漢受國蟹口船” 중에서 蟹口에 대해 연구하던 중에 이성산성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계내 [蟹川]”임을 알게 되었다.²⁰⁷⁾ 또한 백제문화연구회는 향교고개 부근 계내의 발원이 되는 샘물 근처에 “계두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일대를 조사하였다. 필자는 이 절이 위치한 지역은 계내의 발원지로 “계내”와 머리 頭, 절 寺를 합쳐 “계두사[蟹頭寺]”로 불려졌음을 알게 되었다.

⑮ 黔丹寺址

검단사지는 최근 조사된 절터로, 검단산 정상 바로 아래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강건너의 덕소·팔당과 고골을 포함한 하남시 전체가 조망되는 중요한 사찰이다. 이 절터에서도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교산동 추정왕궁지의 동쪽에 있으므로 필자는 이것을 한성시대의 東穴寺址로 생각한다.

⑯ 岩寺[바위절터]

岩寺는 암사동에 있는 절터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伯仲寺로 되어 있다.²⁰⁸⁾ 이곳은 1987년 동국대학교에서 발굴하였으며, 백제시대의 절터로 판명되었다. 이 암사는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의 낙화암과 비슷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²⁰⁹⁾ 현재 龜山土城을 지나 한강의 물줄

207) 위와 같은 책, 52쪽.

20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廣州牧, 佛宇條 “伯仲寺 一名巖寺 在下津站東”

기가 활처럼 휘어지는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 건너의 아차산 일대의 동정이 그대로 조망되는 곳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곳은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하남시의 서북쪽 방어의 요충지인 구산토성과 뱅개토루·미사리유적 등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곳에 신라시대의 절터가 9개가 있어 구암사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암사동 토성의 끝자락이 한강변으로 빼죽히 나온 좁다란 지형으로 9개의 절터가 자리잡을 수 없는 매우 좁은 지형이고, 현재 이곳에 龜巖亭이라는 정자가 복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龜山土城²¹⁰과 함께 하남시 고골 지역에서 북쪽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산 또는 바위로 “龜山” 또는 “龜巖”이라고 불려졌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고구려의 사신도에서 북쪽을 지키는 神武가 거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기 왕도의 북쪽 강변을 지켰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유적은 후백제의 수도였던 全州의 북쪽 물가를 수호하였던 “거북바위”에서도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²¹¹⁾

지금까지 조사된 것들을 통해 보면, 현재 백제시대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는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에서는 단 한 곳의 사찰터도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하남시 고골이라는 일정한 지역에서 15곳에 이르는 불교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이곳이 백제가 절을 지었

209) 東國大學校 博物館, 『漢江邊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 1987.

210) 구산토성은 백제 당시에는 蛇城으로 불려졌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의 玄武圖를 참고해 보면 뱀 또한 북쪽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11) 한중섭의 조사에 의하면 거북바위는 후백제도성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고 그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북바위의 머리 부분은 별개의 돌로 되어 있으며 다른 쪽을 바라보도록 축조되어 있다.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판축부는 하남시의 뱅개의 방어토축과 같은 수법으로 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자들이 동원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漢山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를 이은 고려는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이곳이 한반도 내부에서 대승불교가 최초로 전파되어온 불교의 성지이며, 그것도 인도불교가 직수입된 곳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도움지가 아닌 데도 엄청난 불사를 도모하였다고 본다.

4. 백제 초기도성인 漢城의 방위체제

도성이란 고대국가의 상징인 왕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곳을 빼앗긴다는 것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되었듯이 河南慰禮城을 교산동토성에 比定하고, 수도의 방위구조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산동토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으로 黔丹山城, 서쪽으로 二聖山城, 남으로 南漢山城이 犄角之勢를 이루어 하나의 지역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단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의 수로를 防守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풍납토성·몽촌토성·암사동토성 등이 수도로 통하는 西路·北路를 방수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남한산성은 도성과 짝을 이루어 피난처의 기능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도성 방위체제에서 특징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수도가 河南에 위치함으로써 江岸에 분포하는 성들이 隔江相對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풍납토성과 아차산성, 암사동토성+천호동토성과 아차산성, 구산토성과 수석리토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지리적 공통점은 교통로에 위치한다는 점과 한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여울목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성방어체제 중에서 교문리·망우리를 거쳐 峨嵋山 일원에 남아 있는 長城遺蹟은 아차산성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이루면서 한강쪽을 향



전주 후백제도성의 거북바위

하고 있다. 그 끝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포진되어 있다. 특히 가래여울이라는 도강 지점이 있던 수석리토성과 강건너의 암사동토성·구산토성이 이 주위를 감시하였을 것이다. 선동쪽의 바우배기·토투막이·뱅개를 통해 龜山土城까지 이어지던 여러 개의 제방들과 荒山·미사리의 둔전유적들이 구산

토성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천마산에서 일자산으로 이어지는 구릉도 몽촌토성 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백제의 도성체제는 고구려의 도성체제인 ‘평지성+산성’의 체제를 답습하기는 했어도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성시기의 도성체제는 삼면을 두르고 있는 능선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나성을 구축하였는데, 외부와의 통로인 고갯길에 옹로라는 특수한 차단시설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옹로가 대대적으로 구축된 것은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쳐서 고국원왕을 죽인 후 고구려의 대대적 침입을 막기 위해 漢山인 남한산성으로 수도를 옮겼을 당시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남한산성의 별봉쪽에 남아 있는 토성과 흥두개바람재의 옹로들이다.

이러한 甕路유적은 능선부의 교통로인 덜미재·세미길·막은데미·말바위·溫泉洞·客山 동북쪽 능선부에 남아 있다. 그 외에도 나

성의 바깥에는 진터골·마천동·검단산쪽의 衛城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강변을 막은 제방유적 또한 특이한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이 제방은 창우리 → 더오개 → 신평리 → 장수동 → 구산토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쪽에서 시작된 능선이 金岩山·二聖山城·荒山을 거쳐 龜山土城으로 이어지고, 벌봉쪽에서 시작된 능선은 밖으로는 동쪽 검단산쪽으로, 안으로는 객산쪽으로 이어져 쥐봉을 거쳐 동쪽 검단산의 끝부분인 倉隅里에서 만나 제방과 연결되어 완벽한 나성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옹로의 존재는 빈번한 외침을 극복하기 위한 백제왕도 수호의 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하남위례성의 수도방위체제를 인공위성에서 본 모습

백제의 수도방위체제를 알아보면 가장 바깥쪽에 교문리와 망우리고개를 거쳐 아차산 일원에 남아 있는 長城遺蹟이 아차산성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이루면서 한강쪽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다. 그 끝에 해당하는 것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포진되어 있다. 아차산의 동쪽 왕숙천변에는 가래여울이라는 도강지점이 있어 수석리토성을 중심으로 안산성·역촌토성 등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 성은 강건너의 암사동토성과 함께 隔江相對하고 있다. 가래여울의 건너편 선동쪽에는 바우배기·토투막이·뱅개에서 구산토성까지 이어지던 여러 개의 제방들과 황산·미사리의 둔전유적들이 구산토성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본다. 특히 구산토성에서 일자산을 거쳐 천마산까지 이어지는 구릉은 몽촌토성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안쪽에는 구산토성에서 이성산성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구산토성에서 검단산에 이르는 제방유적, 구산토성에서 쥐봉과 객산을 거쳐 남한산성의 별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부는 자연적인 나성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나성이었다는 것은 옹로라는 특수한 차단시설이 존재되기 때문이다. 도성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校山洞土城·居民城·南漢山城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특히 객산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능선부 중에 별봉쪽에 존재하는 홍두깨 바람재의 옹로들은 이곳이 최후의 저항처였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산성은 백제수도의 마지막 보루로써 매우 중요한 避難城의 역할을 수행했던 산성으로 高句麗의 丸都山城과 비견되던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에는 나타나지 않는 백제만의 특징은 한강쪽의 제방유적과 남한산성 후방에 구축된 退路이다. 제방유적은 홍수방지 뿐만 아니라 방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사비시대에 구축된 금강변의 나성유적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남한산성 남쪽 검단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배재까지 이어지는 토축의 長城유적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성유적은 아차산장성과 더불어 백제의 독특한 도성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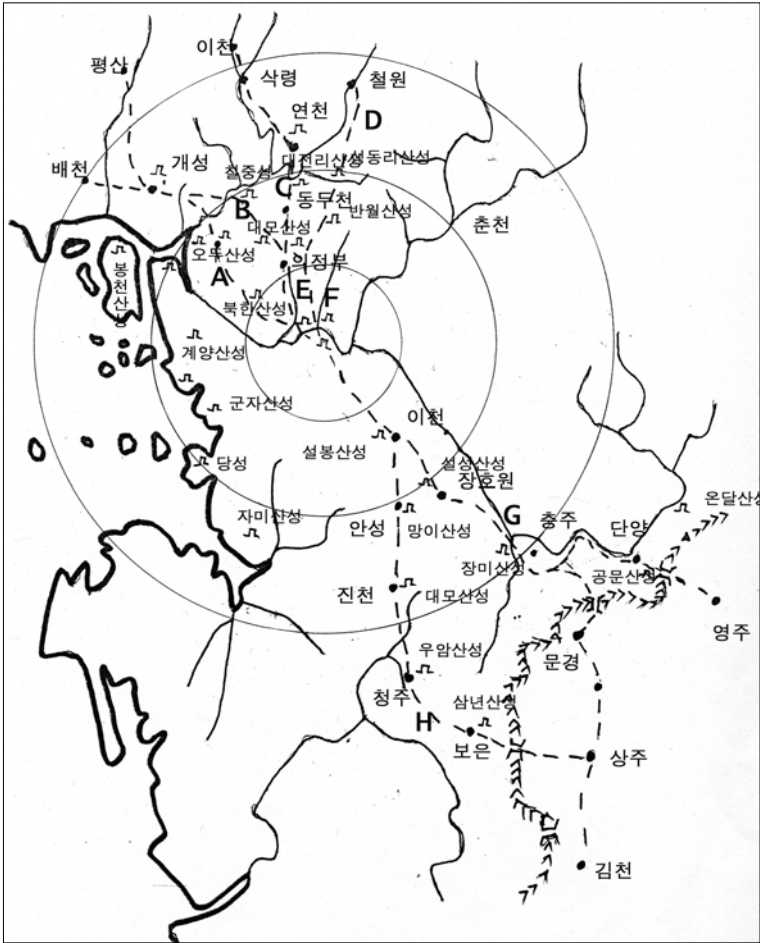
어시설로 고구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²¹²⁾

한성시기에 구축된 전국방위체제 중에서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북방 방어체제는 백제가 한강유역에 자리잡은 후 溟河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아 예성강에서 임진강 사이는 군사지역으로, 임진강에서 한강 사이는 행정지역이 되었다. 특히 예성강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곳은 한성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辰斯王 2년(A.D. 385)에 15세 이상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靑木嶺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八坤城, 남으로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關防을 설치하였다. 예성강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여러 루트들은 開城을 지나게 되어 청목령으로 비정되는 개성이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루트에는 坡州의 草坪島를 통한 통일로 방향(A코스), 積城의 七重河[戍灘]와 瓠蘆灘를 통한 양주방향(B코스), 漢灘江의 아우라지와 밤나무골 등을 통한 의정부방향(C코스), 포천을 통한 남양주방향(D코스)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도 호로탄과 술탄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곳에는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이 있으며 그 후방의 七重城이 중심성 역할을 하였다.

적성·양주(B코스), 연천·의정부(C코스), 철원·포천(D코스)의 방향들은 남양주쪽으로 이동하는 왕숙천변과 서울쪽으로 이동하는 중랑천변의 자연통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랑천루트(E코스)는 호로고루와 육계토성 → 칠중성 → 설마치(감악산) → 대모산성(양주) → 이성재산성 → 초안산토성 → 상계동보루 → 불암산성 → 봉화산보루 → 아차산성 → 풍납토성 → 몽촌토성 → 이성산성에 이르고 있다. 왕숙천루트(F코스)는 대모산성(양주쪽)·대전리토성(연천쪽)·반월산성(포천쪽) → 부용산성 → 국사봉보루 → 불암산성 → 옛성산성 → 안산성 → 수석리토성 → 구산토성 → 이성산성에 이르고 있다.

212) 고구려는 천리장성과 연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장성유적이 있긴 하지만 도성의 방어시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33> 하남시 고골을 중심으로 한 백제한성기의 전국방위체제



신라에 대한 남방방어체제는 竹嶺·鷄立嶺방향(G코스)과 화령(H코스), 추풍령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죽령과 계림령 방향(G코스)은 忠州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이 남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백제

의 수도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일 진흥왕이 죽령을 넘어 단양의 적성을 발판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한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彈琴臺城·薔薇山城·娑娑城·述川城·芙蓉山城·驛村土城 등이 강변에 배치되어 있어 남한강의 水路를 차단하고 있다. 陸路로는 忠州 → 長湖院 → 利川 → 廣州로 이동하는 길목에 충주의 장미산성, 장호원의 雪城山城, 이천의 雪峰山城, 광주의 남한산성·이성산성 등이 포진되어 있어 길목을 차단해주고 있다. 화령방향(H코스)을 보면 신라는 초기부터 尙州지역을 거점으로 報恩지역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왔다. 이곳을 점령하면 淸州지역으로 진출이 용이해져 백제의 허리가 잘리는 형상이 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백제로서는 이 지역에 수많은 성곽들을 구축하였다. 즉 보은(삼년산성) → 청주(우암산성) → 진천(대모산성) → 안성(망이산성·죽주산성) → 이천(설봉산성) → 광주(남한산성·이성산성) 등의 교통의 요로에 성곽들을 포진시켰던 것이다.

특히 백제는 “百家濟海”라는 國號가 말해주듯이 예성강 하구로부터 시작하여 강화·인천·안산·남양만·아산만에 걸친 서해안을 바탕으로 황해를 주름잡았던 해양강국으로 그 수도가 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어 수로를 이용한 교통이 매우 발달되었다. 그러므로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京畿灣에 대한 해양방어체제는 백제의 수도방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강화도는 봉천산성, 김포는 계양산성, 시흥은 군자산성, 남양만은 당성, 아산만은 자미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방어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특히 文鶴山城 일대와 南陽灣 장개·사기섬·매바위 등 개죽포 일대와 始興의 君子山城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甕路 시설은 적을 유인 섬멸하는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백제의 해양방어체제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한성시기 방어체제는 도성을 축으로 원을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 원은 북으로 예성강, 남으로는 충주와 청주, 해양쪽은 강화도로부터

터 아산만의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중간 원은 북으로 임진강, 남으로 장호원과 안성, 서쪽으로 춘천, 해양지역은 김포·인천·군자·남양·평택 등의 해안방어성들이 해당된다. 제일 안쪽의 원은 북으로 의정부·북한산성, 남으로 이천·양평이 해당된다.

백제는 북의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의 내륙을 지키고, 예성강 하구로부터 인천·안산·남양만·아산만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가진 경기만 지역을 지키며 소백산맥과 경계로 한 신라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에 사방에 중심성별로 횡과 종으로 많은 성곽들을 축성하는 四位防禦體制를 구축하였다.

한성시기 도성 방어체제는 도성을 중심으로 동·서·남에 위치하는 산성이 犄角之勢를 이루고 있고, 그 산성들이 핵심이 되어 강변에 분포하는 여러 성들을 건사하고 있는 이른바 위성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강안에 분포하는 성들은 거의 어김없이 隔江相對하고 있었음이 도성 방어체제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백제초기의 도성체제를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대도시의 특징을 바탕으로 고고학적 유적과 문헌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러나 많은 유적들이 파괴·교란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발굴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국고대국가 초기의 王都를 쿨랑주(Coulanges)와 비트포겔(Wittfogel)의 「고대도시이론」을 수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활용하여 수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현재까지 고구려의 도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이른바 ‘平地城+山城’이라는 도성체제라는 기본틀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으므로 백제의 왕도도 같은 민족적·문화적 맥락에서 부여·고구

려·발해·일본의 도성체제를 참고로 해명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고대사회에 있어서 왕도는 당시 지배자의 거처인 왕궁과 각종의 중앙관청 및 王京人들이 거주하였던 그 시대 정치·사회·문화·종교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치구조상 육상과 수상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의 거점이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우선 화려한 궁정시설과 각종 중앙관부의 遺址가 집중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도로망·수로망이 깔렸으며 동시에 왕권의 권위와 天祭를 위한 여러 가지 사당·사찰의 건물지가 포진되어 있었다. 또한 고대국가의 이념적 바탕이 된 사찰지와 고분도 밀집되었다. 말하자면 당시 세계[우주]의 중심지며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어시설인 성곽과 목책, 해자와 산악의 자연적 능선부를 이용한 방어망이 구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의 수도인 國內城에서 확인된 왕궁을 비롯한 도시유적과 東臺子遺蹟 등 신앙유적 및 우산·칠성산·용산 등에 남아 있는 1만여 기의 고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골일대의 도시유적에서 확인된 대형 토성, 거대한 建物址와 수많은 寺刹址를 비롯하여 각종의 祭壇과 우물지, 그리고 고분 등은 백제초기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고대 왕성의 형성 과정에서 그 필수 조건을 통하여 볼 때 하남위례성으로 보는 교산동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남시 고골일대는 북으로는 한강을 자연해자로 하고, 동으로는 검단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금암산과 이성산이 보호막의 구실을 하고 있다. 남쪽에는 한산으로 보는 청량산에 남한산성이라는 요새가 자리잡고 있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남북으로 긴 평야와 얇은 구릉지대이다. 특히 이곳의 중앙에는 대형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외곽에 天王寺를 비롯하여 동사·약정사·자화사·신복선사·법화사·봉수사·선법사·안샘재절터·계두사지·법화사지·검단사지·과목산절터·호랑이굴절터·북단사지 등의 절터와 금암산마애불 등의 불교유적이 있으며, 동명

묘제단 · 남단 · 9각형건물지[천단] · 8각형건물지[지단] · 12각건물지 · 칠성바위 등의 신앙유적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한강쪽으로 펼쳐진 평야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유적들도 남아 있으며, 사방에 黔丹이라는 지명이 배치되어 있어 백제의 五方思想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웅진시대 사방에 穴寺를 배치한 것과 매우 흡사한 현상이다.

백제는 교산동토성과 이성산성 · 거민성이 있는 하남시 고골을 중심으로 배후에 남한산성이라는 요새를 구축하고 금암산과 객산줄기를 이용하고 강변의 제방유적을 이용하여 초기적인 나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 밖으로 안산성 · 역촌토성 · 수석리토성 · 아차산성과 장성유적 · 몽촌토성 · 풍납토성을 포진시킨 수도방위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예성강에서 남한강 중 · 상류에 이르기까지 사위방위체계의 전국방위체계를 형성하여 고구려와 신라쪽을 방어하였다.

이러한 방어선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에게 패하게 된 것은 곡창인 한강유역 확보가 국가의 존망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즉 국초 이래 5세기까지 말갈 · 낙랑 · 고구려 등의 위협으로부터 이곳을 지켜야 하는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였고, 6세기 이후에는 신라와의 충돌이 잇달아 계속된 국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백제는 한강유역 확보에 지나친 출혈을 강요받아 국력의 낭비가 심해져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²¹³⁾ 더구나 한성말기에 왕권강화로 인한 귀족층과의 갈등과 내분은 국력을 분열 · 약화시켰다.²¹⁴⁾

고구려의 鎧馬를 앞세운 철기부대 등 전력의 우세와 기동력이 있는 기마전술의 구사에 패전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213) 申滢植, 앞의 책, 1992, 54~57쪽.

214) 再曾架婁와 古爾萬年是 본래 백제의 귀족으로 고구려로 투항하여 장수왕의 백제 공격에 앞장을 선 장수들이다.(『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條).

道琳 등의 첩자들을 이용해 왕을 충동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백성의 불만을 고조시켜 국민적 결집력을 와해시켰다. 이와 아울러 再曾桀²¹⁵⁾ 등 장수들의 고구려로의 이탈로 군사들의 안전한 이동로, 성곽의 분포와 군사들의 배치상황 등 중요한 군사적 기밀이 누출된 것이 한성백제 패망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5) 하남시에 남아있는 설화에 의하면 그는 도미부인의 시동생으로 되어 있어 자기형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고구려군의 선봉을 섰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 연구

곽 건 홍*

1. 머리말
2. 서울지역 공업구조의 특징
 - (1) 공장의 증가와 업종별 구성
 - (2) 업종별 내부구성
3. 제조업 노동자의 내부구성
 - (1) 업종별 · 성별 · 연령별 구성
 - (2) 직종별 · 기능별 구성
 - (3) 지역별 구성
 - (4) 규모별 구성
4.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비
 - (1) 노동임금
 - (2) 가계수지와 생계
5. 맺음말

1. 머리말

1960년대 박정희정권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가 양적으

*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로 팽창했다. 이 시기 산업구조는 제2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제2차산업은 1961년 19.5%에서 1966년 24.5%로 증가했다.1) 제2차산업의 구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동자계급 내부구성에도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1963년 4월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한층 강화하여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다. 이 시기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초하였다. 또한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경제성장정책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저임금을 강요했으며, 그것은 저곡가 정책을 통해 유지되었다.

생산현장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재해에 노출되었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출역군’·‘산업전사’로 포장되어 갔다. 즉 노동자는 ‘조국 근대화의 진정한 역군이며 전사(戰士)’로 묘사되었다. 1960년대 매년 40% 이상 수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전사’인 노동자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땀 흘려 일”했기 때문이었다.2)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력을 통해서였다. 1960년대 노동자계급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감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 파업에 나타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70% 이상이 임금인상 문제였다.3)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는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의 분신으로 상징화되었다.

노동사 분야에서 1960년대 연구는 주로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사 연구에 집중되었다.4) 노동자 상태를 분석한 연구 또한 서울지역

1) 김중렬, 『노동문제총론』, 집현사, 1969, 305쪽.

2) 심용택, 『자립에의 의지-박정희대통령어록-』, 한림출판사, 1973, 100~101쪽.

3)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 1971, 253쪽.

4)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 ; 清水敏行, 『朴

제조업 노동자를 특정해서 다루지 않았으므로,⁵⁾ 노동자계급 구성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 노동자의 전체 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서울지역은 경제개발계획의 중심도시인 동시에 1960년대 내내 제조업노동자의 비율이 전국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자가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1960년대 전체 제조업 노동자를 이해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 파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였기 때문이다.⁶⁾ 파업이 많이 발생한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파업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생활상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제조업 노동자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조업 노동자가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여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내부구성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넷째, 1930년대 이후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높았던 서울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단절이 아닌 연속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正熙維新體制と勞動統制の展開(一)~(三)』, 『北大法學』 第36卷 第5・6號・第37卷 第4號・第38卷 第2號, 1987~1988 ; 김삼수, 『1960년대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백산서당, 1999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 박기호, 『한국의 노동쟁의 I』,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4 ; 이은진, 『한국의 노동쟁의 II』,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4.

- 5) 황명주, 『한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 1963-1972』,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6) 1966년 전국의 총 노동자파업 건수는 10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서울지역은 22건으로 21.2%를 차지했다(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 1971, 258쪽).

Hi Seoul

SOUL OF ASIA

요컨대 한국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 노동자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연구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1970년대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이 시기는 前史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지역 공업구조의 특징

(1) 공장의 증가와 업종별 구성

1969년 현재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전국의 제조업체 수는 25,111개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은 6,429개(25.6%)로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았다.⁷⁾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서울지역의 업종별 비율은 식료품제조업 9.7%, 섬유제조업 29.6%, 신발류·의복류제조업 41.4%, 종이제품제조업 22.5%, 인쇄출판업 47.7%, 고무제품제조업 30.6%, 화학제품제조업 36.8%, 제1차금속제조업 35.8%, 금속제품제조업 36.4%, 기계제조업 29.2%, 전기기계기구제조업 55.5%, 기타제조업 34.4%로 대부분의 업종이 서울지역에 독점적으로 분포했다.⁸⁾ 이처럼 서울지역은 1960년대 공업의 중심 도시였으며, 그 변화과정은 곧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7) 1964년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3,293개로 전국 제조업체 9,323개의 35.3%를 차지했다(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64, 211쪽).

8)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9, 198~204쪽.

<표 1> 업종별 공장 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업종별 \ 연도별	1961	1963	1967	1969
식품제조업	210	191	171	316
음료제조업	48	43	40	14
섬유제조업	323	400	480	569
靴類 · 의류제조업	78	53	118	798
제재목제품제조업	113	93	88	106
가구제품제조업	33	73	70	46
紙類제품제조업	51	72	112	73
인쇄출판同類似業	143	172	223	300
피혁제품제조업	35	28	21	30
고무제품제조업	60	38	57	43
화학공업	269	297	379	164
석유 · 석탄제품제조업	208	294	143	172
유리 · 土石제품제조업	84	115	107	162
제1차금속제조업	128	88	142	135
금속제품제조업	191	218	233	247
기계제품제조업	162	180	251	201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40	177	237	237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91	78	131	71
기타 제조업	189	196	298	229
총수	2,556	2,806	3,301	3,913

자료 : 서울특별시, 『第二回 統計年報』, 1962, 54쪽.
 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226쪽.
 서울특별시, 『서울統計年報』, 1968, 184쪽.
 서울특별시, 『생산동태조사 기업체명부』, 1969.

첫째, 서울지역의 전체 제조업체 수는 1961년을 지수 100으로 하면, 1963년 109, 1967년 129, 1969년 153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서울의 공장 수 증가는 특히 靴類 · 의류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1961년에 비해 1969년에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한 인쇄출

판업 2배, 섬유공업 1.7배, 식료품제조업 1.5배 등 소비재공업을 중심으로 공장 수가 증가했다.

둘째, 서울지역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업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1961년은 섬유제조업 12.6%, 화학공업 10.5%, 식료품제조업 8.2%, 석유·석탄제조업 8.1% 순이었으며, 1967년에는 섬유제조업 14.5%, 화학공업 11.4%, 기타제조업 9.0%, 기계제품제조업 7.6%, 전기기계기구제조업 7.1%로 변화했다. 또한 1969년에는 화류·의류제조업 20.3%, 섬유제조업 14.5%, 식료품제조업 8.0%, 인쇄출판업 7.6%, 금속제품제조업 6.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6.0% 순이었다. 공업의 업종별 비율에서 섬유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 기계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2) 업종별 내부구성

제조업의 업종별 내부구성을 1969년 『생산동태조사 기업체명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섬유제조업은 편직업의 비율이 41.0%, 직물제조업 35.5%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방직업 및 제사업은 16.8%였다. 전체의 20.3%로 서울의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화류·의류제조업은 주로 양복 등을 생산하는 의복류제조업이었다. 의복류제조업은 화류·의류제조업의 86.8%를 차지했다. 식료품제조업은 빵·과자·사탕과자제조업이 56.3%, 인쇄출판업은 상업적 인쇄업이 64.0%를 차지했다. 석유·석탄제품제조업은 주로 연탄제조업으로 77.9%였으며, 유리·토석제품제조업은 벽돌·기와 등을 생산하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67.2%, 금속제품제조업은 알루미늄·스텐레스 기물을 생산하는 범랑철기·프레스 가공금속제품 제조업이 25.9%,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동기·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전기

기계기구제조업이 29.1%, 기타제조업은 가발·완구 생산이 53.7%를 차지했다.

요컨대 서울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내부구성을 공장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요 생산품목은 스웨터·내의·양말·면직물·양복·가구류·인쇄물·연탄·벽돌·기와·빵·과자·법랑·가발·완구·플라스틱제품 등이었다. 이것은 서울지역 공업 생산의 특징이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 중심의 경공업이었음을 의미했다.

<표 2> 공업의 업종별 내부구성·생산품목·업체수

	업종별 내부구성	주요 생산품목	업체수
식료품 제조업	도살·육제품·낙농제조업	소시지, 우유, 베이컨	5
	과실·야채·어류·기타 해산물통조림업, 저림업	과일통조림, 과일잼, 수산통조림	14
	도정업 및 제분업(도정업 제외)	밀가루, 소맥분	5
	빵, 과자 및 사탕과자 제조업	빵, 생과자, 건빵, 사탕	178
	제당 및 정당업	당분, 특미당, 정당	2
	장류,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	장유, 간장, 고추장, 된장	57
	인조빙 제조업	인조빙	21
	기타 식료품제조업	사료, 라면, 건면	35
음료품 제조업	청량식품제조업	사이다, 콜라, 쥬스	14
섬유 제조업	방직업 및 제사업	면사, 인견사, 나이트론사, 연사	96
	직물제조업	광목면포, 면직물, 나이트론	202
	편직업	스웨터, 내의, 양말	238
	로우프 및 어망제조업	어망, 벽지, 갈포	12
	기타 섬유공업	솜, 옷솜	11
靴類· 의류 제조업	화류제조업(고무신 제외)	양화	98
	의복류제조업	양복, 양장	693
	기타직물제품 제조업	천막, 이불, 자수커튼	7
제재 목제품 제조업	제재업	제재, 목재	94
	합판 및 베니아판 제조업	합판	2
	목상자 및 목통류 제조업	목상자	3



	업종별 내부구성	주요 생산품목	업체수
	죽제 및 코르크제조업	코르크병마개, 죽제품, 코르크제품	6
	기타 목제품 제조업	성냥유목	1
가구제품 제조업	목가구제조업	가구류, 책상	115
	금속가구제조업	금고, 철제가구(의자, 책상)	33
	기타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문짝	4
紙類제품 제조업	지류 및 지류제품제조업	화장지, 신문용지, 포장지, 종이	45
	지류가공제품제조업	은박지, 벽지, 지대	28
인쇄출판 同類業	신문발행업	신문	25
	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교과서, 각종 서적	48
	기타 인쇄 출판업	상표, 포스터	22
	상업적 인쇄업	인쇄물	192
	노트, 장부 및 유사업 제조업	노트, 장부	13
피혁제품 제조업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혁류 및 의복류 제외)	복수혁, 갑피	17
	피혁제품제조업(혁류 및 의복류 제외)	가방, 핸드백	13
고무 제품 제조업	고무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타이어 재생, 각종 튜브	6
	고무제화류 및 부속품제조업	고무신, 구두창 및 굽	16
	재생고무 제조업	재생고무	5
	공업용 고무제조업	고무호스, 호스, V벨트	10
	기타고무제조업	고무줄, 고무스폰지	7
화학 공업	공업용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산소, 가성소다, 염산	43
	비료제조업	규산질비료	1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양초, 야자유, 아마인유	26
	도료·안료·염료제조업	각종 도료, 안료	20
	합성수지 제조업	요소수지	1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탁비누, 인쇄잉크, 농약	60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석유정제업	윤활유, 구리스	5
	연탄제조업	연탄	134
	건축용점토제품제조업	타일, 기와, 적연와	33
유리· 土石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거울, 애플관, 각종 병	34
	시멘트제조업	시멘트	1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벽돌, 기와	10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비석, 각종 석공품	18

	업종별 내부구성	주요 생산품목	업체수
제1차금속 제조업	제1차 철강제조업	주물, 박강판	47
	제1차 비철금속제조업	주물, 알루미늄판, 동판	88
금속제품 제조업	양철관 및 기타철관제품 제조업	각종 제관	13
	도물수 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망치, 팽이, 공구류	39
	위생장치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	석유풍로, 연탄난로	21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새시, 철창살, 보일러	37
	법랑철기, 프레스 가공금속제품 제조업	스텐레스기물, 알루미늄기물	64
	선재제품 제조업	스프링, 철강, 첩	33
	볼트, 너트, 나사 등 제조업	볼트, 너트	3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금고	4
기계제품 제조업	원동기 제조업	보일러, 피스톤, 발동기	19
	농업용 기계제조업	분무기, 탈곡기	9
	건설용, 광산용 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분쇄기, 콘크리트제조기	10
	금속가공기계제조업	선반, 프레스, 절단기	33
	섬유기계제조업	타면기, 횡편기, 편직기	28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정미기, 인쇄기, 제단기	24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	압축기	39
	사무용, 가정용기계기구제조업	타자기, 선풍기, 미싱 부속	22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기계부분품 제조업	밸브, 건조기	8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69
	비산업용 전기기구 제조업	송풍기, 선풍기, 냉장고	18
	통신기계기구 및 유사품 제조업	전화기, 라디오, TV수상기	42
	전선 및 케이블제조업	전선, 케이블, 나동선	28
	전구제조업	조명전구, 백열전구, 형광등	44
	전지제조업	축전지	13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소켓, 플러그스위치, 변압기	21
운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철도차량제조업	기관차부속, 객화차부속	6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조립, 자동차부속	41
	자전거제조업	자동차부속, 삼륜차	24
기타 제조업	의료 과학 및 계측조정용 기계기구 제조업	온도계, 측정기	17
	사진기 및 광학기계기구 제조업	현미경, 안경렌즈	7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 PVC제품	64
	칠기제조업	칠기공예	12

	업종별 내부구성	주요 생산품목	업체수
	사무용품 및 회화용품 제조업	흑판, 크레용, 색연필, 펜, 볼펜	15
	시계 및 동부속품 제조업	시계, 시계줄, 탁상시계	15
	기타 제조업	가발, 완구, 피아노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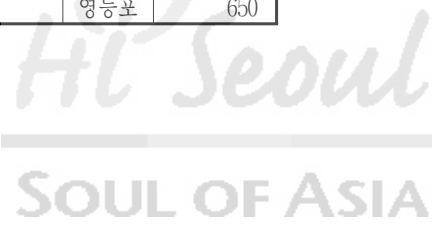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생산동태조사 기업체명부』, 1969.

<표 3>의 통계에 따르면, 1969년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는 52개였다. 그 가운데 섬유제조업이 21개 업체로 40.3%를 차지했으며, 기타제조업 15.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9.6%, 식료품제조업 7.6% 순이었다. 또한 대규모 제조업체의 지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영등포가 28개 업체로 53.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구 15.8%였다. 즉 대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섬유제조업 중심의 영등포 공장지대가 서울지역 공업의 핵심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⁹⁾ 특히 영등포 공장지대는 전 업종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노동자 규모도 5,000명 이상을 고용한 방림방적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섬유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9) 영등포 공장지대는 1930년대 이후 ‘조선공업화’정책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일제 군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1941년 현재 서울 지역에서 영등포 공장지대가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공장 수는 6.4%였으나, 공업생산액은 36.4%를 차지하여 대규모 공장이 밀집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남한 지역의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곽건홍, 『해방 직후 영등포 공장지대와 노동운동』, 『역사연구』 제9호, 2001, 136·140쪽).

<표 3>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체(1969)

업종별	사업체명	생산품목	소재지	노동자수
식품제조업	미도식품공업사	미도뉴슈가	용산	500
	서울미원주식회사	글루탐산민소다	영등포	917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라면	성북	1,035
	롯데공업주식회사	라면	영등포	500
음료제조업	-	-	-	-
섬유제조업	금성방직주식회사	연사	중구	3,026
	동일방직주식회사	연사, 광목면포	중구	1,715
	조선방직공업주식회사	연사	중구	2,000
	중화실업주식회사	생사	중구	1,000
	조선방직공업주식회사	S.F사	중구	2,310
	동영물산주식회사	나이론사	동대문	590
	동광기업주식회사	혼방사, 화학사	영등포	637
	한국모방주식회사	소모사, 방모사	영등포	1,639
	대한모방공업주식회사	모사, 소모직, 방모직	영등포	2,143
	방립방직주식회사	사류, 면포	영등포	5,045
섬유제조업	경성방직주식회사	면사, 면직물	영등포	2,221
	조선산업진흥주식회사	트리코지	동대문	609
	남영나이론주식회사	직물, 내의	영등포	629
	노량진공장	스웨터	중구	619
	한국모방주식회사	스웨터	중구	593
	범한산업진흥주식회사	스웨터	동대문	555
	조광산업진흥주식회사	양말, Y셔츠, 의류	동대문	609
	신창산업사	스웨터	성북	506
	근신산업주식회사	내의	마포	500
	미원산업주식회사	스웨터	용산	570
靴類·의류 제조업	대흥섬유주식회사	스웨터	영등포	800
	고려피혁공업주식회사	장화	영등포	506
	삼호공업주식회사	의복류	성북	654
제재목제품제조업	서광산업주식회사	내의	영등포	564
	가구제품제조업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철제가구	영등포



업종별	사업체명	생산품목	소재지	노동자수
紙類제품제조업	신흥제지공업주식회사	크라프트지	영등포	578
인쇄출판同類似業	동아출판사	참고서, 인쇄물	중구	773
피혁제품제조업	고려피혁공업주식회사	피혁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고무제품제조업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각종 튜브, 고무신, 고무호스	영등포	2,370
화학공업	-	-	-	-
석유및석탄제품제조업	-	-	-	-
유리·土石제품제조업	-	-	-	-
제1차금속제조업	한국철강주식회사	박강판	영등포	2,000
금속제품제조업	한일공업주식회사	지퍼, 입전면도	영등포	724
기계제품제조업	동양기계공업주식회사	제초기	영등포	600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국제전기기업주식회사	변압기	성북	533
	한영공업주식회사	전동기, 변압기	영등포	580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전화기	성동	730
	에미코어주식회사	실리콘 트랜지스터	영등포	661
	대한전선주식회사	나동선	영등포	519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동양기계공업주식회사	각종 기어변속장치	영등포	600
	기아산업주식회사	삼륜차, 이륜차	영등포	1,513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타이어튜브	영등포	662
기타 제조업	대동화학주식회사	비닐시트	성동	1,278
	우일화학공업사	PVC제품	영등포	512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비닐시트	영등포	2,370
	한일공업주식회사	펜	영등포	679
	동양미신제조주식회사	시계	영등포	699
	고수가발공장	가발	동대문	508
	한국교역진흥주식회사	공예품	마포	1,587
	서울통상주식회사	가발	영등포	1,529

자료 : 서울특별시, 『생산동태조사 기업체명부』, 1969.

* 인쇄출판업은 신문발행업 제외. 동아일보사(971명), 한국일보사(681명), 조선일보사(572명), 중앙일보사(548명).

Hi Seoul

SOUL OF ASIA

<표 4> 서울지역의 공장 규모별 구성(1967년) (단위 : 개)

업종별	구분	9명 이하	10~100명	101~200명	200~500명	501~1000명	계
식품제조업		66	88	11	4	1	171
음료제조업		7	28	3	2	-	40
방직업		67	319	71	16	2	480
靴類·의류제조업		19	87	9	2	1	118
제재목제품제조업		32	56	-	-	-	88
가구제품제조업		12	56	2	-	-	70
紙類제품제조업		21	83	5	2	1	112
인쇄출판同類似業		71	132	11	6	3	223
피혁제품제조업		2	13	6	-	-	21
고무제품제조업		16	36	2	-	2	57
화학공업		98	253	12	14	-	379
석탄제품제조업		78	62	2	1	-	143
유리·土石제품제조업		9	78	14	6	-	107
제1차금속제조업		21	111	6	4	-	142
금속제품제조업		55	167	8	3	-	233
기계제품제조업		71	168	7	5	-	251
전기기계기구제조업		40	172	15	9	1	237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28	91	7	4	1	131
기타 제조업		56	207	26	7	2	298
총수		769	2,207	217	85	14	3,301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統計年報』, 1968, 184~185쪽.

* 대기업 500명 이상, 중소기업 10명 이상, 영세기업 9명 이하임.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서울지역의 공장 규모별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 501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제조업체 비율은 0.4%에 지나지 않았으나, 9명 이하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은 23.4%, 10~100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는 약 66.9%, 101~500명을 고용하는 중규모 제조업체는 9.3%였다. 소규모 기업·영세기업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했으며, 대기업의 비율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이 52개 업체로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서울지역은 해방 후 일제의 군수산업 해체, 귀속기업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획득한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방향은 소비재공업인 섬유제조업·의류제조업을 기초로 점차 생산재공업인 기계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 생산품목이 일부 변화했지만, 규모별 제조업체 수로 보면 소규모기업과 영세기업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 점은 1930년대 이래 서울지역의 공업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었다.

3. 제조업 노동자의 내부구성

(1) 업종별·성별·연령별 구성

1961년 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2,577,10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취업자 총수는 531,987명이었다.¹⁰⁾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는 30,713명으로 5.7%에 지나지 않았으며, 상업 종사자 132,359명(24.9%), 서비스업 종사자 68,029명(12.8%), 기타업 종사자 173,337명(32.6%)이었다. 또한 14세부터 60세 사이의 실업자는 133,219명이었다.¹¹⁾ 즉 이 시기까지 서울지역의 제조업 노동

10) 1962년 12월 전국의 14세 이상 인구는 총 15,023,000명으로 그 가운데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7,310,000명이었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714,000명이었다. 1965년에는 각각 16,645,000명, 7,495,000명, 896,000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7, 208쪽).

11) 서울특별시, 『第二回 統計年報』, 1962, 22~23쪽.

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지역의 제조업 노동자가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가운데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어떤 부문에서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 내부구성을 업종·연령·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체의 노동자 수는 1961년 80,477명에서 1964년 80,160명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다가 1967년 158,046명으로 증가하였고, 1969년에는 253,570명¹²⁾으로 급증했다. 1961년에 비해 1969년에 약 2.9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에 노동자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노동자 수 증가는 섬유제조업·인쇄출판업·화학공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업종별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1년은 섬유제조업 노동자 18.6%, 제1차금속제조업 11.1%, 화학공업 8.6%, 식료품제조업 7.8%, 화류·의복류장식품제조업 6.2% 순이었으나, 1969년에는 섬유제조업 24.9%, 화학공업 10.8%, 기타제조업 9.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7.0%, 인쇄출판업 6.2%, 식료품제조업 4.9%, 기계제조업 4.6% 등으로 변화했다.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섬유제조업 노동자가 약 1/4을 차지했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에 급증했다. 가발·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중심인 기타제조업 부문과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등이 공업화의 새로운 업종으로 자리잡고 노동자가 증가했다. 또한 1961년과 1967년의 서울지역 한 개 공장 당 제조업 노동자 수의 증가 양상을 비교하면(<표 1>과 <표 5>), 섬유제조업 노동자는 46명에서 82명으로, 화학공업 노동자는 26명에서 45명으로, 전기기계기구제

12) <표 11>의 1969년 노동자 수는 276,837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이는 5~9명을 고용하는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숫자이므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노동자 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조업 노동자는 23명에서 46명으로, 기타제조업 노동자는 21명에서 50명으로, 전체적으로는 31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한 개 공장 당 노동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제조업과 가발·플라스틱제품 생산부문인 기타제조업 노동자였다.

<표 5> 노동자의 증가 추이와 업종별 구성 (단위 : 명)

업종별	1961			1963			1967
	남	여	계	남	여	계	계
식품제조업	4,318	1,982	6,300	2,699	1,764	4,463	7,801
음료제조업	886	224	1,410	1,164	277	1,441	2,071
섬유공업	4,813	10,132	14,941	5,396	12,831	18,227	39,401
靴類·의복류장식품	2,324	2,687	5,011	1,207	913	2,120	5,869
제제업·목제품제조업	1,606	29	1,685	1,117	43	1,160	1,610
器具·장식품제조업	912	31	943	1,664	98	1,762	1,878
紙類具·紙類製品	1,010	588	1,598	1,855	994	2,849	4,732
인쇄출판·類似業	4,060	753	4,813	4,590	861	5,451	9,848
피혁·피혁제품제조업	855	131	986	657	100	757	1,369
고무제품제조업	2,208	2,085	4,293	2,018	2,253	4,271	5,409
화학공업	4,310	2,638	6,948	4,630	2,331	6,961	17,022
석탄제품제조업	3,019	35	3,054	3,699	49	3,748	2,401
유리·土石제품제조업	3,151	426	3,577	3,812	305	4,117	7,139
제1차금속제조업	8,713	208	8,921	2,965	85	3,050	6,065
금속제조업	3,733	340	4,073	4,010	541	4,551	6,864
기계제조업	3,366	129	3,495	3,705	133	3,838	7,320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848	351	3,199	3,635	523	4,158	11,008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1,590	48	1,638	2,131	99	2,230	5,462
기타 제조업	3,052	886	3,938	3,277	1,734	5,006	14,777
총수	56,774	28,703	80,477	54,226	25,934	80,160	158,046

자료 : 서울특별시, 『第二回 統計年報』, 1962, 54쪽.

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226쪽.

서울특별시, 『서울統計年報』, 1968, 184쪽.

Hi Seoul

SOUL OF ASIA

노동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노동자 수는 남성 노동자의 약 1/2 수준이었다. 1963년을 예로 들면, 여성노동자는 특히 섬유제조업(49.5%), 화학공업(9.0%), 고무제품제조업(8.7%), 식료품제조업(6.8%), 기타 제조업(6.7%)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약 1/2이 섬유제조업 노동자였다. 반면에 남성노동자는 섬유제조업(10.0%), 화학공업(8.5%), 인쇄출판업(8.5%), 금속제조업(7.4%) 순이었으며, 대체로 전 업종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¹³⁾ 이러한 노동자 내부구성의 특성은 섬유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표 6>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연도	연령별	14~	20~	25~	30~	35~	40~	45~	50~	55~	60세	계
		19	24	29	34	39	44	49	54	59	이상	
1963	남	16,600	13,400	23,700	21,400	21,400	19,800	15,000	12,700	4,700	2,400	151,100
	여	7,900	14,200	3,200	4,700	5,500	4,800	800	-	-	-	41,100
	계	24,500	27,600	26,900	26,100	26,900	24,600	15,800	12,700	4,700	2,400	192,200
1966	남	9,837	14,557	18,459	21,021	16,507	14,358	11,785	6,662	5,234	2,045	120,467
	여	10,253	15,174	4,615	2,766	2,257	3,276	1,844	1,129	409	615	42,338
	계	20,092	29,731	23,074	23,787	18,764	17,634	13,629	7,791	5,643	2,660	162,805
1967	남	11,234	17,112	23,313	32,747	26,343	19,728	18,281	10,525	5,375	1,914	172,572
	여	12,706	17,501	5,854	2,529	2,911	3,642	1,941	1,803	617	298	49,082
	계	23,940	34,613	35,167	35,276	29,254	23,370	20,222	11,608	5,992	2,212	221,654

자료 : 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170~171쪽.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68, 104~105쪽.

* <표 5>의 제조업 노동자 수와 통계가 다른 이유는 조사기간 중 각자가 실지로 종사한 으뜸된 일의 분야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이다.

13) 1963년 7월 취업자 총수를 지위별로 살펴보면, 기능공·생산공정 및 기타 단순노무 종사자 남성 144,000명 가운데 상용고용은 57,500명, 임시고용 23,500명, 일용고용 48,000명으로 고용조건이 상당히 불안했음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174쪽).

<표 6>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을 바탕으로 제조업 노동자의 연령별 구성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을 14~19세, 20~29세, 30세 이상 등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14~19세 취업자 비율은 1963년 12.8%, 1966년 12.3%, 1967년 10.8%였다. 1960년대 내내 연소 취업자 비율이 10%를 상회했다. 그러나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14세 미만의 제조업 취업자도 의류제조업 등에 상당수 존재했으므로 실제로 연소 취업자 비율은 이 보다 더 높게 볼 수 있다. 둘째, 20~29세 취업자 비율은 1963년 28.4%, 1967년 31.5%였으며, 3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각각 58.8%, 57.7%였다. 즉 20대 청년층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점은 8·15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경기지역 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17세 이하 노동자 비율이 23.9%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¹⁴⁾ 여성 취업자 가운데 14~19세 취업자 비율은 1963년 19.2%에서 1967년 25.9%로 증가했으며, 20~29세 취업자 비율도 42.3%에서 47.6%로 증가했다.

(2) 직종별·기능별 구성

<표 7>·<표 8>은 노동자의 직종별 내부구성을 알 수 있는 1970년 초 통계이다. 이 자료를 통해 숙련 정도에 따른 노동자 내부구성의 차이점과 직종별 내부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섬유제조업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대체로 2배 가량 많았다. 기계제조업은 남성노동자 중심이었다. 섬유제조업 노동자는 특히 편물공에 집중되었다. 편물공 노동자 비율은 34%였으며, 제직공 및 관련 직공 20%,

14)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남조선 산업노무력 급 임금조사』, 1946, 각 시·도의 연령·계층별 노동자 조사 참조.

제빵공 20%, 표백 및 염색공 12.2%였다. 식료품제조업 노동자는 제빵공에 집중되었다. 제빵공은 49%를 차지했으며, 기타식품제조업 32.3%, 포장공 9.8%였다. 기계제조업 노동자는 기타공구제작공 15.7%, 선반정비조작공 10.0%, 기계정비공 7.6%, 보통선반조작공 6.6%, 금속주조공 5.9% 순이었으며, 직종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표 7> 식료품제조업·섬유제조업 노동자의 직종별·기능별 내부구성 (단위 : 명)

	직종별	성별	노동자수	기능정도별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식료품 제조업	식품감독	남	39	39	-	-
		여	16	16	-	-
	정미공	남	47	17	30	-
		여	1	-	1	-
	제당공	남	13	1	10	2
		여	6	-	-	6
	육류가공공	남	172	43	68	61
		여	32	-	11	21
	식품저장공	남	67	19	22	26
		여	14	8	2	4
	포장공	남	16	-	3	13
		여	555	7	10	538
	제빵공	남	752	98	453	201
		여	2,101	409	1,008	684
	차제조공	여	14	-	7	7
	발효공	남	100	40	27	33
		여	8	-	8	-
	기타식품제조공	남	966	280	240	446
		여	917	308	287	322
	총 계			5,836	1,285	2,187
섬유 제조업	직공반장	남	56	51	* 5명은 기술공	
		여	2	2	-	-

	직종별	성별	노동자수	기능정도별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섬유준비공	남	294	148	91	55	
		여	581	123	269	189	
	방직공 및 전사공	남	330	201	118	11	
		여	1,287	491	563	233	
	제직공 및 관련 직공	남	1,309	782	440	87	
		여	3,296	1,431	1,066	799	
	편물공	남	3,516	2,081	1,175	260	
		여	4,188	1,676	1,777	735	
	섬유 제조업	표백 및 염색공	남	1,230	547	534	149
			여	1,545	309	753	483
도안사 및 재단사		남	144	46	53	45	
		여	93	24	50	19	
재봉공		남	859	185	466	208	
		여	3,716	1,263	1,653	800	
기계설치공		남	10	10	-	-	
		여	4	-	4	-	
기계정비공		남	178	113	58	7	
		여	17	7	3	7	
총 계			22,655 (기술공 포함)	9,490	9,073	4,087	

자료 : 노동청,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보고서』, 1970, 310~311·358~361쪽

* 조사기준기간 : 1970. 4. 1 ~ 4. 30,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사업체로 영등포지역은 제외한 통계임.

둘째, 숙련·반숙련 노동자 등 기능정도별로 노동자 내부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에 따른 임금 조건의 차이 등 노동자 내부구성의 이질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섬유제조업의 숙련공 비율은 42.0%, 반숙련공 40.0%, 기타노동자 18.0%였으며, 식료품제조업은 각각 22.0%, 37.5%, 40.5%, 기계제조업은 각각 35.3%,

35.7%, 29.0%였다. 즉 섬유제조업 노동자의 숙련공 비율이 식료품 제조업과 기계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기계제조업 노동자의 업종별·기능별 내부구성 (단위 : 명)

직 종 별	성별	노동자수	기능정도별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금속가공부문감독	남	56	42	14명은 기술공	
제련전련 및 경련로공	남	32	32		
금속압연공	남	64	40	19	5
	여	2	-	2	-
금속용해 및 금속재가열공	남	77	43	17	17
금속주조공	남	192	77	67	48
	여	1	-	-	1
금속주형공 및 중자체조공	남	46	46	-	-
	여	4	-	4	-
금속인발공	남	48	27	21	-
금속표면처리공	남	55	48	-	7
	여	39	-	-	39
연마공	남	54	24	22	8
증류공	남	55	15	40	-
단조공	남	62	15	23	24
금속모형제작공	남	55	22	15	18
선반정비조작공	남	323	70	132	121
공작기계조작공	남	122	42	69	11
보링기계조작공	남	45	23	21	1
보통선반조작공	남	214	69	48	97
불반조작공	남	53	-	22	31
호닝기계작공	남	29	3	13	13
쉐이퍼기 조작공	남	43	13	15	15
평면연삭반 조작공	남	32	12	20	-
기타공구제작공	남	385	97	158	130
	여	122	41	46	35
금속프레스 조작공	남	65	17	25	23

직 종 별	성별	노동자수	기능정도별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기계설치조립공	남	204	53	72	79
	여	5	-	-	5
온도계 제조공	남	47	9	20	18
	여	25	-	2	23
기계정비공	남	233	98	59	76
	여	14	14	-	-
전공	남	40	15	25	-
연관공 및 배관공	남	139	57	57	25
	여	1	-	-	1
용접공	남	54	22	20	12
절단공	남	51	10	19	22
관금공	남	80	29	32	19
금속인쇄공	남	37	10	27	-
기타도장공	남	25	4	21	-
총 계		3,230 (기술공 포함)	1,139	1,153	924

자료 : 노동청,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보고서』, 1970, 620~625쪽.

* 조사기준기간 : 1970. 4. 1 ~ 4. 30,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사업체로 영등포지역은 제외한 통계임.

(3) 지역별 구성

1963년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지역별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영등포 36.3%, 성동 11.4%, 용산 10.0%, 동대문 8.4% 순으로 분포했다. 남성노동자는 영등포 32.5%, 성동 11.3%, 용산 11.1%, 중구 9.4%였으나, 여성노동자는 44.2%가 영등포 공장지대에 분포했으며, 성동 11.7%, 동대문 9.4% 순이었다. 특히 영등포 공장지대에 서울지역 노동자의 1/3 이상이 집중되었다.

Hi Seoul

SOUL OF ASIA

<표 9> 제조업 노동자의 지역별 구성(1963년) (단위: 명)

	종로	중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	서울시
계	4,427	6,224	6,761	9,157	6,225	5,921	4,420	7,995	29,070	80,160
남성	3,603	5,104	4,320	6,124	3,948	4,145	3,336	6,027	17,610	54,226
여성	824	1,120	2,432	3,032	2,277	1,779	1,084	1,928	11,460	25,934

자료 : 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227~229쪽.

<표 10> 제조업 노동자의 지역별·업종별 구성(1963년) (단위 : 명)

업종별	서울시			영등포			성동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식품제조업	4,463	2,699	1,764	1,652	887	765	286	251	35
음료제조업	1,441	1,164	277	760	674	86	117	84	33
방직업	18,227	5,396	12,831	8,623	1,971	6,652	2,918	891	2,027
靴類·의복류장식품	2,120	1,207	913	114	51	63			
제재업·목제품제조업	1,160	1,107	43	239	209	30	167	165	2
器具·장식품제조업	1,762	1,664	98	200	199	1	358	350	8
紙類具·紙類製品	2,849	1,855	994	1,028	667	361	465	357	108
인쇄출판·類似業	5,451	4,590	861	266	222	44	34	32	2
피혁·피혁제품제조업	757	657	100	381	337	44	17	17	
고무제품제조업	4,271	2,018	2,253	3,468	1,663	805	180	75	105
화학공업	6,961	4,630	2,331	3,100	2,291	809	823	613	210
석탄제품제조업	3,748	3,699	49	581	571	10	411	405	6
유리·土石제품제조업	4,117	3,812	305	1,200	1,094	106	872	812	60
제1차금속제조업	3,050	2,965	85	1,676	1,641	35	197	190	7
금속제조업	4,551	4,010	541	1,529	1,239	290	419	422	27
기계제조업	3,838	3,705	133	1,661	1,604	57	147	140	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4,158	3,635	523	812	719	93	919	719	200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2,230	2,131	99	1,109	1,072	37	91	80	11
기타 제조업	5,006	3,272	1,734	571	499	172	706	521	185
총수	80,160	54,226	25,934	29,070	17,610	11,460	9,157	6,124	3,032

자료 : 서울특별시, 『第四回 統計年報』, 1964, 227~229쪽.



제조업 노동자의 최대 밀집지역인 영등포 공장지대의 업종별 노동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무제품제조업 노동자 81.2%, 제1차금속제조업 55.0%, 음료품제조업 52.7%,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50.0%, 방직공업 47.3%, 화학공업 45.5%, 기계제조업 43.3%, 식료품제조업 37.0%, 금속제조업 33.6% 등이었다. 30% 이상을 차지한 업종이 상당히 많이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등포 공장지대는 1960년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가 집중된 지역이었으며, 업종별로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 성동지역 또한 노동자가 집중되었다. 섬유제조업 노동자는 16.0%,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1%, 화학공업 11.8%였다.

(4) 규모별 구성

전국 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는 1964년 33.2%, 1969년 33.3%를 차지하여 노동자의 약 1/3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었다.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00명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964년 23.7%에서 1969년 33.8%로 급증하여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 수 증가는 곧 대규모 제조업 노동자의 증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499명을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속한 노동자는 1964년 39.6%, 1969년 39.7%였으며, 10~99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는 1964년 33.7%, 1969년 31.7%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Hi Seoul

SOUL OF ASIA

<표 11> 전국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별 구성 (단위: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명 이상	계
서울시	1964	-	52,044		26,006	21,795	32,871	26,700	159,416
	1969	23,267	17,759	30,948	25,979	36,508	49,907	92,469	276,837
부산시	1964	-	29,304		8,980	7,072	11,321	19,734	63,502
	1969	6,350	6,656	13,608	12,532	14,485	26,058	61,333	141,022
경기도	1964	-	13,170		6,930	6,880	5,861	16,200	49,041
	1969	9,129	4,760	8,085	9,194	8,856	13,281	35,910	89,215
강원도	1964	-	4,912		2,653	3,153	12,020	19,131	41,869
	1969	5,946	1,893	1,621	1,265	838	1,288	5,851	18,702
충청북도	1964	-	4,799		2,394	2,589	2,140	962	12,884
	1969	3,984	1,835	1,665	1,492	1,745	3,839	7,722	22,282
충청남도	1964	-	9,667		4,149	2,998	3,455	3,317	23,586
	1969	3,548	4,306	5,281	4,122	4,287	3,935	11,555	42,034
전라북도	1964	-	7,683		3,783	1,669	2,861	5,856	21,852
	1969	7,666	3,225	4,122	2,824	3,165	4,308	10,211	35,551
전라남도	1964	-	8,875		4,362	2,238	3,704	8,046	27,225
	1969	14,177	4,438	5,516	3,097	2,745	3,492	11,398	44,863
경상북도	1964	-	21,685		9,048	6,255	4,809	11,183	52,978
	1969	15,615	10,001	20,655	12,800	12,706	12,817	14,542	99,136
경상남도	1964	-	9,815		8,736	2,000	3,704	1,509	25,764
	1969	7,612	4,212	5,393	3,593	4,426	6,735	22,767	54,738
제주도	1964	-	1,511		138	127	200	-	1,981
	1969	1,326	471	2,210	216	233	208	-	4,664
계	1964	-	154,556		77,179	56,764	82,951	112,638	480,098
	1969	103,620	59,586	99,104	77,114	89,994	125,868	273,758	829,044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64, 211쪽.(종업원 10명 이상 통계임).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9, 198~199쪽.

다음으로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별 구성을 살펴보면, 1964년에는 노동자 수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전체의 16.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9년에는 33.4%로 급증했

다. 200~499명을 고용하는 중규모의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20.6%에서 18.0%로, 100~199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13.7%에서 13.2%로 다소 줄었다. 10~99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은 49.0%에서 27.0%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1969년에 5~9명을 고용하는 제조업체는 23,267개로 8.4%를 차지했다. 요컨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별 구성의 특징은 196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기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급증했으며, 중규모 기업은 변화가 없었고, 소규모 기업에서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것이었다. 즉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자본주의가 재편되면서 대공장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1969년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업종별·규모별 분포 양상을 <표 12>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 비율은 식료품제조업 56.2%, 음료품제조업 62.2%, 섬유제조업 31.2%, 고무제품제조업 80.0%, 제1차금속제조업 41.5%, 기타제조업 41.7% 등이었다. 즉 노동집약적 업종인 고무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섬유제조업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이는 <표 3>에서 보듯이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섬유제조업이 21개 업체로 최대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무제품제조업은 1~2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으며, 식료품제조업 등에서 대기업 편중과 독점현상이 발생했다.

둘째, 노동자 200~499명을 고용하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료품제조업 15.7%, 섬유제조업 11.7%, 신류·의복류제조업 13.1%, 화학제품제조업 21.6%,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33.0%, 제1차금속제조업 16.6%, 전기기기기구제조업 25.3%, 기타제조업 19.8% 등이었다.

Hi Seoul

SOUL OF ASIA

<표 12>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업종별·규모별 구성(1969) (단위 : 명)

업종별		규모별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명 이상	계
		서울	전국								
식료 제조업	서울	1,406	751	1,126	551	1,424	2,935	10,509	18,704		
	전국	16,379	5,754	8,899	5,086	5,804	8,195	13,770	63,887		
음료품 제조업	서울	48	162	255	290	563	376	2,792	4,486		
	전국	8,908	4,224	2,856	2,317	1,574	1,404	4,721	26,004		
연초 제조업	서울						461	1,747	2,208		
	전국						461	9,735	10,196		
섬유 공업	서울	2,763	2,194	4,621	5,818	11,686	13,653	23,675	64,410		
	전국	6,036	9,759	26,973	22,730	30,126	39,005	75,878	210,507		
신류·의복류 제조업	서울	7,819	4,595	3,865	1,012	2,179	3,347	2,683	25,500		
	전국	20,646	7,204	5,102	2,239	4,897	9,569	11,423	61,080		
제재목제품 제조업	서울	711	518	486	113	564	333	622	3,347		
	전국	5,524	2,552	1,875	1,178	1,332	1,459	20,408	34,328		
가구 및 장치품 제조업	서울	862	637	1,184	448	818	279		4,228		
	전국	4,928	1,913	2,762	959	818	596		11,976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서울	289	331	767	1,223	976	1,179	665	5,430		
	전국	1,781	1,155	2,976	3,378	2,457	4,742	1,183	17,672		
인쇄출판 및 동유사업	서울	2,258	1,586	2,494	1,781	865	4,120	6,134	19,238		
	전국	5,468	2,740	3,412	2,796	1,996	4,567	7,088	28,067		
가죽 및 가죽 제품제조업	서울	191	123	271	72	439	599		1,695		
	전국	394	191	612	128	568	599		2,492		
고무제품 제조업	서울	112	179	176	223	379	219	5,109	6,397		
	전국	368	484	843	614	1,076	1,627	18,674	23,686		
화학제품 제조업	서울	568	808	2,101	1,665	2,219	3,842	6,583	17,786		
	전국	1,902	2,093	5,034	4,159	4,014	8,664	27,722	53,588		
석유 및 석탄 제품제조업	서울	162	221	272	869	645	1,080		3,249		
	전국	3,508	2,202	1,626	1,657	1,783	2,138	944	13,858		
토석 및 유리 제품제조업	서울	1,534	491	823	1,463	2,209	4,037	1,654	12,211		
	전국	11,938	3,675	4,247	5,379	5,392	10,063	9,230	49,924		
제1차금속 제조업	서울	235	322	1,051	1,341	1,438	1,727	4,275	10,389		
	전국	591	1,332	3,200	2,470	2,782	3,974	14,717	29,066		

업종별	규모별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명 이상	계
		금속제품 제조업	서울	1,741	1,304	2,625	1,629	2,429	
	전국	5,059	3,624	6,483	4,289	4,220	4,114	2,939	30,728
기계 제조업	서울	1,069	1,131	2,188	1,561	608	316	678	7,551
	전국	4,505	3,370	5,370	3,606	3,148	2,289	2,257	24,545
전기기계 기구제조업	서울	582	769	1,845	2,560	2,086	4,962	6,830	19,634
	전국	1,076	1,447	3,623	3,653	3,812	7,168	17,217	37,996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서울	350	730	2,529	1,565	996	681	6,114	12,965
	전국	2,654	3,301	7,533	4,745	3,973	4,711	17,414	44,331
기타 제조업	서울	565	907	2,269	1,795	3,985	4,883	10,284	24,688
	전국	1,955	2,566	5,678	5,731	10,222	10,523	18,438	55,113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9, 198~205쪽.

셋째, 노동자 5~49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속한 노동자 비율을 살펴보면, 기계제조업(58.1%), 금속제품제조업(44.6%), 인쇄출판업(33.0%), 신류·의복류제조업(63.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화학제품제조업은 19.6%, 기타제조업은 15.1%였으나 섬유공업은 8.2%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계·금속제품제조업 노동자가 소규모 영세기업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현상은 1930년대 이래 서울지역 공업의 특징이었다.

요컨대 섬유제조업·식품제조업·기타제조업 등에는 대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기계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 등에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 중심으로 노동자가 분포하여 업종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운동 또한 이러한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Hi Seoul

SOUL OF ASIA

4.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비

(1) 노동임금

1960년대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연평균 3.4% 증가했으나, 이를 같은 기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12.6%와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상승분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이며, 실제로 동일업종에서도 성별·기능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했다.¹⁵⁾

섬유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분포하는 편물공의 임금을 살펴보면, 성별·기능별로 임금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물공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액은 남성노동자의 80% 수준이었다. 기능정도별 최고임금액에서는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높았으나, 최저임금은 남성노동자가 많은 편이었다. 섬유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숙련공에 비해 반숙련공은 42%, 대부분이 이른바 ‘시다공’이었을 기타노동자는 25%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동일직종에서 숙련도에 따른 임금차이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직공반장과 비교하면 남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54% 수준에 머물렀다. 즉 임금을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근속기간과 그로 인한 숙련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직공 및 관련직공의 경우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50%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숙련공·반숙련공·기타노동자 모두 남성노동자의 임금이 높았다. 다음으로 식료품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제빵공의 임금을 살펴보

15) 1960년대 전국 제조업 노동자의 연도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2,780원에서 1963년 3,180원, 1965년 4,600원, 1967년 6,640원, 1969년 9,790원으로 증가했다(박기호, 앞의 글, 261~262쪽).

면,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77% 수준이었으며, 최저임금 또한 숙련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기타노동자는 남성이 여성의 2배였다.

<표 13> 주요 제조업 노동자의 업종별·기능별 임금 (단위: 원)

	직종별	성별	평균 임금액	기능정도별 최고·최저임금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최고임금	최저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식료품 제조업	식품감독	남	27,300	45,000	18,000				
		여	16,600	30,000	10,000				
	포장공	남	7,000			16,000	9,000	11,000	6,000
		여	5,400	18,000	10,000	15,000	8,000	10,000	4,500
	제빵공	남	12,200	41,000	26,000	25,000	13,500	15,000	6,000
		여	7,000	22,500	14,000	14,000	9,200	10,000	3,000
	기타식품 제조공	남	18,800	70,000	10,000	47,000	10,000	7,500	4,500
		여	11,000	25,000	12,000	18,000	10,000	10,000	6,000
섬유 제조업	직공반장	남	23,000	20,000	10,000	기술공 최고임금 : 45,000 최저임금 : 30,000			
		여	22,500	25,000	20,000				
	제직공 및 관련직공	남	18,000	51,000	25,700	15,000	7,500	5,000	3,500
		여	8,800	40,800	18,900	13,000	6,300	4,600	3,000
	편물공	남	12,500	40,000	15,700	14,000	7,000	4,700	3,000
		여	9,900	63,000	14,500	19,000	6,100	5,200	3,700
	표백 및 염색공	남	14,400	60,000	19,000	12,000	7,500	6,500	3,000
		여	7,400	59,229	16,000	20,000	8,000	6,300	3,000
	도안사 및 재단사	남	13,200	54,000	21,000	15,000	9,000	7,000	5,490
		여	9,700	35,000	33,000	10,500	6,400	5,720	4,500
재봉공	남	9,400	35,000	21,000	18,000	7,000	6,200	3,000	
	여	8,300	30,000		14,000	6,200	6,000	2,500	
기계 제조업	금속가공 부품감독	남	31,300	36,000	12,630				
		남	11,900	45,000	12,000	30,000	6,400	9,000	5,000
	주조공	여	6,000					6,000	6,000

	직종별	성별	평균 임금액	가능정도별 최고·최저임금					
				숙련공		반숙련공		기타노동자	
				최고임금	최저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선반장비 조작공	남	15,400	42,000	8,000	25,000	6,500	11,000	3,000
기계 제조업	보통선반 조작공	남	17,200	45,000	10,000	34,000	8,230	13,000	5,000
	기타공구 제작공	남	14,200	47,000	12,000	24,180	8,000	12,000	4,000
		여	8,200	20,000	9,220	14,000	8,920	10,880	4,490
	기계 정비공	남	15,600	35,270	9,000	21,000	6,500	12,000	4,000
여		13,800	18,500	13,000					

자료 : 노동청,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보고서』, 1970, 310~311·358~361·620~625쪽.

* 조사기준기간 1970. 4. 1 ~ 4. 30,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사업체로 영등포는 제외.

기계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기타공구제작공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살펴보면, 숙련공 최고임금과 기타노동자 최저임금의 격차는 약 12배에 이르렀다. 금속가공부문감독을 제외하고 기계제조업 남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직종별로 비교해 보면, 최고임금은 보통선반조작공이 17,200원, 최저임금은 금속주조공의 11,900원이었다. 금속주조공의 평균임금은 보통선반조작공의 70% 수준이었다. 즉 동일업종 안에서도 직종별로 임금차이가 존재했다.

섬유제조업(편물공), 식료품제조업(제빵공), 기계제조업(기타공구 제작공)의 업종별 임금을 비교하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편물공 12,500원, 제빵공 12,200원, 기타공구제작공 14,200원으로 기계제조업에서 임금이 더 높았다. 반면에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편물공이 가장 많은 9,900원이었다. 요컨대 노동자의 임금은 업종별·성별·직종별·숙련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임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성별과 숙련 정도였다.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1961년 노동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4,310원에서 1967년 18,520원으로 약 4.2배 증가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 초 주요 업종의 노동자 임금은 오히려 1967년의 근로소득에도 못 미쳤다. 또한 직종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 임금 평균은 산술적 평균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봉급생활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1961년의 경우 노동자 임금은 5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표 14> 서울시 노동자 가계수지의 추이 (단위: 원)

	1961			1967
	평균	노동자	봉급생활자	노동자
소득	8,970	5,710	11,120	26,600
1.근로소득	6,650	4,310	8,010	18,520
a. 가구주	5,780	3,680	7,140	16,640
b. 기타가구주	770	630	870	1,880
2.기타소득	2,420	1,410	3,110	8,800
a. 수입, 집세, 지대	210	200	220	470
b. 自家評價額	1,270	830	1,560	3,210
c. 기타	940	380	1,330	5,120
비용지출	9,670	6,310	11,870	26,210
1.소비지출	9,260	6,100	11,330	25,430
a. 음식물비	3,820	2,980	4,350	12,570
곡물액	2,060	1,870	2,180	3,690
기타음식물	1,760	1,110	2,170	9,170
b. 주거비	1,790	1,120	2,230	4,370
自家評價額	1,270	830	1,560	
기타	520	290	670	
c. 광열비	540	400	620	1,320
d. 피복비	740	390	960	2,530
e. 잡비	2,370	1,210	3,150	4,640
의료	340	220	410	290
미용	250	140	320	250

	1961			1967
	평균	노동자	봉급생활자	노동자
교육 독서	780	350	1,080	990
연초	250	200	280	570
교통통신	290	150	390	1,010
교양오락비	-	-	-	330
서비스료	-	-	-	970
기타	460	150	670	230
2.비소비지출	410	210	540	780
a. 조세 및 잡부금	270	90	380	
b. 기타	140	120	160	
收支過不足	700	590	750	
재산의 증감	680	560	730	1,120
조사 오차	20	30	10	
현물 총액	210	110	280	
期末 現金殘高	800	550	920	

자료 : 서울특별시, 『第二回 統計年報』, 1962, 36쪽.

서울특별시, 『統計年報』, 1968, 304쪽.

(2) 가계수지와 생계

서울시 노동자 가계수지의 추이를 통해 노동자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61년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4,310원이었으나, 비용지출은 6,310원으로 매달 2,000원의 적자를 보았다. 다만, 집세·지대 등의 기타수입으로 1,410원을 보충하여 590원이 매달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집세·지대 등의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노동자가 극히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적자액은 2,000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1967년 통계에 따

르면, 근로소득이 비용지출보다 480원이 많아서 흑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이 8,800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타 소득을 제외한 노동자 평균임금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1969년 제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790원이었으나 생계비 총액은 25,260원(음식물비 10,320원)으로 가계 적자 폭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1965~1972년 사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8~14%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⁷⁾ 또한 1967년 현재 1가구당 평균 5.6명인 가족 구성원을 가구당 평균 1.3명의 취업인원으로는 생계조차 꾸려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¹⁸⁾ 요컨대 이 시기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 대부분은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저임금과 높은 물가 상승 속에서 생계를 꾸려 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¹⁹⁾

노동자의 비용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1년은 음식물비 47.3%, 주거비 17.8%, 광열비 6.3%, 피복비 6.1%, 잡비 19.2%, 조세·잡부금 등의 비소비지출 3.3%였다. 1967년에는 음식

16) 박기호, 앞의 글, 262쪽.

17) 김광석, 『한국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1973, 30쪽.

18) 서울특별시, 『統計年報』, 1968, 304쪽.

19)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137쪽.

물비가 48.0%를 차지했으며, 주거비 16.7%, 광열비 5.0%, 피복비 9.6%, 잡비 17.7%, 조세·잡부금 등의 비소비지출이 3.0%였다. 1960년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비용지출 구조는 음식물비가 가장 많았다. 또한 피복비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등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한편 1967년 잡비 지출 가운데 의료품 지출은 290원으로 전체 비용지출의 1.1%에 지나지 않았으며, 교양 오락비와 서비스료가 1961년과 달리 새로 조사되었다. 의료품의 비용 지출문제는 노동자 건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70년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도에 의류제조업체에서 노동하는 평화시장의 재단사·미싱사 대부분이 신경성 소화불량과 만성위장병·폐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경력 5년 이상된 노동자는 거의 전부 환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동자의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생활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5. 맺음말

1970년 11월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1960년대 경제성장 논리 속에서 응축되었던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성'이 일거에 표출된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1960년대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대한 분석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글은 1960년대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자 상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서울지역을 사례로 노동자계급 내부구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20)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평전』, 돌베개, 1983, 91쪽.

했다.

첫째, 서울지역 공업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서울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전국의 1/4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제조업·의류제조업 등의 소비재공업은 물론이고, 금속제품제조업·기계제조업 등 생산재공업에서도 1/3 이상을 점하는 ‘지역적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지역은 정치·경제의 중심인 수도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공장도시’로서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를 주도했다. 1960년대 내내 제조업체 수는 비록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의류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기계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편직업, 직물제조업, 의복류제조업, 빵·과자·사탕과자제조업, 연탄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범랑철기·프레스 가공금속제품 제조업, 가발·완구 등을 생산하는 기타제조업 등이 생산을 주도하여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 생산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등포 공장지대가 공업 생산의 핵심지역으로 서울지역 제조업체의 1/3을 차지했다. 또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을 섬유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압도적이었다.

둘째, 제조업 노동자의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의 1/3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1/3이 영등포 공장지대에 분포했다. 영등포 다음으로 제조업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성동·용산·동대문 등이었으며, 여성노동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영등포 공장지대에 집중되었다. 서울지역의 제조업 노동자는 196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섬유제조업·화학공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등의 업종과 섬유제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두드러졌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1/2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섬유제조업 노동자였다. 남성노동자는 모든 업종에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나이 어린 노동자의

규모도 최소 10% 이상이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많이 집중되었다. 섬유제조업 여성노동자는 편물공·재봉공·제직공 부문이 가장 노동자 수가 많았다. 또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한 가발공장과 플라스틱 제품 생산부문에서 노동자의 증가가 뚜렷했다. 노동력 구성에서 숙련공 비율이 각 업종별로 30%를 넘었지만, 서울지역 공업의 성격이 노동집약적 산업이었기 때문에 ‘숙련’의 의미는 반감되었다. ‘숙련’은 근속연한과 거의 같은 의미였다.

셋째, 노동임금은 근속기간·숙련도·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1/2 수준이었다.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은 음식물비와 주거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제조업 노동자의 비용지출 항목을 보면, 음식물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주거비·잡비·피복비 등이었다. 즉 최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임금만이 노동자에게 주어졌던 셈이며, 이마저도 제때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60년대 초에 비해 1969년에는 10시간이 늘어난 57.2시간이었으며, 서울지역 제조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영세규모의 공장에서는 14~16시간 노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 노동자가 집중되었던 서울지역은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에 나타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고도성장 논리를 관철시키는 통로였던 셈이다.

이상에서 1960년대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에 대해 그 내부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안의 노동조건과 작업장 체계, 노동통제 양상,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태업·파업, 작업장 밖의 생활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Hi Seoul

SOUL OF ASIA

위원회 소식

◎ 2002년도 사업실적

- 『사진으로 보는 서울』 제1·2권 발간
-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 제7·8·9·10권 발간
- 서울역사총서 제4권 『서울商工業史』 발간
- 『郷土서울』 제62호 발간
- 『2001市政主要日誌』 발간
- 『서울의 문화재』 발간 추진(2003년 2월 발간 예정)
- 『사진으로 보는 서울』 제3권 사진자료 수합·촬영(2,500매)
- 사료총서 제9권 『西闕營建都監儀軌』 번역원고 수합, 감수
- 『서울六百年史』 年表 제3차 원고감수 완료, 제4차 연도 원고 작성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 : 신규등록 812권, 수정·보완 3,555권, 사진 : 신규 등록 4,085건, 수정·보완 6,400건)
- 2002년도 주요 일간지의 서울시 관련기사 추출, 카드 작성
(카드 6,000매)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history.seoul.go.kr>)
발간 도서 5종 게재(서울문화, 서울의 산, 서울의 고개, 서울의 하천, 한강의 어제와 오늘)
- 서울옛지명복원사업 자료집 발간
-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자료 조사·정리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회의(2001. 11~2002. 10)

◇ 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1. 25(금)
- 장소 : 시사편찬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차문섭위원장, 원영환부위원장, 손정목고문, 이장희 · 최무장위원, 이상협연구간사, 연구원 일동
- 안건 : 2001년도 편찬사업 추진내역 보고
2002년도 시사편찬위원회 편찬사업계획 심의

◇ 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5. 23(목)
- 장소 : 시사편찬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차문섭위원장, 원영환부위원장, 손정목고문, 이장희 · 박용옥위원, 이상협연구간사, 연구원 일동
- 안건 : 2003년도 시사편찬사업계획(안) 심의
서울역사총서 제5권 『서울호구변천사』, 내고향서울 제5권 『서울의 성곽』, 『서울지명사전』 발간 등에 대한 심의

◇ 전체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7. 18(목)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 : 김영상 · 손정목 · 차문섭고문, 김홍남 · 박용옥 · 신용하 · 신형식 · 이배용 · 이성무 · 이원명 · 이은순 · 이장희 · 이준희 · 원영환 · 정영호 · 정옥자 · 한영우 · 황선희 위원, 이명박서울시장,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연갑수문화재관리팀장, 이상협연구간사, 연구원 일동, 관계 공무원

Hi Seoul

SOUL OF ASIA

- 안건 : 정·부위원장 선출, 고문·위원 위촉, 2002년도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0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9. 13(금)
- 장소 : 시사편찬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원영환위원장, 이준희부위원장, 손정목고문, 정옥자·최무장·이원명위원, 이상협연구간사, 연구원 일동
- 안건 : 『서울의 문화재(도록)』(가칭) 편집체제 심의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정(2001. 11~2002. 10)

◇ 2002. 3. 30~4. 1 : 시사편찬위원회 학술세미나 및 유적지 답사

- 장소 : 전남 화순·담양지역 일대
- 참석 : 최동윤문화재과장, 연갑수문화재관리팀장, 이상협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일동, 문화재과 직원 등
- 내용 : 학술세미나, 유적지 답사
 - 학술세미나 : 전남지역의 불교문화와 정자문화의 내용과 보존실태
 - 유적지 답사 : 전남 광주·화순·담양지역 일대의 불교유적과 정자유적

◇ 2002. 6.30 : 車文燮위원장·元永煥부위원장과 위원·고문 임기 만료

◇ 2002. 7. 1 : 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林載五문화관광국장, 행정관리국(해외 파견)으로 전보

Hi Seoul

SOUL OF ASIA

: 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陳翼喆 문화관광국장,
부임

: 본 위원회 행정간사 崔東允문화재과장, 청계천
복원총괄반장으로 전보

◇ 2002. 7. 18 : 본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고문
위촉(임기 : 2002. 7. 1~2005. 6. 30)

○ 위 원 장 : 元永煥

○ 부위원장 : 李存熙

○ 위 원 : 金紅男·朴容玉·愼鏞廈·申滢植·李培鎔·李成茂
·李源明(신임)·李銀順·李章熙·任孝宰·鄭永鎬
·鄭玉子(신임)·崔光植(신임)·崔茂藏·韓永愚·
黃善嬉

○ 고 문 : 金永上·孫禎睦·車文燮

◇ 2002. 8. 7 : 시사편찬위원회 행정간사 權五道문화재과장, 부임

Hi Seoul

SOUL OF ASIA

◎ 수증도서(2001.10~2002.10)

<정기간행물>

濶松文華 61, 62 / 韓國民族美術研究所
江原文化史研究 6 / 江原郷土文化硏究會
江原史學 17·18合 / 강원대학교 사학회
京畿郷土史學硏究 6 / 京畿郷土文化硏究所
慶州史學 20 / 慶州史學會
冠岳語文硏究 26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사관논총 95, 96, 97 / 국사편찬위원회
국토 2001.11~2002. 10 / 국토硏究원
軍史 44~46 / 국방부 군사편찬硏究소
年報 朝鮮學 8 / 九州大學朝鮮學硏究會
누리와 말씀 10, 11 / 인천가톨릭대학
대전문화 10 / 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독립기념관 2001. 12~2002. 10 / 독립기념관
東方學志 113~116 / 연세대학교 국학硏究원
東亞文化 39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硏究소
東洋文化 82 /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東洋學 32 / 단국대학교 동양학硏究소
東洋學簡報 12 / 단국대학교 동양학硏究소
東垣學術論文集 3 / 韓國考古美術硏究所
동학硏究 9·10합, 11, 12 / 한국동학학회
동학학보 창간호, 3 / 동학학회
馬事博物館誌 2001 / 마사박물관
明知史論 13 / 明知史學會

Hi Seoul

SOUL OF ASIA

문화역사지리 16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文化財 34 / 국립문화재연구소
 民族文化 24 / 민족문화추진회
 民族文化論叢 23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博物官紀要 1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史叢 54 / 高大史學會
 史學志 34 / 단국사학회
 새국어생활 제11권 제4호~제12권 3호 / 국립국어연구원
 서울교육통계연보 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문화 6 / 서울문화사학회
 서울사랑 창간호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회보 10~13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특별시 18 / 세계도시현장리포트
 서울학연구 18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省谷論叢 33집 상, 중, 하 / 성곡학술문화재단
 省谷論叢 總覽(1~33) / 성곡학술문화재단
 세계도시현장리포트 19, 20 / 서울특별시
 시민여론모음집 10 / 서울특별시
 新羅文化 19 /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신인간 2002. 1, 3, 6~10 / 신인간사
 아시아문화 15, 16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安東史學 6 / 安東史學會
 역사문제연구 8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회보 45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2 가을 / 역사문제연구소
 嶺南學 2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梨大史苑 33·34합 / 梨大史學會

人文科學 32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學研究 5 /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仁荷史學 9 / 仁荷歷史學會
 朝鮮文化研究 9 / 東京大學 朝鮮文化研究室
 朝鮮史研究 10 / 朝鮮史研究會
 朝鮮學報 180, 182, 183 / 朝鮮學會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13 -瑞山市篇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忠北學 3 / 충청북도 忠北學研究所
 클릭시청가족 2002. 3, 4 / 서울특별시
 退溪學報 110, 111 / 退溪學研究院
 學林 23 /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7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0, 12~16, 18~19 /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사론 31, 32 /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研究彙報 116, 117 /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先史考古學報 8 / 韓國先史考古學會
 韓國學論叢 24 /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港都釜山 18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단행본>

100년전 충북의 옛모습 괴산군편 / 정삼철(편역) / 충북개발연구원 부
 설 충북학연구소 2001
 2001 구정백서 / 금천구 2001
 2001 郡政白書 / 거창군 2001
 2001년도 관보 색인부 / 행정자치부 2002
 2002 기자가 본 100대 뉴스 / 한국편집기자협회 2002
 2002 성과주의 예산 / 서울특별시 2002

Hi Seoul

SOUL OF ASIA

2002 시정업무자료 제149호 / 서울특별시 2002

2002 재난사례집 / 서울특별시 2002

3·1혁명, 그 진실을 밝힌다 / 이현희 / 신인간사 1999

간이집 3 / 민족문화추진회 2001

갈암집 3 / 민족문화추진회 2001

江華 鰲上里 支石墓 發掘 및 復元 報告書 / 李亨求 / 선문대학교 고고
연구소·강화군 2002

江華島 摩尼山 高麗 離宮址 地表調査報告書 / 李亨求 / 선문대학교 고
고연구소·강화군 2001

江華塼城 지표조사보고서 / 李亨求 /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강화군
2002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 1 / 건국대학교박물관 2002

경기 남부의 조선시대 유적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1

京畿道史資料集 朝鮮時代篇 II /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1

京畿道史資料集 朝鮮時代篇 III /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1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 경기도 2001

桂陽山一帶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李亨求·金暎洙 /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인천광역시2001

桂園 盧伯麟將軍 研究 / 이현희 / 2000(cd 1매 포함)

고대 동아시아의 말그림 / 洪善杓 /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高麗 假闕址와 朝鮮 鼎足鎭址-江華島 鼎足山 三郎城 傳燈寺境內 建物
址 地表調査 / 李亨求 / 동양고고학연구소·전등사 2000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상속, 대물림의 내력(설촌고문서Ⅴ) / 국
민대학교박물관 2001

광주의 문화재(CD) / 광주광역시 2002

國譯 秋湖遺稿 (上)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금강변의 600년 터전, 세거리-한국의 전통마을23 / 한국향토사연구전
 국협의회 2001

금성산성 / 이해섭(편) / 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0

機張郡誌 上, 下 / 機張郡誌篇纂委員會 2001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국립국어
 연구원 2002

남양주시지 1 역사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2 문화재와 인물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3 민속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4 현대사회 상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5 현대사회 하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남양주시지 6 자료집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내친구 서울 2001년 모음집 / 서울특별시 2002

농암집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담양설화 / 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2

담양의 역사와 문화(담양의 이야기) / 담양군 2001

대한민국임시정부주석 이동녕 연구 / 이현희 / 1995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所藏 田中則雄氏 舊藏書目錄 / 東京大學東
 洋文化研究所 2002

동경도정 개혁 액션플랜 / 서울특별시 2001

동물원의 꿈 -2001년 서울대공원 공모전 100선집 / 서울대공원
 2002

동춘당집 3 / 민족문화추진회 2001

동학혁명사론 / 이현희 / 1994

목은집 2, 3, 4, 10 / 민족문화추진회 2001

문화예술의 서초 / 서초구 200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문화재청 2002

Hi Seoul

SOUL OF ASIA

문화재관계법령집 2001. 9 / 문화재청 2001
 芳山大窯 -始興市 芳山洞 初期青磁 白磁 窯址 發掘調査報告書 / 경기
 도 시흥시·해강도자미술관 2001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연구 /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연구 / 국립국어연구원 2001
 북한역사학논저목록 상, 하 / 국사편찬위원회 2001
 사계전서 5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 LA서울시사무소 수집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사진유리필름화집 / 국사편찬위원회 2001
 새서울 시정백서 2001 / 서울특별시 2002
 새서울 행동계획 / 서울특별시 2002
 새서울뉴스 축쇄판 2001년 1월~12월 / 서울특별시 2002
 새야 새야 파랑새야 /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2001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IV / 국립국어연구원 2001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20세기생활문화변천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 이종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여자대학교40년사 / 서울여자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2002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의 다짐 2002 / 서울특별시 2002
 서울특별시 직제규정집 / 서울특별시 2002
 수원 2002 월드컵 /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2002
 승정원일기 139~156 / 민족문화추진회 2001

Hi Seoul

SOUL OF ASIA

시민과 시장의 토요일 4년 1998~2002 / 서울특별시 2002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운영사례집 / 서울특별시 2002
 始興文化遺産 문화유산 둘러보기 / 시흥시 2001
 시흥의 생활문화 / 시흥시 2001
 시흥의 인물 / 시흥시 2001
 신독재전서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 신앙의 횃불-정약종의 삶 / 33기획 2001
 실업대책백서 2001 / 서울특별시 2001
 십자가와 응 / 서양자 가톨릭출판사 1999
 아차산의 역사와 숨결-한사군 초기 강역에 관한 연구 / 김민수 / 광진구
 2001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 2001
 여성, 삶의 이야기 10人展 /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2001
 여유당전서(cd-rom)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여행안내서 말레이시아 Tourism Malaysia
 여헌집 5(색인 cd-rom) / 민족문화추진회 2001
 歷史名文集 5 / 이현희 / 1985
 盈德郡誌 上, 下 / 盈德郡 2002
 완당과 완당바람-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 / 부국문화재단 동산방
 2002
 우계집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우리 경제, 이젠 이렇습니다. / 재정경제부 2002
 우리 역사 속의 진실찾기 / 이현희 / 신지서원 2001
 우리나라 현대사의 인식방법 / 이현희 / 삼광출판사 1998
 蔚山廣域市史 1. 역사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蔚山廣域市史 2. 전통문화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蔚山廣域市史 3. 정치행정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Hi Seoul

SOUL OF ASIA

蔚山廣域市史 4. 산업경제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蔚山廣域市史 5. 사회·문화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蔚山廣域市史 6. 자료편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월드컵행동계획 / 서울특별시 2002

월사집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유리원관 목록집 I / 국립중앙박물관 / 1997

유리원관 목록집 II / 국립중앙박물관 / 1998

유리원관 목록집 III / 국립중앙박물관 / 1999

유리원관 목록집 IV / 국립중앙박물관 2000

유리원관 목록집 V / 국립중앙박물관 2001

柳一韓의 독립운동연구 / 이현희 / 동방도서 1995

恩平區誌 / 은평구 2001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 / 이현희 / 신원문화사 1997

利川市誌 1 - 자연과 역사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2 - 인물과 문화유산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3 - 민속과 구비전승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4 - 정치와 경제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5 - 사회와 문화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6 - 개인생활과 마을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7 - 이천시지 자료집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仁川 江華外城 地表調査報告書 -草芝區間- / 李亨求 / 동양고고학연구소 2001

仁川 大谷洞 고인돌무덤 지표조사보고서 / 李亨求 / 동양고고학연구소 2001

일본미술명품 / 국립중앙박물관 2002

일성록 16~18, 56~60, 6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임시정부의 숨겨진 뒷 이야기 / 이현희 / 학연문화사 2000

Hi Seoul

SOUL OF ASIA

자료대한민국사 15, 16, 17 / 국사편찬위원회 2001
 資料를 통해 본 河南 / 하남시(사)하남역사문화연구소 2001
 자신있게 떠나는 세계여행 하와이편 / 대한항공
 전라도사료집 28 조선왕조실록 총색인 / 광주전남사료조사연구회
 2002
 정보공개 대상문서목록(2001. 1. 1~2001. 12. 31) II-I, II-II
 / 서울특별시 2002
 政府記録保存所 日帝文書解題 -外事篇 -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
 소 2001
 제5대 회의록(1998. 7. 1~2001. 9. 13) : cd-rom / 서울특별시
 의회 2001
 濟州島 牧場史 / 南都泳 /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제중원 / 박형우 / 몸과 마음 2002
 趙東祐 항일투쟁사 / 이현희 / 청아출판사 1992
 조선시대 풍속화 / 국립중앙박물관 2002
 종로 ; 시간, 장소, 사람-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 II / 서울학연구소
 2002
 종로구 이야기관의 설화 / 종로문화원 2001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 -형용사편- / 국립국어연구원 2001
 竹堂李炫熙教授華甲紀念論叢 / 竹堂李炫熙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
 員會 / 동방도서 1997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地圖로 본 대전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진안의 8대 명당, 원강정 마을-한국의 전통마을24 / 한국향토사연구전
 국협의회 2001
 천년 나제의 풍경소리 그윽한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 / 충청북도·忠北
 學研究所 2001

Hi Seoul

SOUL OF ASIA

철도와 20세기, 우리의 삶-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제6회 특별전 도록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1
 청계천 : 시간, 장소, 사람 -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 1 / 서울시립대학
 교 서울학연구소 2001
 춘정집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충북의 민속문화 / 충청북도·忠北學研究所 2001
 택당집 6 / 민족문화추진회 2001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1 / 퇴계학연구원 2001
 退溪全書 29 / 퇴계학연구원 2001
 風納土城[百濟王城]研究論文集 / 李亨求 /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풍납토성지역 장기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선주 /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1
 하나되는 한국사 / 고준환 / 재단법인 한국교육진흥재단 2002
 학봉전집 5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한강집 1, 2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 국립국어연구원 2001
 韓國考古學事典 上, 下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한국근대사의 모색 / 이현희 / 한국학술정보 2001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 2, 4 /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국근대여성개화사 / 이현희 / 한국학술정보 2001
 한국근현대사의 재조명 / 이현희 / 삼광출판사 2000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 이현희 / 삼영인쇄사 1992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7 /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국문집총간 261~280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한국문집총간 해제 5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한국사 47, 47(수정보완분), 48~51 /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국사료총서 44, 45 / 국사편찬위원회 2001

Hi Seoul

SOUL OF ASIA

韓國驛制史 / 趙炳魯 /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2002
韓國銀行 古書解題 / 한국은행 2001
한국인의 재발견 7, 8 / 문화관광부 오완열 / 피아 2000
한국전력20년사 상, 하 / 한국전력주식회사 1981
한국철도사 / 이현희 / 한국학술정보 200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51, 52 /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민족광복투쟁사 / 이현희 / 정음문화사 198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5~48 /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항일투쟁가 王在-의 생애와 사상 / 이현희·주동혁 / 동현출판사
1995
해동역사 4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내사랑 부산바다 -부산항 변천사- / 최해군 / 부
산광역시 2001
해외소재한국사자료수집목록집 1~5 / 국사편찬위원회 2001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Suk O Yi Dong Yong / Lee Hyun-Hee 2001
Dynamic Seoul 2002 / 서울특별시 2002
Seoul City Identity Basic System Manual / 서울특별시
1997
SEOUL生活案内(일본어판) / 서울특별시 2002

『郷土서울』 투고 안내

서울의 역사에 관계되는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전화 323-9390, 335-0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郷土서울

第62號

발행인 이명박
편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02-335-0594)
편집·교열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박은숙

발행일 2002년 12월 20일
제작원가 17,400원
판매단가 5,000원
인쇄 성광문화사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51-6110000-000149-10

본 연구 논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Hi Seoul

SOUL OF ASIA

THE HYANGTO SEOUL

The Journal of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No.62

December 2002

CONTENTS

- Fortress of Hanseong(漢城) Period in BaekJe
..... Park, Soon-bal ... (5)
- The Change of the Capital City from Wiryeseong to Hanseong in
BaekJe Dynasty kim, Ki-Sup ... (47)
- A Study on “Hanamwiryeseong” through the excavation of
“Pungnabtoseong” Shin, Hee-Kweon ... (79)
- The reconsideration of Habukwiryeseong(河北慰禮城) and
Hanamwiryeseong(河南慰禮城) Oh, Soon-Je ... (121)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Workers in the Manufacture Industry
in Seoul in the 1960s kwak, Geon-Hong ... (225)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203-1 Yeonhui-dong, Seodaemun-gu,
Seoul, Korea

Hi Seoul

SOUL OF ASIA